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1호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떳다방' 천도재 판매 기승 불교계 관리제도는 '全無'

[기획] 불교 상장례 관리제도 · 내규 필요하다

최근 불교 상장례 상품에 대한 소위 '떳다방' 형식의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단 차원의 상장례 상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보은군은 최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판매 방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위패와 불상 등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지낼 것을 권유하는 이른바 '유사포교당', '떳다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보은군은 1월 19일부터 보은읍이장협의회, 통합사회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허위 · 과대광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의 이번 단속은 함안 A사찰이 진행한 위패 · 천도재 방문판매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며 시작됐다. 이 사찰은 포교당 형식으로 간판을 건 뒤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 후 불교 상장례상품을 고가에 판매해왔다.

김소형 보은군청 경제계과 주무관은 "2012년 이 사찰의 행위로 지역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6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생필품 등 선물배포와 노래와 유흥 등을 미끼로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비용을 요구하는 등에 주의 지침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11월에는 전북지역에서 18개 불교단체들이 함안 A사찰의 행위가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함안 A사찰이 속한 대각회 측은 "자녀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구입한 어르신들로 인해 법인으로도 많은 항의가 오고 있으며 반환소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에서도 2010년대 해인사 고불암 감원이었던 한 스님이 상장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방문판매업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진 노린 위탁업체도 성행

최근에는 사찰과 스님의 직접적인 운영 외에도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따르면 동두천 B사찰의 경우 사찰 주지 스님이 포교당을 위탁운영했고, 역시 위패를 판매한 운영업체가 부도가 나자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노인 대상으로 방문판매 성행
피해 많아지자 보은군 단속나서
동산 활용 관련제도 미비 '허점'
사정기관 감독 및 신도교육 필요

유정희 전북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 위탁운영 등으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비불교적인 방법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불교계에 동산이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되어있지만 불상, 위패, 천도재 등 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관한 관리체제는 없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사찰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종단에서 인허가 등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사찰의 사례 때문에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엄단하는 등 종단 내 사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관련 제도 완비해야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문화적 자산에 대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학과 교수는 "장사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되고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서 · 약속이행서 등을 통해 불상, 위패와 천도재 판매에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내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불교 상장례 관련 비용에 대한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한국가톨릭의 경우 1만원씩 받던 49재미사를 최근 무료로 진행한다고 공개했으며, 일본에서도 관장 · 총무 등 스님에 따른 재의 비용이 사찰에 공개돼있다. 인천 용화사의 경우에는 평생 위패와 재에 1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추선공양의 의미가 강한 불교 상장례 상품은 신심과 신도 만족 부분이기에 액수를 강제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지만 천차만별인 현재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 기본 수준을 정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를 통한 피해발생도 신도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불교전통문화보존회 등 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고 감시, 교육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에 한국불교 자비 전해요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참사람봉사단(단장 김의창)은 1월 12일부터 7일간 베트남 빈증성 바우방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학생 30명이 참가한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베트남 빈증성 바우방현에 위치한 쯔반토 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정비 작업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지종 새 통리원장에 인선 종사

19일 임시 종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불교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에 현 총무부장인 인선 종사(사진 · 관성사 주교)가 선출됐다.

불교총지종은 1월 19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서 2016년 임시 중앙종회(의장 수현 정사)를 열고 신임 통리원장을 선출했다. 총원 16명중 결원 1명, 불참 1명으로 15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신임통리원장 선출 종회에서는 인선 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1월 30일부터 3년간이다.

이번에 통리원장으로 추대된 인선 종사는 경남 진양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계장,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선 종사는 "그동안 시행한 '새 종풍운동'과 교화와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통밀교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종단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성 종사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계장 · 총무부장 · 전당건설위원 · 사회복지재단 이사 · 통리원장 직무대행 · 운천사 주교 · 관성사 주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선거 2월 25일 실시

중선위, 19일 회의서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월 19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 공고안을 확정했다.

제16대 중앙종회는 현재 직선직 2명과 직능대표 2명, 비구니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1월 23일 선거공고를 내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후보를 접수받기로 했다. 또 2월 4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선직 2명의 선거교구는 쌍계사이며, 선거일은 2월 25일이다. 직능대표는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가 2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후임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비구니회 내홍으로 인해 선출되지 못했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석에 대한 재선거도 실시된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2014년 10월 전국비구니 운영위원회가 10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선거 직전 1명의 후보가 사퇴해 1석이 공석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선거를 1년 이상 끌어왔고, 이미 9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활동 중이다. 또 법규위 심사는 전국비구니회의 종회의원 선출에 대한 부분이기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덕현 기자

목 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1081호 INDEX

시방세계 5
전국 사찰불교대학 봄학기 신입생 모집


산문 밖의 禪 14·15
김개천 건축가
(국민대 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Design 등록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발송까지 1주~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종 류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2016년, 출가 진흥 원년으로 삼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출가 정책을 펼친다. 학인 염불대회,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 이어 토론대회도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현응 스님이 발표한 신년계획에 따르면 교육원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출가 진흥을 위한 사업 △각급 교육기관 학점제 전면 시행 △제1회 학인토론대회 개최 △연수교육 내실화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을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출가 홍보 사업을 펼칠 것을 밝혔다.

현응 스님은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 권역별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종립학교 고등학교와 전국 파라미타 연합수련회, 대불련 영부디스트 캠프 등에 출가 홍보 강연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출가 콘서트와 강연회에 참여하는 출가홍보지도법사단, 출재가를 아우르는 출가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출가 상담과 관리를 담당할 교구본사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은퇴자 특수 출가'에 대해서는 "중앙종무기관 및 중앙종회의 입법추진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불시연대회, 외국어스피치대회에 이어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도 눈길을 끄는 역점 사업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제1회 학인토론대회는 학인 스님들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향상하고 올바른 불교관 정립, 전법포교 능력을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불교 사상과 교리, 불교와 사회 관련 등이 다뤄지며, 승가대학 당 1팀씩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응 스님은 "토론 대회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는 승가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강'을 현대화 한 것"이라면서 "논강 문화를 활성화 해 학인들로 하여금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탁마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에 학점제가 도입되며, 연수교육에 신규 프로그램 10개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현응 스님은 "신규 사업 이외에도 행자 · 기본 · 전문교육과 연구 개발사업 등 교육원의 일상적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각 100년 향한 혁신 토대 마련할 터"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1월 18일 신년 간담회



"누구나 쉽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종교, 재가자들이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종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 수행자인 우리 스승들부터 내면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총인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서 신년사업계획에 앞서 올해의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회정 정사는 "종책 지표의 핵심 골자를 요약하면 창종 정신의 재확립, 진각 100년을 향한 혁신 토대마련, 새 시대 불교와 사회가 교감하는 진각문화의 대중화입니다"라며 "특히 긍정의 사회분위기를 선도하는 유무형 문화의 완성인 '새진각문화'를 마련하고 이를 사회 속으로 회향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점과제 및 과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진각 100년의 구심점 마련' '진각 100년을 향한 서원의 결집' '진각 100년의 비전을 위한 대인연불사 추진' '심인불교 정신의 문화화, 사회화 단초 마련' 등 4가지 대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JGO 포럼 설립(가칭)'이다. 3월 중순 발기인대회를 거쳐 6월 창종절에 맞춰 모습을 드러낼 'JGO 포럼'은 종단의 미래 핵심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범 종단적 기구'이다.

회정 정사는 "회원은 우선 약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불교를 사랑하는 분들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격이 되며, 앞으로 진각종 더 나아가서는 한국불교를 외호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시킬 것이다"며 "JGO 포럼을 통해 인적 외연을 확대하고, 퇴임스승의 사회활동 지원, 미디어사업과 같은 종단 관련 조직의 조직화 제안, 진각 생활문화 개발 보급, 종단 포교콘텐츠의 조직화 추진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올바른 가정문화 회복을 위해 '가정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부 · 모자 복지, 조손 가정, 미혼모자 시설 설립 유도 및 신개념 노인복지 시설을 기획해 설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정 정사는 총인원 뒤편에 진각종 창종부터 70년간 종단에 도움을 준 영가의 위패를 모시는 '추복전'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회정 정사는 "올 중반기 성역화불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전승원 내에 추복전을 만들어 효의 교육도량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JGO 포럼, 추복전 등 설립 계획
〈진각 70년사〉〈70대 뉴스〉 발간

또한 '진각 100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기록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전자북 형태의 〈진각 70년사〉와 '진각 70대 뉴스(가칭)'를 선정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전승원 내에 진각역사관과 육자진언 사료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승 및 신교도 교육강화, 자성동이 및 청소년 지도자 육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회정 정사는 "어린이 잡지인 월간 〈자성동이〉를 통해 청소년 지도자 육성과 연계한 인재결집과 글로벌화를 통한 진각청소년지도자 참여 및 교육폭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진언행자 평생복지 개념의 일환으로 기로원 운영도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정 정사는 "올 9월경 전승원 불사가 마무리되면 일대를 지역의 '불교 랜드마크'로 키울 것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신교도들을 위한 소규모 인문학 강좌부터 불교 교리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 밀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꿀 것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진각종은 종단의 등(燈)문화 위상 정립과 특성화 문화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진각종은 올해 △WFB 제 28차 총회 및 아시아불교문화페스티벌(9월말) △3년에 걸친 한국밀교문화총람 사업 첫 시행 △신임 총인 추대 및 통리원장 취임(10월 30일경) △진각국제체험관 개관(9월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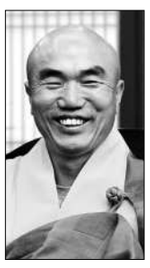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인사 대거 단행

기획실장 혜일, 재무부장 유승, 문화부장 정안 스님


혜일 스님


유승 스님


정안 스님


일감 스님


성효 스님

조계종이 총무원 부실장 및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획실장에 혜일 스님(前 문화부장), 재무부장에 유승 스님, 문화부장에 정안 스님(前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에 일감 스님(前 기획실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성효 스님(前 관음사 주지)을 임명했다.

국장 인사도 단행해 총무원 기획국장에 도심 스님, 문화부 문화국장에 용주 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에 인오 스님, 사서실 사서국장에 도봉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법도 · 지륜 스님, 사서실 수행사서에 향림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에 현담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에 대안 스님 등을 새로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법인법 폐지 선행 입장, 변화없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2016년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조계종의 법인법 제정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기에 해결방안은 법인법 폐지 말고는 없다. 법인법이 폐지되고, 선학원 인사 · 재정 · 운영에 대한 간섭이 없다면 이사장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과의 갈등해결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선학원은 1월 19일 SK허브 선학원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이날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를 통한 조계종 측의 대화제의를 거절하며, 법인 관리법 폐지가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법진 스님은 "종단과 재단과의 대화의 첫 걸음은 무조건 법인관리법의 폐지"라고 말했다.선학원 측은 올해 상반기에 세납 70, 법랍 40세 이상의 비구, 비구니 30명 이내의 장로원과 정법 수호를 위한 범행단을 구성하는 등 독자행보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로원 범행단 구성 계획 공개
한국근대불교기념관 연내 완공

법진 스님은 "금년에도 불협화음이 계속 된다면 수계산림도 계속하고 행자교육, 승적관리도 따로 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를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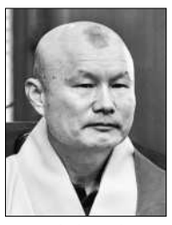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올린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이하 기념관) 완공 및 운영계획도 공개됐다. 올해 9월 중 개관하는 기념관은 지하 4층에 지상 2층 연건평 602평의 최신식 건물로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하에는 공연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홀과 세미나실, 선리연구원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지상에는 선학원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실과 중앙선원 대법당, 시민선원 등이 들어선다. 선학원은 10월 초순 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 만해 스님 추모사업도 활발히 전개된다. 5월 중 전국청소년문예공모전을 시작으로 6월 1일 정법사 무설전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추모학술제, 6월 18일 국립극장 '하늘'에서 만해 추모예술제, 6월 29일 AW컨벤션센터에서 만해 추모다례재가 진행된다.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근본도량으로, 새로운 불교문화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념관 건립에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관음사 직대 허운 스님


진화 스님


허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순천 송광사 주지에 진화 스님,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허운 스님을 임명했다.

송광사 신임 주지 진화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으며 봉은사 주지, 증심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을 역임했다.

제주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으며, 서봉사 주지, 신도시포교 종책특보를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30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❶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❷ **수료및 졸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주민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4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최종 학력증명서

❸ **편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❹ **전형일정** :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6년 1월 18일 ~ 2월 29일**

❺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❻ **특 전** :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불교사회정책연, 국회에 '정책 제안'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둔 국회에 대해 불교문화 및 사회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이하 불사정)는 1월 19일 '2016 불교문화정책 제안집'을 공식 발간하고, 정부·여당 및 야당 정책위원 등에게 전달했다. 제안 내용은 △불교문화 관련-'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 외 15개, △사회관련-'통일정책' 외 8개로 총 25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응 스님은 "국가유산인 불교문화유산들이 몰이해와 무관심, 국토개발 위주 정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및 예산배정에 있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불교 법령 정비위 발족 주문
총 25개 개선안 담아

불사정이 제안한 주요 불교문화정책은 △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 제 실시 △조계사·봉은사의 국가적 가치 인식 △'불교학 중앙연구원(가칭)' 설립 △평창동계올림픽 '자연명상마을' 지원 △전통사찰과 주변의 환경보호 법제화 등이다.

특히 '불교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는 불교관련 법령 중 독소조항이나 불이익, 애매모호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불사정은 △사찰 증개축 보수의 사실상 불가 △비지정 문화재 및 폐사지 등 불교문화유산 관리 소홀 등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회·정부·조계종 인사로 구성된 '불교관련 법령 정비위원회(가칭)' 발족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사찰 증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 건폐율을 완화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은 조계종이 정부 측에 줄곧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아름 기자

最古 금속활자 '직지' 638년만에 복원되다

청주고인쇄박물관, 19일 복원품 공개 발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9일 금속활자주조전수관에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공개했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성서(1455년)보다 78년이나 앞선다. 〈직지〉는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요체인 〈직지〉의 활자가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9일 금속활자주조전수관에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공개했다. 완성된 직지 금속활자는 직지상·하권 글자 3만 여자다.

복원 작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52)금속활자장이 맡았다. 그는 직지가 만들어질 당시 널리 쓰였던 밀랍주조법으로 직지를 찍은 활자를 재현해냈다.

밀랍주조법은 벌집의 찌꺼기를 가열해 얻은 밀랍에 글자본을 붙여 글자를 새긴다. 이어 흙으로 감싸 주형을 만들고 밀랍을 녹여낸 공간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고려 말 간행된 직지는 애초 다량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하권 1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직지 상·하권 3만여 字 되살려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복원 맡아
옛 밀랍주조법으로 제작해 눈길
9월 '직지코리아' 축제 연계 전시

그래서 원본이 없는 직지 상권의 활자 복원은 직지 이듬해 간행된 목판본 직지의 내용을 참고했다.

글자체는 직지와 같은 활자로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자비도량참법집해' 번각본 등에서 집자(集字)했다. 여기에도 없는 글자는 직지 하권의 글씨에서 하나하나 획을 따다가 조합하기도 했다.

복원 사업에는 5년이 걸렸다. 청주시는 총 18억 1,000만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벌였다. 청주시는 고인쇄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시대 활자복원 사업을 펼쳐 계미자 등 45종의 활자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직지 복원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번에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를 오는 9월 개최하는 '직지 코리아 축제'에서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복원된 〈직지〉 금속활자는 한국 금속활자인쇄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관광자원으로 청주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9월 열리는 '직지코리아' 축제에 〈직지〉 원본을 전시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청주시 관계자들은 직접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직지〉 대여를 요구하는 시장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4월에도 청주시 관계자들이 프랑스를 방문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주시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프랑스가 부정적인 것은 직지가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약탈문화재가 아닌데도 직지 전시를 계기로 반환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또 다시 '훼불'… 개신교인 '각목 난동'

1월 17일 김천 개운사서
60대 남성이 불단 훼손
진원 스님 "재발 위험" 우려

김천 개운사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 밝힌 60대 남성은 불상을 비롯해 향로, 촛물, 목탁 등 법구를 파손했다.

A(남·64) 씨는 1월 17일 밤 10시 30분 경 경북 김천 개운사(주지 진원) 법당에 난입, 불단 위로 올라가 각목을 휘두르며 불상 및 법구를 파손했다. A씨는 개운사 침입 전 인근 성당서도 성모마리아상 2개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지 진원 스님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5~7분 만에 각목으로 법당 전체를 파손시켰다"면서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다. 나와 종무원이 발견하자 도망가려하지도 않았다. 순순히 밖으로 따라 나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1월 17일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60대 남성에 의해 훼손된 개운사 불당.

스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진원 스님을 가르키며 "마귀"라고 윽박지르고, "불교·천주교는 미신"이라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 스님은 "A씨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면서 "개인의 신념으로 한 훼불행위라 재발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난동 직후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체포돼 김천경찰서로 인계됐다.

김천경찰서 형사2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19일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BC 사업 4년 성과·전망 논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20일 세미나 개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술원은 1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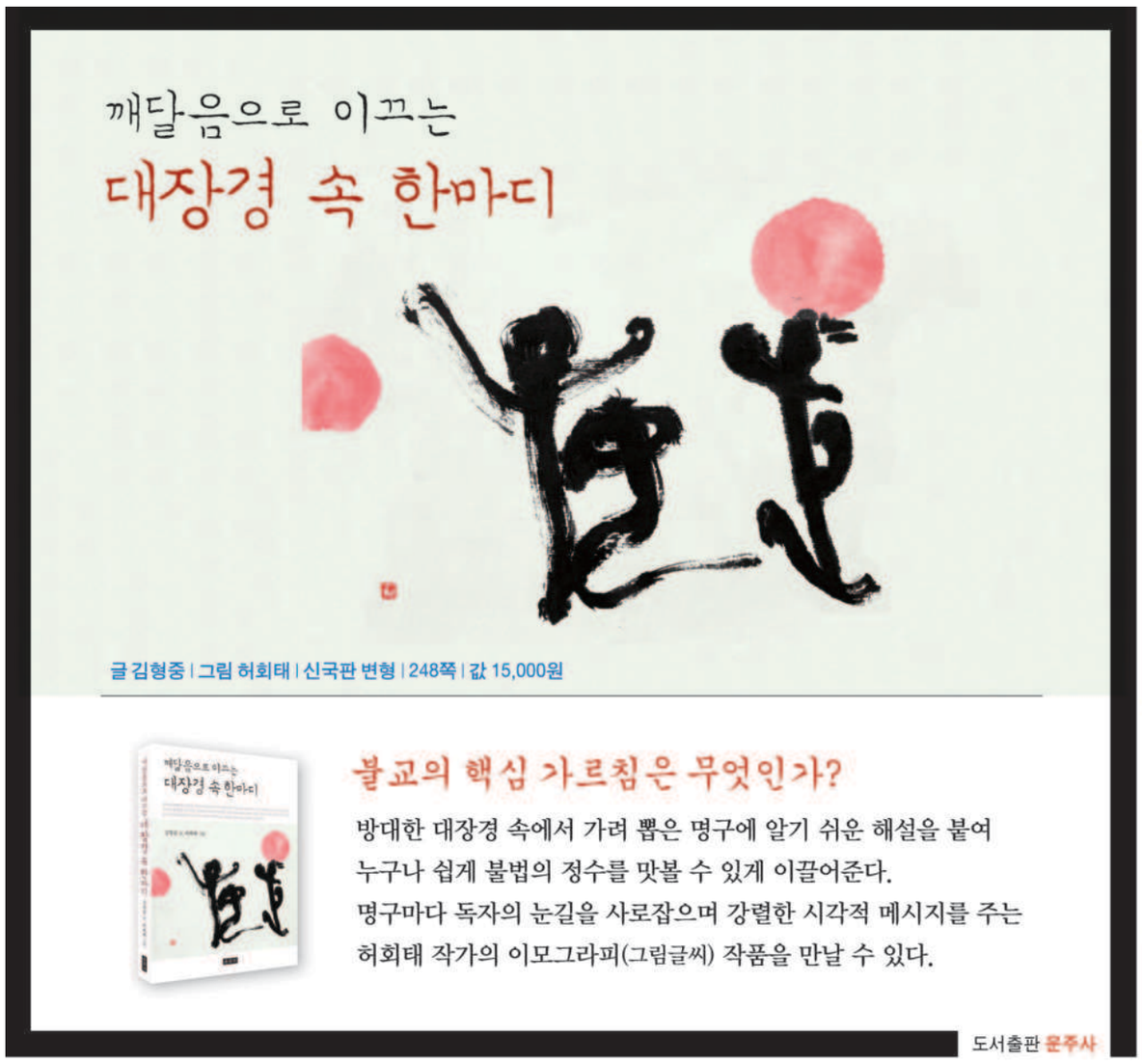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집성팀에서는 한국불교의 기록물들을 수색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선별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의 우선 순위로 조사·집성해 왔다. 그간 출장 조사한 기록물의 소장처는 23개소, 조사 문헌의 개체 수는 6,077건이며, 집성을 위해 촬영한 분량은 매수로 194,749장이다.

역주팀은 번역 출판본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참여 연구인원은 262명으로 이중 역주에 79명, 증의에 73명, 해제에 64명이 참여했다. 또한 2007년 4월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발족한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단'의 사업을 계승해 현재는 전체 분량의 60%까지 역주하였다. 이밖에 2013년부터 3년 동안 문화재청 중요 국가문화재 국역사업도 수행하기도 했다.


불교학술원은 1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ABC 사업은 불교 기록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록물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불교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불교 기록문화유산을 유포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은해사불교대학 졸업식

돈관 은해사 주지 스님은 2월 13일 오후 2시 은해사수련관서 '은해사불교대학 11기 졸업식'을 거행한다.



청렴한국인 대상

혜봉 포항북부장애인복지관장 스님은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렴사회 천만인 청렴서약식'에서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차 선지식 구도순례

정은용 정법빠리사 대표도반은 1월 30~31일 용문산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2차 선지식탐방 구도순례'를 실시한다.

〈이전〉 출판사 올리브그린(대표 오종욱) 사무실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9-4번지 원창빌딩 502호로 1월 18일 이전했다. (070)7574-8991

"스키로 스트레스 날렸어요!"

스카우트불교연맹, 강원도서 청소년 스키캠프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 포교원장 직무대행)이 주관한 '화랑 인성함양 스키캠프'가 1월 18~2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렸다.

옥천암과 동원정사 등 수도권 9개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 205명과 지도법사스님, 재가 지도자 28명 등 총 233명이 참가한 이번 스키캠프는 어린 불자들이 정서를 순화하고, 스키를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스키캠프 참가자들은 18일 입재식에 이어 자비명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스키와 보드 2개 종목에서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강습을 실시했다. 어린이 · 청소년들은 캠프 이튿날부터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예불과 함께 일정을 시작, 수준별 스키 및 보드 강습과 자유시간을 즐겼다.

올해로 세 번째 스키캠프에 참가한 용주사 여정은 법우(중학교 2)는 "스키를 타면 추위는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 "같이 절에 다니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스키캠프에 참가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비로자나선원 박태은 법우(고등학교 2)는 "그동안 공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렸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복지포교로 불교 한 축 이룰 터"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 초대 회장 취임한 상덕 스님



전국서 복지활동하는 비구니 모아
회원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주력
"불교계 직영복지시설 확대되길"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서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선(禪)과 교(敎)가 불교를 이루듯 비구니 복지실천가들의 역량을 모아 복지포교가 불교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월 21일 출범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하 한비복실회) 회장에 선임된 상덕 스님〈사진〉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교리를 사회에 널리 알려 많은 이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복지포교'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비복실회는 복지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시설장들이 모여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비구니 복지실천가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현재 서울 · 강원 · 충청 ·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시설장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덕 스님은 "20년 가까이 불교복지분야에서 활동하며 비구니 시설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시설장이지만 비구니이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고충도 꾸준히 이어졌다"며 "한비복실회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우리사회 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비구니스님들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상덕 스님은 2013년 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5대 시설장협의회장에 선출돼 1년 반가량 단체를 이끈 경험이 있어 불교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님은 시설장협의회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비복실회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상덕 스님은 "현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시설장만 회원으로 등록돼 규모가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직원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도 준회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힐 생각"이라며 "시설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70명의 직원들이 있다. 불교계 복지전문가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불교위상과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덕 스님은 더불어 단체 회장으로서 불교복지계에 직영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스님은 "대부분의 불교복지시설이 지자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위탁 조건에 맞춰 활동하다보니 각종 제약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불법(佛法)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영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불교계 복지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순수한 불교복지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직 화합 · 음성포교로 불교발전 도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박화자 제 6대 회장



미가입 사찰 합창단 발굴해
음악적 완성도 높일 계획
사회공헌나눔활동에도 노력

"조직 화합을 이끌어내며 아름다운 찬불가를 통한 음성 포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제6대 신임회장으로 박화자(59 · 사진) 회장이 1월 18일 취임했다. 박 회장은 수영구 라스코스 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화합'과 '음성포교'를 두 축으로 삼아 조직 발전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찰 합창단을 찾아 소통하고 모두 함께할 수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불가는 거룩한 부처님의 장광설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역대 회장님들이 이뤄놓으신 음악적 완성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한 찬불가를 통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심 수행할 수 있었던 과거를 전하며 찬불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처음 합창단 수업에서 경험했던 무언의 전율과 환희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부처님전에 매달려 달라고만 했던 기도가 어리석음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 회장은 찬불가 보급과 함께 부산불교연합회의 주 활동인 자비자눔,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집행부 소임자와 모든 단원 그리고 배천종 지휘자님을 도울 것이다"며 "부산불교에서 진행하는 활동 및 봉사에 협력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992년 2월 부산지역 26개 합창단을 주축으로 창립했다. 이후 부산전국불교합창제 및 부산불교연합합창단연주회를 개최하며 찬불가를 보급해오고 있다. 2002년 리바델가루다 합창제 은상, 같은 해 10월 유럽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불교대표로 참가해 동메달, 2015년 전국불교합창제 1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부산합창마라톤, 세계여성합창제, 불교합창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성미 기자**

로터스월드-라오스 MOU

1월 18일 협약식… "교육지원사업 펼칠 것"



불교계 국제구호NGO단체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월 18일 라오스 씨엥쿠앙 도교육청과 MOU 체결을 맺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체결기간인 2017년 10월까지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 외 2개 마을서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친다. **박아름 기자**

본동복지관, 아이들과 직업체험

1월 15일 서울 키자니아서



본동사회종합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월 15일 서울 키자니아에서 겨울방학맞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본동종합복지관 측은 "아이들이 평소 관심있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성북장애인복지관 '눈썰매 여행'

충남 아산서… 발달장애아동 21명 참석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월 14~15일 충남 아산에서 '2016 겨울계절학교 1박 2일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21명이 참석했다. 1일차에는 눈썰매 타기, 중국 기예단 공연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세계 꽃 식물원을 방문해 꽃물손수건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 시간을 가졌다. **박아름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을 찾는
108선지식 구도순례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2차 선지식탐방 구도순례

- ◆ 일 정 : 2016년 1월 30일(토) ~ 31(일)
- ◆ 장 소 : 용문산 상원사 용문선원
- ◆ 소참법문 : 선원장 의정스님(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대표)
- ◆ 출발장소 :
  - ❶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수운회관 앞
  - ❷ 1월 30일 오후 3시 3호선 양재역 11번출구 주차빌딩 앞
-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및 기도법회 동참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으로 11월 21일(토)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을 찾아 철야정진을 하고, 조실인 학산 대원스님으로부터 소참법문을 들었다!
-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심을 고취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으며, 지계를 바탕으로 수행이 뛰어난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 법회에는 다양한 주제로 법사를 모시고 일요 기도정진법회를 진행.
- 2개월에 한번씩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무박 2일 철야정진 진행.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대 표 도 반 덕상 정 은 용 두손모음

다가오는 春 향학열로 '佛心' 싹 틔워요!



영남불교대학 학생들이 강의에서 사경에 몰두해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3월 개강 앞둔 전국 불교대학, 어디서 공부할까?

연일 계속되는 동장군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불교대학 · 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오롯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는 불자들의 학구열로 뜨겁기만 하다.

불교를 바로 배우는 것은 불제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이다.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 역사 등 2500년간 이어져온 불교 전반을 배우고자 한다면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이 적합하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130여 개에 달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불자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태고종 · 천태종 등도 신도들을 위해 각각 불교대학을 설립, 현재까지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불자와 심도 있는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2016년도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요강과 교육내용 등을 정리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은 1월 30일까지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대학과 대학원 각각 2학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대학에서는 △부처님 생애 △행복한 삶의 방식(계율) △불교문화 △인도불교 △한국불교사 △불교개론 △아비달마 △중국불교사 △현대사회와 불교 △대승불교 △동서양문화 교류 △조계종사 등을 교육한다. 대학원은 △선사상연구 △불교의 체계적 이해 △중관사상 △불교와 세계종교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등이 진행된다. 강의시간(대학 · 대학원 동일)은 주간반 화요일 오전 10시, 야간반 화요일 오후 7시, 토요반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이다. 등록금은 학기당 대학 45만원, 대학원 50만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재입학자, 가족등록 등에 한해 할인혜택이 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 02)768-8600

서울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올해부터 1년 2학기제로 변경됐다. 교육은 △부처님 생애 △초기불교 △대승불교 △바라밀신행론 △불교사 △불교문화 △선사상 △보현행원품 △불교와 현대사회 등이 이뤄지며, 매주 목요일 아침반 오전 10시, 저녁반 오후 7시 30분 강의가 시작된다. 등록금은

조계종 불교대학 130여 곳
천태종도 전국서 운영해
불교학개론 · 불교문화 등
1~2년 과정 체계적 운영

학기당 35만원, 가족등록 시 1인 50% 할인된다. 특히 입학생은 불광교육원에서 열리는 모든 아카데미 강좌 수강 시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2월 22일까지. 02)417-2551

강남 봉은사 봉은불교대학도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 · 목 주간반 오전 10시, 야간반 오후 7시 30분 시작되며 교육내용은 다른 불교대학과 유사하다. 강의 외에도 가정법회와 성지순례, 수련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금은 40만원, 가족동반 시 1인 무료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 02)3218-4821

서울 화계사는 불교대학(2년 4학기제)과 대학원(1년 2학기제)을 운영한다. 불교대학은 주간반 수요일 오후 1시, 주말반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 불교대학원은 주간반 화요일 오후 1시, 주말반 일요일 오후 3시. 등록금은 대학(입학금 별도)과 대학원 각 16만원. 입학식은 3월 8일 오후 1시이며, 당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02)997-6469

동산불교대학은 2016년 4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요반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CD를 통해 공부하는 '통신반'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등록금은 20만원이며 3월 5일 개강한다. 또 불교학과와 다른 선 · 명상학과와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등도 있어 전공 선택의 폭이 넓다. 02)732-1206

한편 **천태종**은 전국에 금강불교대학을 마련해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불교학과 2년 과정(초급 · 중급 각 1년)으로 △불교학개론 △천태신행입문 △정토사상 △천태소지관 △천태학개론 △대승불교 △금강경 △법화경 등이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초급)과 화요일(중급)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관문사에서 강의하며, 등록금은 1년 10만원이다. 또한 별도의 교법사과를 운영해 △중관사상 △육묘법문 △기신론 △천태종사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법사과 등록금은 학기당 20만원. 접수는 2월 12일까지이며, 14일 오전 10시 관문사에서 면접이 진행된다. 02)3460-5200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 종단 인가 불교대학 목록

조계종 불교대학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충남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경북	안동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극락사불교대학	02-2208-6095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10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266-8150
	서울정각원불교대학	02-2260-3016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구룡사불교대학	055-294-3279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연화불교대학	02-962-6186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직지불교대학	070-7675-1080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불자수다라불교대학	055-262-6663
경기	금강불교대학	02-899-0408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부산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진불선원선불교대학	055-275-3222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정종사불교대학	055-336-6867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법계사불교문화대학	051-711-070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불지불교대학	051-816-2241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봉선사불교대학	031-527-5974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여여불교대학	051-853-5486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
	봉인사불교대학	031-574-5585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전남	강진불교대학	061-434-7781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원각불교교육대학	051-752-6624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약천불교대학	031-942-1252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자재암불교대학	031-865-4045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여여불교문화대학	052-267-0108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화운불교대학	031-335-2576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광주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인천불교대학	032-577-5108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광주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전북	남원불교대학	010-3672-1250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월인불교대학	033-436-6624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70-4827-9029		문경불교대학	010-3776-2476	제주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마곡불교대학	041-841-6221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강릉 금강불교대학	033-643-9234	대전 금강불교대학	042-823-0332	제천 금강불교대학	043-648-2223
거제 금강불교대학	055-681-8070	부산 금강불교대학	051-808-0730	창원 금강불교대학	055-276-3370
구강사 금강불교대학	02-479-4450	안동 금강불교대학	054-844-6320	청주 금강불교대학	043-223-0322
금강 명상상담대학	031-714-3000	인천 금강불교대학	032-567-2533	춘천 금강불교대학	033-2410-1330
대구 금강불교대학	053-624-0542	울산 금강불교대학	052-277-7211		

도경스님의 실전 영반 靈盤 구성학 공개강좌 및 수강생모집

기(氣)와 영(靈)을 실어서 점단하는 영반구성학 !

점사 볼때 구성학을 숫자로만 통변 하십니까?
구성통변! 들을때 뿐 통변이 안됩니까?
점사에 말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오면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문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창업이 가능 합니다.

교재용 비매품



강의 일정표
정규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속성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선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영반구성학 협회장
대한선보신문 대표
서울 고해사 주지
부산 도경사 주지
묘법사 3년 하안거
마니산 토굴 2년 기도정진
대둔산 토굴 3년 기도정진
그 외 기도, 명상,참선, 기공, 선법,등
수회 수련및 기도정진

■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점단 한다면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한다.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수의 자리이동이라 생각 한다면 점사가 막힌다. 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을 하루 3~10분 명상으로 심신의 변화와 영성을 키워 훌륭한 통변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병행 해 나아갈 것입니다.

■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전화 하시면 입종안내 및 입종서류 보내 드립니다.
종단 입종 서류접수 심사 후
승려증,사찰등록증,임명장을 드립니다
본 종단과 함께 할 법사님도 환영합니다

■ 출가(법사나 스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분)에 뜻이 있는 분은
본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 교육과정을 거친후
승려증 발급과 사찰이나 포교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분은 종단에서 적극 후원 지원함. .
할 일이 많습니다.사찰,포교당운영,기도,명상,참선,기공등..

교육대상
각 사찰 스님들의 불사및 포교에 최고입니다.
온라인상담, 철학관, 사주까페 개업하실 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변이 안되는 분
무속인, 점사가 안 나오거나 말문이 막히는 분
인재채용 및 영업직에 계신분,사교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
문화센터나 교육원에서 공부했으나 점사풀이가 잘 안되는 분
수료후 수료증, 협회 회원등록 학술회원 위촉 및 협회자격증 수여.

특전:30년 경력의 명리학 해강선생 초청 무료강의 준비중 (스님만)...
본 협회에서는 CD 및 동영상 제작을 일체 하지않습니다.

오시는 길. 주소: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삼익아파트 상가 2층)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하차 1번출구나와서 왼쪽 계단올라오면
공개강좌 :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익아파트가 보입니다.) 도보 5분거리

선대한불교조계종 부설. 구성학 등록번호제00189호
禪大韓佛教曹溪宗 선대한불교조계종 (02) 959-1825
대한靈盤구성학협회 대한영반구성협회 (02) 962-3467

복지재단 · 생명나눔, 2016 신년계획

불교계 '복지 사각지대' 찾아 나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불교계 복지법인 '전수조사'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교복지지도' 구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교복지 취약지역을 공략하는 한편, 지역별 안정적인 분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1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의 2016년 종무기조는 '행림회춘(杏林回春), Forward 20'이다. '행림회춘'은 '살구나무 숲에 봄이 왔다'는 사자성어로,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올 한해 지난 20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도모할 것"며 "불교복지 성장과 변화, 미래를 위한 공덕의 씨앗을 심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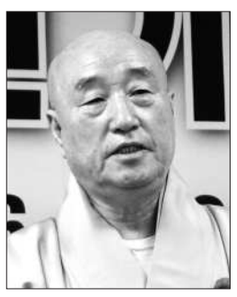
구체적인 4대 핵심 과제로는 △지역별 불교사회복지 성장 및 거점화 구축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전수조사 및 복지허브 기반 조성 △불교복지 고유정책 및 자원봉사 문화 형성 △조직체계 정비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제시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전국 총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교복지지도'를 완성하고, 강성 또는 취약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취약 지역에 불교복지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불교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보경 스님은 "상대적으로 서해안 벨트 권역과 호남 권역 불교복지 기반이 미약하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설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한 보경 스님은 "올해는 재단 산하 시설 200개 돌파가 목표"라면서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교구본사 거점으로 삼아 지역별 배분 운영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보경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복지재단과 타 종교 복지시설 활동을 비교하고, "학교 ·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서 불교 복지 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접근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의료 · 교육시설서 불교복지 역량을 확대키 위해 사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평가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30개 사찰과 MOU… 스님 참여 독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누계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토대로 올해 보다 활발한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 5000명 추가 등록을 이끌어내겠단 의지다. 다만 지난해 스님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00여 명에 그쳐 '스님 1000분 모시기'에는 난항을 겪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사업결과 및 2016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4,7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는 2,500명으로 각각 누계 50,501명과 35,727명을 달성했다. 특히 생명나눔은 "2015 전국 조혈모세포 기증자 300여 명 중 50여 명의 실기증을 이끈 성과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나눔은 2015년 신설한 생명의 씨앗등, 생명나눔명가, 착한릴레이 등 브랜드형 캠페인이 누적 5만 명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생명의 씨앗등'은 각 사찰 매월 정기법회마다 9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해 12개월 동안 108명 등록을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1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고, 가족단위 장기기증 바로 알리기 운동인 '생명나눔명가' 캠페인을 통해선 총 60가족이 동참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00여 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생명나눔은 2014년부터 '스님 1000명 모시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재가자들에 비해 스님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 올해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스님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은 올해 캠페인 50회를 실시하고, 5000명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 추가 모집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특히 봉은사 · 능인선원 · 불광사 등 30개 사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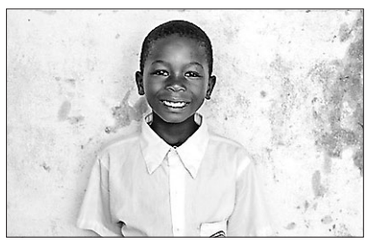
이에 대해 생명나눔은 "사찰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강원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 1000분 모시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탄자니아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름다운동행, 1:1 결연사업 동참 호소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해외아동을 후원키 위해 시민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5년 7월부터 '탄자니아 해외아동 1:1 결연사업'을 본격 실시했으며, 12월까지 총 61명 아동들이 후원자를 만났다.



탄자니아 아동이 1:1 결연사업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그동안 하루 한 끼 식사가 전부였던 아동들이 세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학비도 지원하고 있다. 탄자니아 아동들이 내일의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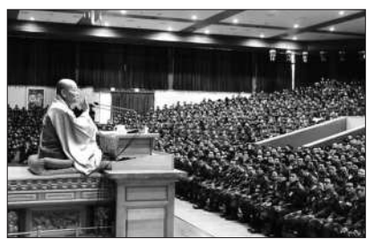
이어 아름다운동행은 "지원받는 아동 수가 늘어날수록 그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 된다. 후원금 일부는 책걸상 지원 등 아이들 교육사업, 마을 우물지원 사업 등에 이용되기 때문"이라면서 "아직도 150명 아동들이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6년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 대상 가정방문도 앞두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는 2014년 한부모 · 저소득 가정 아동들 대상 총 360여 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 도움이 필요한 220명 아동들을 선별했다. 후원금 매월 3만원, 후원계좌 301-0118-2190-11 농협 박아름 기자

호국연무사 병신년 첫 수계법회

1월 16일, 3700여 장병 참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정우 스님을 계사로 불기2560년 병신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 참석한 훈련장병 3700여 명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장병들에게 오계를 설하고 있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이날 정우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된다"며 "군 불자로서 긍지를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법회에는 각원 허현구 공군본부 군종실장 등 군승 7명과 충남 포교사단 포교사 15명이 동참했다. 한편 호국연무사는 군불교 내 최대 전법도량이다. 지난해 전군 수계장병 11만6020명 중 호국연무사에서 계를 받은 장병만 5만6483명으로 약 48%에 달한다.

윤호섭 기자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성황리 폐막

고학년 이재원 군
저학년 김고은 양 대상

영어로 부처님 본생담을 공부,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불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9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성료됐다. 대회에서는 이재원 군과 김고은 양이 각각 고학년 · 저학년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무대행 송묵)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가 주관하는 제9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 25개팀 28명 중 15개팀 17명이 출전해 그간 영어로 갈고닦은 부처님 전생을 묘사한 설화인 본생담을 풀어냈다. 참가자들은 △바람사슴과 꿀풀(The Wind-Deer and the Honey-Grass) △반얀나무의 탄생(The Birth of a Banyan Tree) △메추라기왕과 사냥꾼(The Quail King and the Hunter) △선반나무(The Whatnot Tree) △겁쟁이 토끼(The Foolish, Timid Rabbit) 등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부처님 본생담을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대회 결과 고학년부에서는 이재원(초6) 군이, 저학년부에서는 김고은(초4) 양이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 본생담과 관련 이야기들은 전래동화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대장경을 암송해 오늘에 전해준 스님들처럼 자타카 암송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은 인류의 문화원형을 새롭게 배우고 전하는 주인공이기도 하다"면서 "더욱이 자타카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것은 불교발전은 물론이고 불교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3월 5일 개강, 총 3개월 과정

조계종 신도교육제도 안착과 지도인력군 구축을 위한 종단 신도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간 2016 신도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불교교리 및 소양(6강) △포교실천 역량(6강) △신행 · 교육 역량(6강) △조직실천지도 역량(6강)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매주 2강씩 진행된다. 교육방식은 '조계종 디지털대학' 온라인과정 및 수강자 연수를 병행한다. 교육대상은 △전문포교사 3년 이상 △일반포교사 10년 이상 포교사단 추천자 △부동품계 품수 20년 이상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 추천자 △선혜품계 품수자 중 재교육 희망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우편 또는 내방 접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5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서 · 추천서 · 신행활동 경력확인서 · 포교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2월 25일 발표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선혜품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 인도의 교육방법
인 인명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컨트롤 타워

◆ 모집인원 : 20명

◆ 대 상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학 비 : 연 100만원

◆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 강사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外
특강강사

◆ 교육과정
전문과정 : 2년
연구과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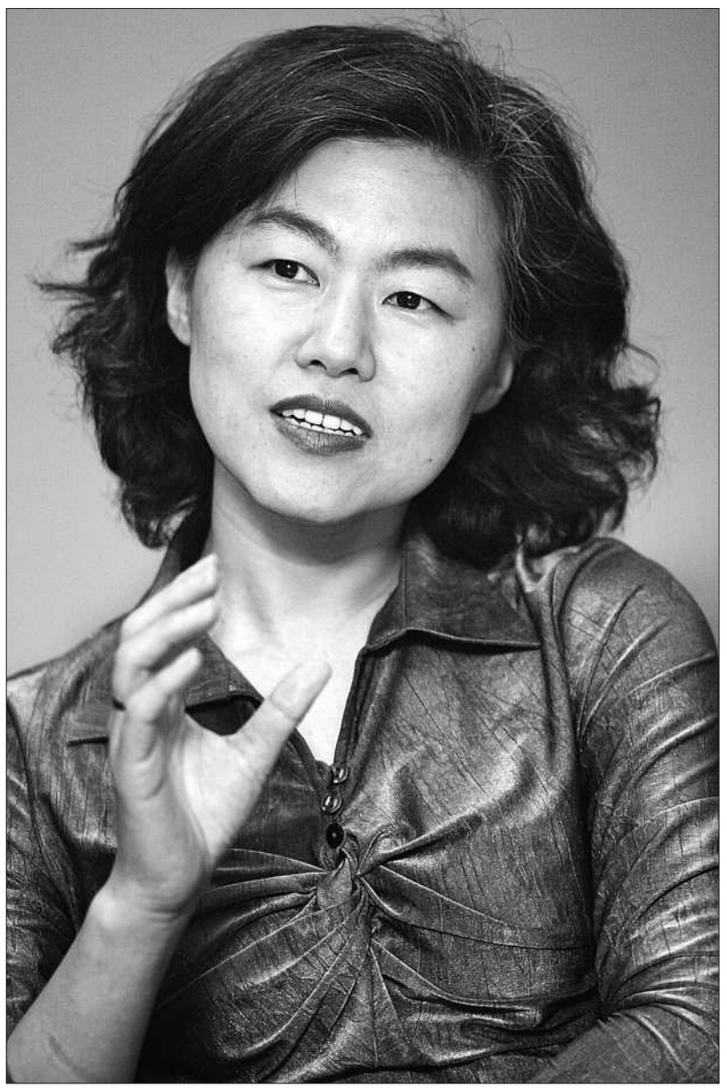
경전 읽기 모임… 새로운 신행 주체자

불교평론 1월 열린논단

이미령 칼럼니스트

초기불교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다. 그렇기에 불자라면 누구나 초기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경전 읽기 모임이 최근에는 새로운 신행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신행모임이 활성화 된 이유가 뭘까? 이미령 칼럼니스트는 1월 21일 개최된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경전번역과 신행의 지형변화'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경전 읽기 모임을 "신행의 주체자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미령 칼럼니스트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YTN라디오와 BBS불교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경전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붓다 한 말씀〉,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공저) 등이 있다.

니까야 독송회 7년 결사

2006년 12월 7일자 인터넷판 한국일보는 "초기불교 경전 전부를 부처님이 쓰던 팔리어(고대 인도 언어) 원전에서 바로 옮긴 한글본으로 7년간 읽고 공부하는 '신행 결사' (信行 結社)가 7일 시작됐다. 불교교육단체 동산반야회는 '한글 니까야 독송회' 를 결성,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동산불교회관 법당에서 〈니까야〉를 설명하는 첫 자리를 가졌다"는 기사를 냈다.

지금은 각지에서 초기경전 읽기 모임이 많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일반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신선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에도 오랫동안 큰 사찰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노보살님들로부터 "니까야,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이 당시 불교계의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모임에 동참한 50여 명의 대중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이 담긴 경전이 〈니까야〉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둘째, 그동안 이런저런 신행단체에서 여러 경전들을 읽어왔지만 늘 뭔가 막연한 느낌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기경전인 〈니까야〉의 한글번역본을 읽어나가면 그 어떤 매개자도 필요 없이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렷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는 것이다. 우리글로 번역된 초기경전 읽기모임은 이런 설렘을 안고 출범했다.

하지만 초기경전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생각하고 니까야 읽기 모임을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질리고 지겨워서 그만두기 십상이다. 애초 동산반야회에서 시작한 니까야 읽기 모임 7년 결사는 50명이 넘는 인원으로 출범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

무엇보다도 상윳타 니까야를 완독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모했다. 똑같은 구절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그게 퍽 지루했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돋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경전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루하고 지쳐서 그만두는 사태를 바라보다가 형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그건 바로 '그날 읽을 경전들에 담긴 배경을 설명하고, 각 경전마다의 주제나 중요한 단어를 간략하고 명쾌하게 먼저 짚어준다' 는 것이었다. 그러자 줄어들던 숫자가 멈추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20명 남짓한 사람들은 결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완독' 에 의미를 두지 않고 '경전 내용 이해' 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자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했다. 배경을 들려주고 맥락을 짚어주면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니까야의 구절들을 만나도 그 지루함과 피로감을 넘을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했다. 설명에 상식과 흥미를 담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니까야 독송 7년 결사는 2013년 12월 19일 회향했다. 사람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니까야 읽기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번역경전 읽기 모임의 효과

몇몇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힘주어 말하는 대목들을 살펴보았다. 임희근 씨(상도선원 니까야 합송회)의 경우 '현실성' 을 강조했다. 우리글로 번역된 초기경전을 읽으면서 안개 속에 부옇게 가려져 있던 것이 또렷하고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이다. 수많은 불자들에게 불교란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불교의 메시지가 워낙 크고 깊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불자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목소리로 불교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불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역사성'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니까야 독송 7년 결사 시작
완독보다 경전 내용 이해에 주력
"다함께 낭송… 삶과 수행 不二"

변택주 씨(붓다로살자 연구원)의 경우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된 경전을 '합송할 경우의 효과' 를 강조했다. 우리말의 장점은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고스란히 구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로 천천히 합송하는 그 자체만으로 경전 속 가르침을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효과까지 낼 수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전 관련 모임이 누군가 한 사람의 강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방향으로 필히 이어지는 것은 수행이 삶 속에서 그래도 펼쳐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태롭겠는가. 하지만 초기경전은 질문이 정확하고 그에 대한 붓다의 대답도 명확하다. 실존했던 인물들과의 문답 속에서 이뤄지는 진리추구의 길은 재가불자들에게도 확고한 믿음을 안겨주었던 것이리라.

조성애 씨(초기불전공부모임)는 '역사성' 이란 말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초기경전을 공부하면서 성지순례를 떠나보니 우리가 우러르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진짜로 이곳' 에서 펼쳐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기반 위에서 대승의 가르침도 무난하게 소화가 되었다는 그의 말에서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가진 경전 독송이 공동체 안에서 꾸려질 때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될까? 무엇보다 한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독송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문 경전은 어렵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한문' 이라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인 경과 논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문이라는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똑 부러지는 해석을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중역 경전을 공부하는 경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보다는 '한문' 을 공부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에서 우리글로 직역된 경전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글자(문자)풀이보다는 내용 파악에 주력하게 되었다. 또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쉬워졌다. 주석서 등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실재한 인물들과의 문답을 통해 붓다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자들에게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회상(會上)에 동참했다는 뿌듯함을 안겨준다. 그 뿌듯함은 신심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그 어려운 경과 논을 먼저 공부한 스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직접 부처님 회상에 참여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독송하게 된 것이다.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아무래도 변형되기 십상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기보다는 전달자의 취향과 근기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한글로 번역된 경전을 접하면서 재가불자들은 그 어떤 중간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도 부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가자는 전문수행가인 스님과 동등하게 불제자로서 신행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늘 절대적 존재(관세음보살 등)의 구원 대상으로서, 전문적 수행자(스님)에 비해 한참 낮은 차원의 후원자로서 존재하던 불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합송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글로 번역된 경전 읽기 모임은 단순히 경전공부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초기경전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행법을 익히면서 실제로 명상과 참선 수행으로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뿐만 아니라 한글번역경전이 유통되면서 불교계 안에만 갇혀 있던 부처님 가르침이 일반대중 속으로 파고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짚어보고 싶다. 초기경전 니까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 돈, 부부, 사랑, 자연과 생태, 음식, 외도, 대화법, 심리치료 등 이런 주제들을 해당분야의 불자전문가가 다룰 경우, 붓다 가르침의 사회파급력은 매우 크다. 실제로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 윤성식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다뤄지고 있는 '돈' 에 관한 책을 냈다. 그의 책 〈부처님의 부자수업〉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 경제일간지가 앞 다퉈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 수행가인 스님이 아닌, 실물경제에 밝고, 세계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에 근거하여 거론한다는 것이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경전을 공부하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그와 내가 함께 쓴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도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와 인천일보,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관심을 보였는데, 재가여성불자의 이야기를 여성학전공자와 여성칼럼리스트가 썼다는 사실이 호기심을 유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초기경전의 내용을 파악하느라 급급한 시점이지만, 우리글로 번역된 초기경전을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만났을 때 이 시대 난제의 해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 또한 사회각 분야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에 대해서 불교적 이론정립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금강경〉과 〈화엄경〉의 사상만으로는 속 시원하고 명쾌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초기경전 공부를 통해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 입각하여 이론을 세우고 제시한다면 불교의 대(對)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글 번역경전 읽기 모임은 개인에게는 경을 합송하며 개인의 종교적 심성을 키우고, 현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알차게 불자로서의 삶을 가꿔가게 해준다. 나아가 이런 개인불자들이 만나 경전읽기 모임을 이끌면 재가불자들이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회상에 나아가게 된다. 재가불자의 주체적 신행생활은 불교가 시대에 발맞추고 시대의 난관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희망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분한신고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가 종도 여러분의 사내에 항상 충만하옵기를 기원합니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기간 내 분한신고를 못할 경우 (재)일붕선교종 승려로써 자격이 정지 또는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외적으로 해당스님(법사)에 대하여 (재)일붕선교종 소속 성직자로써 어떠한 확인도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분한신고는 일붕선교종 소속 사찰의 주지스님은 물론 모든 승려들이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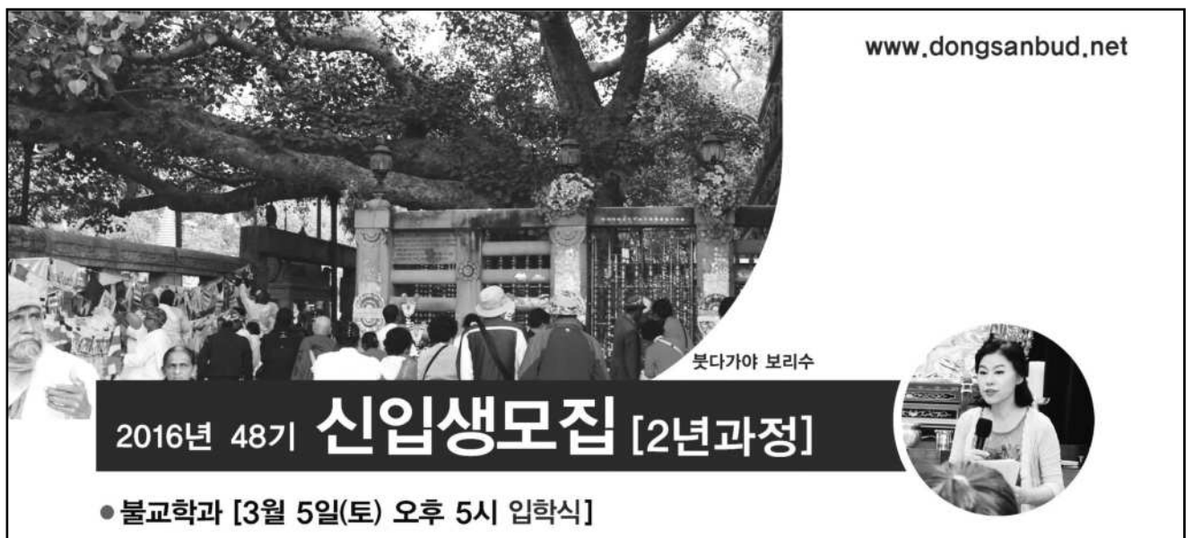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심사하여 선별구제하고자 합니다.(멸빈은 제외)
■ 분담금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도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2월 1일 ~ 2016년 3월 30일
② 대상승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일붕선교종 승적보유자
(제적, 탈종된자, 본 종단에 입종하기를 원하는 모든승려, 법사포함)
③ 접수장소 : (재)일붕선교종 총무원 사무실
④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총무원 전화 02)991-8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2016년 48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3월 5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아함경 1) ② 불교문화와 포교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아함경 2) ⑤ 반야심경 ⑥ 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2년차	과목	⑦ 인도불교 ⑧ 중국 · 한국불교 ⑨ 법화경 ⑩ 화엄경 ⑪ 정토경 ⑫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경집교수, 문무왕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박종교수, 정성준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1월 1일부터 ~ ■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원효염불) [3월 10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8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10일(목)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동국대, 인성교육 중심으로 발돋움

경주캠 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 발대식 및 연구 발표회

올해 인성체험파크 설립 목표

동국대가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원장 박상진)은 1월 15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 인성체험콘텐츠 분야별 연구발표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상길 자문위원을 비롯해 교육부문 정찬목 선임연구원, 영상미디어부문 박영수 선임연구원, 캐릭터디자인부문 김재신 선임연구원, 설계디자인부문 김기현 선임연구원, 예체능부문 이준희 선임연구원, 한국음악부문 김은실 선임연구원, 교재기획부문 박선영 선임연구원, 체험장비부문 서경일 선임연구원 등 모두 9명의 선임연구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연구 발표에서는 인성체험 테마파크의 설립 배경과 목적, 기존 테마파크 운영 실태, 세부 운영 방안과 전망, 첨단 영상기법 도입, 체육활동의 중요성, 전통놀이를 활용한 교육모델 등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은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정부 교육에 발맞추어 우리의 역사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예체능을 결합한 놀이교육이 시도되는 새로운 개념의 인성체험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말에는 정부 관계자와 일선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내 인성체험테마파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은 인성체험테마파크의 설립 방향을 설정하고 테마파크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가 한국국악교육원, 아이템플 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발족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은 1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천태불교학술대회 11월 5일 열린다

천태불교문화硏, 15일 총회… 신년 계획 확정

천태종 불교학 연구기관인 천태불교문화원의 올해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도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권기종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정병조 前 금강대학교 총장,연구위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 교무부장 경혜 · 교육부장 장호 · 재무부장 월중, 고우익 천태종 前 승가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총회에서는 △2016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 △〈천태학연구〉19집 발간 △금강불교대학 교육교재 연구기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 올해 천태불교학술대회는 오는 11월 5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다. 또한 법화삼대부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을 발간하고, 금강불교대학 교육교재 연구는 금불대 공통교과 2과목을 전년도에 이어 개발하기로 결의했다.

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종단 및 한국불교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안정을 목표로 더욱 심도 깊은 학술연구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불교가 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가야불교 전래지 아유타, 허구 아니다"

황정일 교수, 16일 가야문화 학술세미나서 주장

삼국시대 여러 국가들의 연맹 왕국이었던 가야(伽倻)는 존재만 알려졌을 뿐 한국 역사에서 가지는 위치는 크지 않다. 이는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야 문화의 원형을 되짚어 보기 위한 학술대회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1월 16일 김해 가야대 국제회의실에서 '가야문화 원형의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불교계 사부대중과 허남식 前 부산시장, 김해시 민홍철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정일 동국대 강의교수가 가야불교 전래 지역으로 알려진 인도 아유타 지역에 대해 한역 경전 음역어를 바탕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가야불교가 인도 아유타 지역에서 허황옥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은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논란 중에 있다.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들어왔다는 북방불교 전래설을 비롯해 이와 상반되는 해상루트를 통해 전해졌다는 남방불교 전래설이 맞서기 때문이다.

전래지인 인도 아유타에 대해서도 △북인도 아유타로 보는 입장 △아유타 지명을 〈라마야나〉 신화에 근간을 둔 허구라는 입장 △남인도 아유디야 꾸빰 혹은 일부 지역일 것이라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황 교수는 기존의 학설에 기반해 아유타(阿踰陀)에 대한 초기경전 내 음역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아유타는 적어도

아유타 관련 음역어 10개 분석

이미 〈잡아함경〉서 음역어 발견

"아유타, 초기불전에 실재한 도시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 신봉지역"

10개의 음역어를 갖고 있으며, 한자 표기는 14개가 된다. 음역어를 추적한 결과는 흥미롭다.

초기경전인 〈잡아함경〉에 이미 아유타의 음역어인 '아비사'와 '아비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아유타의 개명 전 나라명인 '사께따'의 음역어인 '사기'와 '파기'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아유타와 사께따가 공존했다는 증거로 사께따가 〈라마야나〉에 의해 아유타가 됐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김해 여여정사는 1월 16일 김해 가야대 국제회의실에서 '가야문화 원형의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현의 〈고승법현전〉 이전에는 아유타라는 지명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전에 역경된 〈불설수말소표경〉에 아유타의 음역인 아영사가 등장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는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가야불교 전래지인 아유타는 초기불전에 실재하는 도시로 나올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불교신봉지역임은 틀림없다"면서 "가야불교가 인도 아유타로부터 전래됐다는 설은 그 과정의 맥락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허구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불교의 가야전래에 대한 일연(스님)의 인식과 가야불교의 성격', 한지연 금강대 교수의 '기원 1~3세기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파의 가능성', 이근우 부경대 교수의 '가야시대 부산지역 불교에 대한 예비적 검토' 등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 윤종갑 부산대 교수, 서영교 중원대 교수, 정효운 동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간화선은 초기 선종을 왜곡시켰나

박건주 소장, 간화선 비판 〈선종사상…〉 발간

"본래 달마선에서 출발한 선불교는 후대로 가면서 본래의 정통선에서 한참 벗어나 급기야는 선어록을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경전공부는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아가 간화선에서는 짤막한 어록 내지 공안 가운데 화두라는 단어 하나에만 묶이게 했다."

간화선의 모태인 남종선(南宗禪)이 선종 초조 달마대사가 주창한 교선일치의 근간을 허물고 왜곡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건주 능가선연구소장(전남대 강사)은 최근 발간한 저서 〈선종사상 왜곡의 역사와 간화선〉을 통해 간화선의 탄생과 왜곡의 역사를 비판했다.

박 소장의 저서에 따르면 육조혜능 문하에서 나온 남종선은 자신들이 달마선 이래 돈법(頓法)을 계승했지만, 북종선은 이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고, 북종선의 신수 스님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인물로까지 묘사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간화선이 교선일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불교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대혜종고에 의해 만들어진 간화선은 화두를 깨달으면 불조의 깨달음을 뛰어넘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화두만 깨우치면 만사가 이뤄지는 것이 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기본 수증(修證)의 길도 퇴각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혜종고 이래 간화선가에서는 묵조선을 사선(邪禪)으로 비난해왔지만, 실은 오히려 묵조선이 초기 선종의 선법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었다"면서 "간화선이 선종의 주류가 됨으로부터 마치 덧니가 커져서 본 자리를 차지하고 주변 치아를 망가뜨리는 일이 후대에 이어졌다. 그런 잘못된 현상이 가장 심하게 전개돼 온 곳이 한국불교"라고 비판했다.



선종 위조과정서 간화선 탄생

'교선일치' 초기 전통 무너져

"韓불교 곡해된 인식 벗어나야"

이와 함께 박 소장은 고려 이후 간화선풍이 정착하게 된 것을 정교유착의 형태로 보았다. 고려 무신정권은 교종의 저항에 직면하자 진각국사 혜심 스님을 필두로 한 선종을 후원했고, 간화선이 성행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혜심 스님은 스승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저서 〈절요사기〉, 〈간화결의론〉을 조작함으로서 간화선이 최상승인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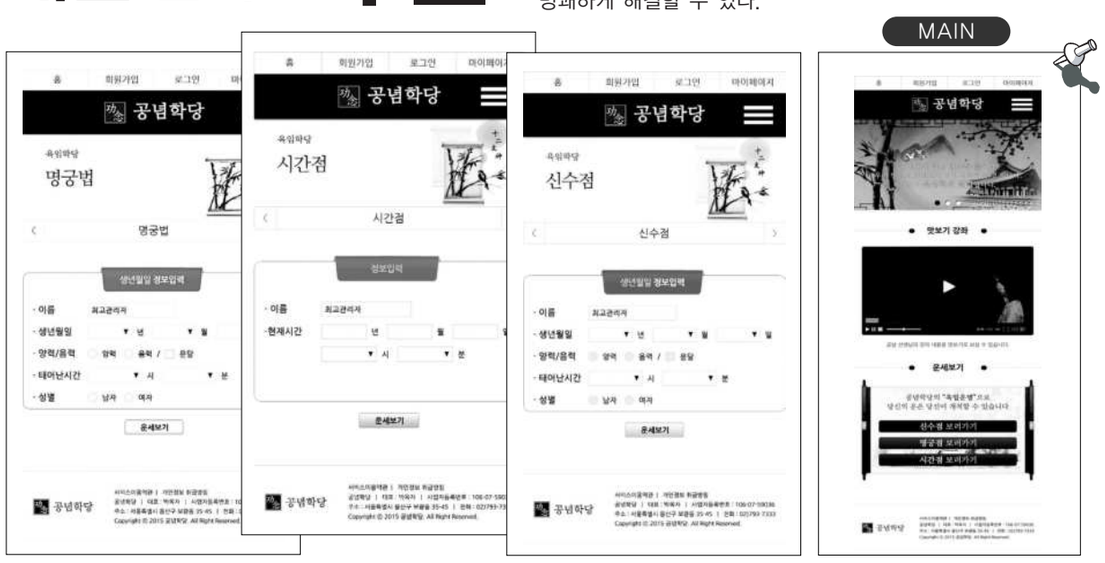
박 소장은 "진각 혜심의 위조는 무신정권의 주도 하에서 펼쳐진 것이고, 혜심은 그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후 수선사의 사주(社主) 계승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수선사는 무신정권 기간동안 계속된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조작과 위조에 대중이 속아 넘어간 것은 선종사와 대승의 교의에 대한 기본적 식견이 없었던 까닭"이라며 "이 글을 통해 이제 선종사 내지 불교사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됐는지를 올바로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서예가 남청의 작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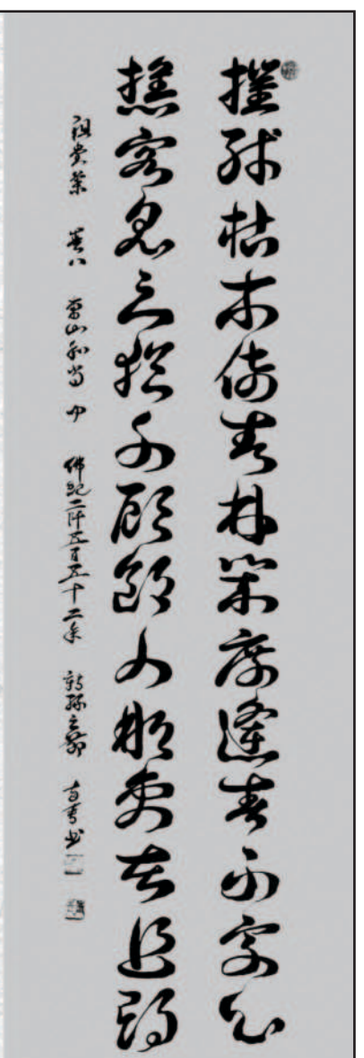
오픈닝 행사
01.30(토) 14:00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1차 전시
01.30(토) ~ 02.01(월) 09:00~21:00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2차 전시
02.02(화) ~ 02.05(금) 09:00~19:00
김해 신흥사

문의 남청 임성순 작가 HP.010-3856-9852

서 예 가 남 청 임 성 순 선 서 화 개 인 전 2 0 1 6
1월 30일(토) ~ 2월 05일(금) 7일간



명상 포교로 군포교 새 지평 연다

함안 안국사, '마음의 항체' 프로그램 화제

군대에 입대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얻는 것은 무엇일까? 제대 후 대부분 그들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새롭게 정리했다고 한다.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 방황하며 자신 만의 세계관을 성립 혹은 고찰하는 시기인 그들을 위해 함안 안국사(군법사 신영)가 새로운 강의를 연다.

2016년 일년 동안 매월 4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이 강의의 제목은 '마음의 항체'다.

'마음의 항체'는 일반적인 불교명상과는 다르다. 철뇌과학을 바탕으로 긍정심리학, 긍정조직행동을 일상적 언어로 풀어 생활 가운데 적용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상생활 가운데 긍정 언어로 하루 일과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혹은 점심시간 전에 잠시 주의집중명상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군장병 뿐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해 불자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열린다.

강의를 위해서 김권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휴먼경영전략연구소 대표로도 활동 중인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연구 및 진행한 강연을 모은 노하우를 처음으로 군장병을 위해 펼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연은 불교의 색깔을 지니기 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답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하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 실험의 결과들이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의의 방향을 설명했다.

매달 4째주 일요일 정기 진행
뇌과학 통한 긍정심리학 강의
생활 필요한 내용으로 접근해
명상협동조합 개설 실참 수행

강의 시간 진행은 1차 뇌교육을 통해 주의력, 전두엽훈련, 뇌체조, 뇌균형 훈련, 명상 등으로 구성되며 2차 월별 주제 강연과 소감 나누기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주의력이 만드는 세상(주의와 습관) △가치와 의미의 훈련 △북극성이 있는 삶 △세상을 보는 창, 자기 이해 △강점과 몰입 △자아존중감이 출발선 △인생의 안전망, 정서의 조절


안국사 장병과 지역 시민들이 명상 실참을 하고 있다.

△생각의 법칙, 마인드 셋 △긍정과 삶의 확장 △역경의 극복양식, 회복력 △두려움과 취약함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 △관계의 전략이다.

강의 가운데 특히 '인생의 안전망, 정서의 조절'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풀이한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감정에 의해 무력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며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김 교수는 "뇌의 신경네트워크를 보면 이성보다는 감정의 영향력이 3배나 크게 연결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감정 및 정서를 담당하는 변연계의 편도체를 조절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며 전전두엽은 명상과 주의 집중과 같은 활동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 가운데 '감정과 몰입'에 대한 시간은 자기 자신이 가진 단점 보다는 강점과 장점을 확인하고 활용할 경우 얻는 이익에 대해서 강조 한다.

안국사 신영 군법사는 "강의를 통해 명상과 마음 훈련의 필요성을 일반인과 장병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앞으로 명상협동조합을 설립해 명상전문가를 모셔 실참을 위한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지관 스님 유훈 실천위해 노력할 것"

해인사, 18일 지관 스님 열반 4주기 추모다례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지관대종사 열반4주기 추모다례재를 1월 18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방장 원각 스님 헌화로 시작된 추모재는 헌향, 헌화, 지관 스님 생전육성법어, 행장소개, 문도대표 세민 스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문도 대표 세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의 꽃을 피우신 은사 스님의 열반4주기 다례재를 고향 해인사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대불사와 은사님의 사리탑 비 건립불사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저희 문도들은 은사님의 수행정신과 덕화를 이어가기위해 부단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지관대종사 열반4주기 추모다례재를 1월 18일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가산당 지관대종사는 1932년 5월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1953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꼽히는 지관대종사는 〈치문경훈주해〉 〈가산불교대사림〉 등 수많은 저술과 경력을 남기는 등 선교율(禪敎律)을 두루 갖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념 수행하면 정각 이루리라"

대원불교조계종, 12일 신년 하례법회 봉행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불기2560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청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참나를 깨닫는 참선수행은 천하의 보물과도 바꿀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며 "세월은 빛이나 뇌성과 같이 빠르니 잠깐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일념으로 수행해 정각을 이루리라"고 설했다.

이어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는 깊이 인연이 아니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흔신의 정력을 다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회장 무공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깨달음의 도량에서 수행 하며 언제나 이웃과 함께 정진해 달라"고 말했으며, 호법원장 원명 스님은 발원문에서 "나날이 밝은 마음으로 승가공동체를 이루고 창의로운 지혜로 사회발전에 공헌해 달라"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청봉 스님, 원로원장 무공 스님, 승정원장 원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덕오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불기2560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삼세여래 부처님 환희로 나투다

쌍계사, 후불탱 점안법회

하동 쌍계사(방장 고산) 대웅전에 삼세여래후불탱화로 법당을 장엄하는 점안법회가 1월 18일 봉행됐다.

쌍계사 대웅전삼세불탱은 보물 제1364호로 지정 돼 현재 쌍계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그 자리를 대신해 모사본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색이 바래고 모양도 비틀어져 대웅전의 장엄미를 저해해 쌍계사는 2013년 11월부터 탱화 불사를 진행했다.

방장 고산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前 종회의장 지하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전통 사찰의 격에 맞는 탱화로써 대웅전을 장엄하고 이를 통해 찾는 이들에게 신심을 고취할 수 있는 불사여서 뜻이 깊다"며 "앞으로도 대웅전에 어울리는 탱화 불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책임감있는 수행자가 되어달라"

운문사, 19일 한문불전대학원 · 승가대학 졸업식

국내 최대의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운문사는 1월 19일 한문불전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식을 경내 대웅보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광 스님, 학장 일진 스님과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이승율 청도군수 등 400명이 참석했다.

올해 운문사는 한문불전대학원생 6명과 운문사승가대학생 52명을 배출했다. 졸업식에서는 한문불전대학원 보경 스님과 승가대학 졸업생 덕현 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장상을, 보견 스님이 제9교구장상을, 혜능 스님과 도안 스님이 학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회주 명성 스님은 졸업식 훈사를 통해 "유서 깊은 도량에서 수억 년이 흐르는 시간과 무한한 넓이를 가진 공간에서 우리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청도 운문사는 1월 19일 한문불전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식을 경내 대웅보전에서 개최했다.

불타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을 마음의 양식으로 흡수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졸업하는 스님들은 모든 일에 신심과 성실로 임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매사에 근면해야 할 것을 충고 드리며 책임감 있고 실천하는 수행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치사를 통해 "여러 스님들은 이제 정들었던 운문사승가대학을 떠나 제방에서 정진하는 납자로서 경전을 연구하는 강사로서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로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등 각자의 수행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아름답고 늘 향기가 나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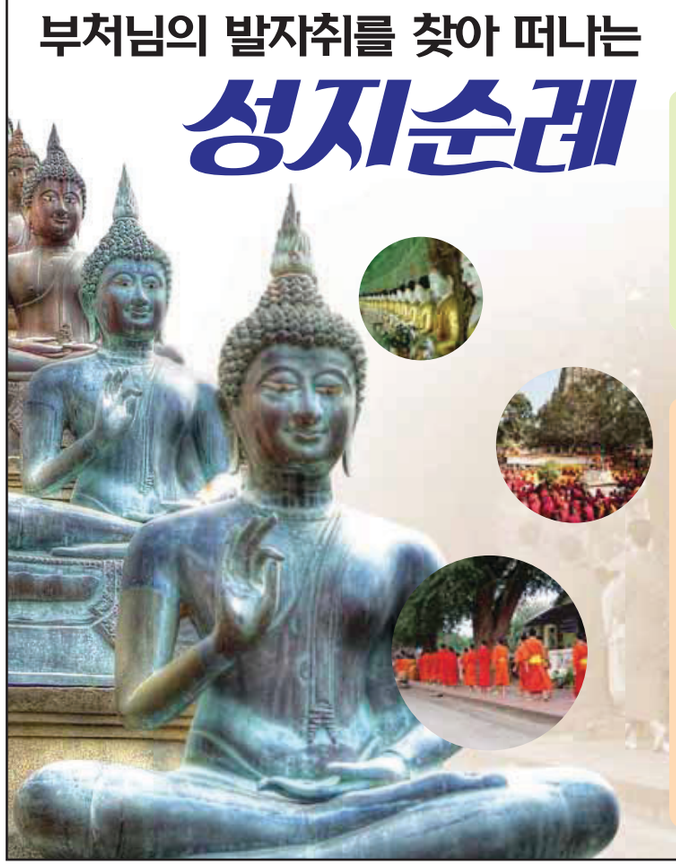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진 대중생활 속에 정진은 수행자로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백산장학재단, 청소년 장학금 전달

총 35명에 2950만원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청소년 3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14일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당에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신년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차복순 명창의 국악공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초전법륜경 봉독, 신년하례, 장학증서 수여, 법어, 발원문 낭독, 식후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단암사 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내외,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재단은 동국대부속 금산고 1학년 정양희 학생 등 고등학생 11명과 고려대학교 1학년 김소은 학생 등 대학생 24명 총 35명에게 2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래하는 청년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들은 앞서 1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영 스님은 법어에서 "늘 지역인재 불사에 대한 원을 세우고 출가 50년, 세납 70세를 맞는 2010년 백산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며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불자들 기도발길 이어져

미륵대재 · 700일 지장기도

우리나라 3대 지장성지로 알려진 전북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에 새해벽두부터 불자들의 기도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산내암자인 도솔암(감원 도완)은 1월 16일과 17일 각각 700일 지장기도 회향 및 800일 기도 입재법회와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경우 스님과 불학승가대학 학인 스님 등 대중스님, 불자 200여 명은 성도재일을 맞아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철야정진을 마치고 7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위〉

불학승가대학장 재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회향은 산스크리트어로 방향을 전환한다, 멈춘다, 완성한다, 증장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나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700일 기도를 회향한 대중들은 800일을 향해 기도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도솔암(감원 도완) 16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솔암 마애불 앞 특설법당에서 철야기도 정진에 동참한 100여 명의 불자들과 새해 첫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미륵대재에서 불자들은 병신년 새해 저마다의 소원을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燈으로 밝힌 내 마음, 연등회서 만나요"

광주불교聯, 일반인 위한 전통등 강습회

21~23일 연등회보존위 지원 받아
법륜·달마등, 캐릭터 라바등 눈길
연희단 율동 즐기며 분위기 돋워
"불교전통문화 활성화 계기 되길"


첫날 작업에서 참가자들이 복주머니등 골조를 제작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통한지에 물감을 들인 전통등(燈)의 아름다움은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불교계에서 이어온 전통등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1~2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서울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6빛고을관등회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 참여한 50여 명은 전영일 공방작가 등 6명의 전문가 지도 아래 4개의 장엄등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들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 만들기에 몰두했다. 첫 날은 등의 골조를 만들었다. 생소한 장비를 다루거나 철사를 구부리고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통해 차츰차츰 등의 윤곽을 잡았다. 이후 등에서 빛을 발하는 전기장치를 넣어주는 작업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첫날 만든 골조에 한지를 붙이는 배접을 실시했다. 배접은 골조의 각 마디마다 잘게 나누어 붙이는 과정으로 배접이 끝나야 비로소 제대로 된 등의 형태가 나온다.

셋째 날에는 배접을 마친 등에 색을 입혔다. 채색은 한지에 물을 들이듯이 한국화 물감을 입혔다. 참가자들은 한지 위로 연하게 번지는 물감을 바라보며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작업 중간에는 봉축행사에 참여할 연희단의 율동을 다함께 즐기며 흥을 돋웠다.

3일간의 작업을 통해 불교의 상징인 법륜등과 달마등, 복주머니등이 참가자들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등으로 재현한 라바등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 전통등기획단장 혜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원(願)을 세워서 장엄들을 만드는 과정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며 "오랜 기간 전승돼 온 불교전통문화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전통등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통등강습회를 계기로 등 만들기 전문팀을 구성하고, 사찰별 행진등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도 쌍계사, 유화물감 벽화 대거 발견

총 19점 중 일부는 훼손, 수분 침투 없어 보존성 높아


진도 쌍계사가 대웅전 복원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벽화 중 일부.

최근 진도 쌍계사 대웅전에서 서양화 주재료인 유화물감으로 그린 벽화가 대거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통 전통탱화는 천연안료를 사용해 색을 입히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까지도 전통안료 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한 탱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진도 천년고찰 쌍계사(주지 법오)는 1677년 조성된 대웅전을 지난해 8월 해체복원 작업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해당 벽화를 발견했다. 이에 적외선 카메라 등 과학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벽화에는 천연안료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불화와 달리 서양화에 주로 사용하는 유화물감이 발견됐다. 벽화에 쓰인 안료를 일부 채취해 성분 분석한 결과 19세기 서양유화물감에서 주로 쓰인 아연, 크롬, 바륨 등이 발견돼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20세기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벽화는 섬세한 밑그림에 화려한 색으로 표현하는 탱화와 달리 굵은 붓터치가 돋보인다. 붉게 회벽칠로 가려져 있던 벽체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벽화는 총 19점으로 일부는 훼손됐지만 유화물감을 재료로 해 수분이 침투하지 않아 대부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주지 법오 스님은 이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서구에서 수입된 고가의 안료는 경성에서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진도에 수입 안료로 불화를 그렸다는 것은 당시 유력인사의 후원이 있었거나 서양미술을 공부한 초창기 1세대 화가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 안료와 기법으로 그린 벽화불화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 관련기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불교신행단체협, 새해 전법 다짐

남원지역 9개 신행단체로 구성된 남원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윤평호)가 1월 1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불교발전과 새해 전법을 다짐하는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윤평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심을 모아 새해에는 새롭게 전법을 펼쳐나가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시린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위를 보살피는 한 해를 보내자"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정찬 불자가 조계종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반영자 불자가 태고종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정순희 불자와 양경환 불자는 조계종17교구장상, 박명규 불자는 남원사암연합회장상, 강석훈 포교사는 포교사단장을 수상했다.

초청법사로 등단한 암도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육바라밀의 덕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수행에 있어 참을성은 기본 중의 기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㉝ 인삼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손오공



그림 · 최주현

보살의 시험을 거치고 다시 출발한 길, 언제나 부처님 계신 영취산에 도달할까? 고개를 돌리면 바로 거기인 것을 어찌 수만리 먼 길을 헤매이는고? 꿈속에 십만 리 청산을 헤맸지만 머리맡을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아! 고개 돌리기 정말 힘들어라. 그래도 가야할 꿈속의 길, 험한 고비도 많고 요괴도 많지만 참으로 기이한 경치, 마음을 씻어내는 경개도 많다. 그 가운데 참으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 이름도 좋아라, 만수산(萬壽山)이라네. 훌륭한 곳 길지(吉地)에는 당연히 절이 있지, 이곳에도 도관(道觀)이 있네, 이름하여 오장관(五庄觀). 그곳의 주인은 이름 높은 신선 진원자(鎭元子), 별명은 여세동군(與世同軍)이라네.

그 도관엔 천지간에 오직 이곳에만 있는 명물이 있네. 혼돈(混沌)이 처음 나뉘었을 때부터 뿌리를 내린 신비한 나무, 초환단(草還丹) 또는 인삼과(人參果)라고 불리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 인삼과로 말하면 삼천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삼천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며, 삼천년이 지나야 열매가 익고, 만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이만 년에 서른 개의 열매만 열린다네. 모양은 사흘도 안 된 어린아이 모양인데 냄새만 맡아도 삼백육십 년을 살 수 있고 하나 먹으면 사만 칠천 년을 살수 있다네.

마침 진원대선께선 원시천존의 부탁으로 상청천에 올라가 혼원(混元)의 가르침을 베푸는 일정이 잡혀있어 청풍, 명월 두 제자만 남기고 모든 제자 이끌고 가시면서 두 제자한테 신신당부한다.

"전생부터 인연 있던 당나라의 성승이 방문할 테니, 인삼과 두 개만 따서 대접해 드리고 있거라." 두 제자 신선의 당부 받들어 현장법사 일행 극진히 맞아 대접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삼과를 따서 현장법사에게 올리니 현장법사 기겁을 한다.

"아무리 인심이 험악하게 변했다 하더라도 어찌 사흘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먹으려 한단 말이요!" 아무리 귀하디귀한 열매라 하지만 철통같은 현장법사 고집, 속인의 눈에는 선과가 보이지 않는구나!

청풍, 명월 두 제자 탄식하고 '이참에 귀한 과일 우리나 먹자!' 그렇게 수군거리며 먹는 것을 먹을 것 밝히는 저팔계가 들었네. 참을 수가 있나, 살그머니 손오공을 부추긴다.

"형님 형님! 이러쿵 저러쿵~이 도관에 신비한 과일 있다니 우리도 하나씩 맛봅시다."

원래 원숭이가 과일 마다하는 법 있던가? 이 과일 따기가 보통 까다롭고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것은 법을 몰라 땅으로 떨어져 들어가지만 재주 좋은 손오공 지신(地神)을 불러 따는 법 알아내곤 세 개를 몰래 따서 사이좋게 냠냠~

욕심 많은 저팔계, 좀 더 먹겠다고 투덜거리는 바람에 들통이 나고 결국 한바탕 시비가 붙는다.

수양이 좀 얕은 청풍과 명월 좀 과격하게 욕을 해대고 참을성 없는 손오공 심보가 거기에 부딪히니 결국 참극이 벌어지누나.

손오공 술법을 부려 가짜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살며시 뒤로 돌아가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넘어뜨리네. 아아! 마음 위의 칼을 갖지 못하고, 마디 옆에 그리고를 기억하지 못한 속된 것들의 분쟁에 천지간의 정기를 모아 열매를 맺던 귀한 나무 덧없이 쓰러졌구나!

나무 쓰러진 것을 어찌 이상한 말로 설명하느냐구? 그건 삼쾌 선생의 해설을 보셔야지!

이번 회에는 어려운 문자가 좀 많이 쓰였지요? 도교와 관계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좀 풀이도 많이 해야 하겠구요.

우선 처음 시작부터 좀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죠? 삼쾌선생이 괜히 신비한 척 하는 거 아니냐구 고개를 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물론 삼쾌 선생의 유식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점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보실 것도 아닙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슬쩍 각색한 것뿐이지요.

여행길에 아주 멋진 산천경개를 만납니다. 현장법사가 찬탄을 하지요. 부처님 계신 뇌음사(雷音寺)가 멀지 않은 것 아니냐! 손오공이 웃습니다. 아직도 멀고도 멀어요! 사오정이 묻습니다. 얼마나 먼데요? 십분의 일도 못왔어! 저팔계가 묻습니다. 몇 년이면 도착할까요? 여기에 대한 손오공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두 아우들이라면 열흘 정도? 나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갈 수 있지. 그렇지만 사부님이라면…에휴! 생각도 말아야지."

현장법사가 걱정스러워 다시 물으니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사부님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수천 번 거듭한다 하더라도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부님이 지성으로 깨달으시고 한마음으로 돌이켜 보신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 계신 영취산(靈鷲山)이겠지요."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님 계신 곳에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일까요? 부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라면, 몇 천 번의 생애라고 한다고 과연 이를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오죽하면 항하사겁(恒河沙劫)의 수행을 통해서야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선가(禪家)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요? 고개 돌려 깨달으니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로구나! 이런 식이지요. 항하사겁과 고개 돌려 깨달음, 이 둘 사이의 너무 큰 차이에 많은 불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손오공의 입을 빌어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 차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더 헷갈린다는 말씀이지요.

진원대선의 인삼과, 현장법사 거절
뒤따라간 손오공과 저팔계가 차지
다툼 속에 인삼과 나무까지 파헤쳐

일단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에 절대적 기준이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무언가에 몰두한 시간은 휘딱 가버리는 것 같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너무도 더디 가는 것 같지요?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라는 말은 알고 계시지요? 일각(一刻)은 15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15분이 삼년 같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상대성을 잘 말해주는 성어지요. 그렇게 거창한 비유를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의 느낌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지! 길다 짧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몇 십 년 살아온 그 시간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 찰나의 생각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지요. 우리는 한 평생을 몇 년을 기본단위로 생각하고 살까요? 요즈음은 백년 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00살쯤 살면 많이 오래 살았다 하지 않나요? 그런데 99세쯤 산 분한테, "그만큼 사셨으니 이제 웬만하면 돌아가시지요"한다면 어떨까요? "음, 그래. 이만큼 살았으니 남에게 폐 되기 전에 빨리 가야겠구먼"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이야기를 약간 바꿔볼까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0겁쯤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사는 거지요? 그 세계의 사람들은 너무 너무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1겁쯤 살고나서는 지겨워 죽겠다고 투정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선 90겁쯤 살고 죽는 분들이 너무 일찍 죽는다고 애통해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삼쾌선생의 생각! 하루살이가 생각이 있다면, 하루를 사람의 한 평생처럼 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구요? 오히려 더더욱 사람 헷갈리는 말만 늘어놓는 거 아니냐구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시라구요.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절대성 부여하지 마시고, 영겁을 수행해야 깨달음에 도달하느냐, 고개 돌리면 바로 거기냐,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으시다구요. 그냥 하세요. 지금 여기! 당신이 계신 이 자리에서 '위로 향하는 한 길' (向上一路) 위에 있는지만 한번 살피시라는 거지요. 현장법사 일행이 경개도 수려한 만수산(萬壽山)이라는 곳에 도착한 대목에 와 있군요. (슬그머니 이야기를 돌리는데 성공한 것인가요?) "이런들 어떠하료 저런들 어떠하료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료…"하고 읊었던 방원의 시조에 나오는 산인가요? 하하! '만년의 목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네요. 우리나라의 명승에는 언제나 절이 있지요. 중국에서는 절 아니면 도관(道觀)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도관이란 도교의 절이라고 보면 되니까 결국 명승에는 절이 있는 것이군요. 역시 만수산이라는 명승에는 절이 있고, 그 절의 이름은 오장관(五庄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교의 절이네요. 그 절에는 진원자(鎭元自), 별명은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는 신선이 계시구요. 그런데 이 신선의 이름이 비범하네요. 본원을 누른다는 진원(鎭元), 세상과 함께 하는 존귀한 분이라는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는 이름이군요. 그리고 그분이 전공하시는 분야 또한 독특합니다. 도교의 가장 존귀한 세분 가운데 한분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의 청으로, 그분이 머무시는 상청천(上淸天)에 가셔서 혼원도과(混元道果)를 강설하신다네요. 여기서 혼원(混元)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온통 함께 뒤섞여 있는, 세계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게요. 근본을 진압한다는 칭호도 그와 연관이 있을 것 같구요. 근본에서 흩어지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요. 통나무가 쪼개져 여러 가지 그릇으로 되듯이요. 그런 쪼개짐으로 나기지 않은 상태, 그 근본을 잘 지키는 도를 말하는 신선, 바로 그분이 진원자이지요. 그러기에 세상과 더불어 있는 분이기도 하구요.

그 분이 머무시는 도관, 그 절에 신비한 나무가 있어요. 이름하여 초환단(草還丹)나무, 별명으로 인삼과(人參果) 나무…. 앞에서 설명했듯이 몇만 년이 지나야 완전히 익는 인삼과라는 신비한 열매를 맺는 나무죠. 냄새만 맡아도 360년을 살고, 한 개 먹으면 47,000년을 산다는 신비한 과실 인삼과! 맛도 정말 좋겠지요?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 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단 펼치니 스무 칸 신령한 병풍이…

그 절집의 빛

②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



불단 좌우 측면에 각각 4폭씩 베푼 장면. 연결하면 8폭의 민화병풍에 손색없다. 사각형의 세계를 들고 있거나 오색의 빛이 흐르는 보주를 공양헌공하는 나찰이 인상적이고, 기단부의 두팔 뻗친 용의 자세에서 익살과 해학이 넘친다.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판타지세계
인격화 된 동식물들의 이솝우화 장면
사슴, 오리, 앵무새 등은 부처님 전생
보주를 쟁반에 담아 이고 가는 나찰



전면 12폭 중 향좌측의 4폭. 〈본생경〉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면 12폭 중 향우측의 4폭. 코끼리, 원숭이, 공작 등은 부처님 전생의 몸이다.

불단장엄의 중의적인 상징세계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러는 〈상징형식의 철학〉에서 "인간은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상징의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시러에 의하면 언어와 신화와 예술, 종교는 상징우주를 이루는 부분들이다. 나아가 인간의 모든 문화적인 행위도 바로 상징을 형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보았다. 종교장엄, 특히 불교미술은 카시러의 표현에 설득력의 무게를 실어준다.

불교의 가르침은 워낙 방대하고 심오하고 미묘해서 언어의 표현력이 도처에 미치지 못하곤 한다. 언어의 표현이 끊긴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깊이를 갖추고 있다. 심오한 철학적 세계에 감각적 의장(衣裝)을 입혀서 보이고 느낄 수 있게 가시적인 형태를 취한 것, 그것이 불교 조형미술세계다. 즉 불교미술은 본질에 상징의 옷을 입힌 현상적 구상에 가깝다. 그런데 상징은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의적(重義的)이며 다의적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관용력을 품고 있다. 예컨대 불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 조형은 신령한 우주적 기운일 수도 있고, 도량을 수호하는 벽사의 표현일 수 있으며, 물을 상징하는 생명력의 근본일 수도 있고, 불보살의 변화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통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징코드의 다른 아이콘으로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전 조형미술 중에서 불단 장엄세계만큼 다채롭고 중의적인 상징체계를 갖춘 것은 드물 듯 하다. 불단은 불상을 모시는 연화좌의 좌대이면서 차, 향, 등, 꽃, 과일 등의 육법공양을 올리는 불탁의 확장시설이 하나로 통합된 한국 특유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다보니 불단의 긴 화면에 인간의 현세기복적 발원과 종교적 극락정토, 불보살의 거룩한 행적 등을 폭넓게 장엄한 형태로 발전해갔다. 불단장엄의 소재는 시공이 갖는 양변의 경계를 여의어서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이다. 현실적이면서 또 관념적이다.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통도사 대웅전, 직지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불단장엄 등은 관념과 현실이 혼재한 카오스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불단장엄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처럼 삶과 종교, 전생, 신화적 요소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판타지세계를 펼쳐 놓기도 하는 것이다.

세로 틀에 배첩한 표구작품 같은 화면

팔공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은 그런 보편적인 특성에다 칸칸이 화폭의 성격을 가진 회화적인 독창성으로 인해 주목을 끈다. 다른 불단장엄이 가로 지향의 화면이라면, 환성사 대웅전의 불단은 세로 지향적이어서 저만의 고유한 독자성을 가진다. 또한 화면 한 칸의 크기가 한 화면의 독립성을 일정하게 보장할 만큼 충분히 크다. 칸칸이 안감을 대고 배첩 손길로 마름질한 표구작품 같다.

화면의 칸 수는 총 20칸이다. 좌우에 각각 4칸씩, 전면에 12칸을 경영해서 스물 칸이다. 펼치면 외경의 공양과 신령, 우화의 세계가 파노라마를 이루는 장대한 20첩 병풍이다. 한 칸 한 칸이 인격화 된 동식물들의 이솝우화 장면 같고, 흥미진진한 천일야화(千一夜話)의 스틸컷으로 다가온다.

전면 12칸 화면에 펼쳐진 세계는 생명과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 숲의 세계다. 화폭 칸칸은 우아한 반자틀을 갖춘 후, 조형화면의 청판을 덧댄 형식이다. 봉긋봉긋한 반자틀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독립된 반자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저마다 화면이 갖춘 독자적인 사연을 시사한다. 한 칸 한 칸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까닭이다. 틀 좌우로 오채의 빛을 지닌 생명력의 새싹 촉이 뻗쳐 화면공간에 신성의 힘을 불어 넣는다. 마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그 오채의 촉을 따라 들려주는 듯한 미묘한 모티프다. 붉은 기운이 도는 촉은 본질적으로 인과의 연기법을 강하게 암시하며, 부처님이 갖추신 자비의 본원력을 상징하는 심벌에 가깝다. 단순함 속에 고귀함을 담고 있다.

전면 12칸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

12칸 모두의 무대는 초록의 푸르름이 넘치는 숲 속 나무다. 생명의 숲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무수히 쌓아온 자비의 선근과 공덕의 우화가 풀어진다. 화면에 등장하는 우화의 주체는 모두 동물이다. 물론 가릉빈가를 연상케 하는 날개 갖춘 사람형상도 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주체들은 코끼리, 말, 원숭이, 사슴, 오리, 공작, 앵무새 등의 동물로 보이는데, 그 동물들은 〈쟈타카〉. 즉 〈본생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전생의 몸이다. 〈본생경〉에서 부처님은 때론 원숭이, 토끼, 사슴, 코끼리였고, 때로는 비둘기나 공작새, 앵무새였으며, 나무신, 혹은 용이 되기도 하셨다. 그 동물들의 몸을 빌려 '앵무새의 숲', '왕을 깨우친 원숭이', '황금빛 공작', '행운을 불어오는 명마' 등의 주인공이 되어 장래의 세존이 되시는 선근을 쌓고 지혜를 발휘하셨다.

화면의 공통적인 무대인 푸르름의 숲은 〈본생경〉 429편에 등장하는 '앵무새의 숲'을 모티프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갠지스강 언덕의 우담바라 숲에 살고 있던 앵무새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 숲이 가뭄에 메마르거나 시들어도 자신들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먹을 열매도 없는데 말이지. 그를 가상히 여긴 제석천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숲을 떠나지 않는가? 앵무새의 왕이 말했다. 이 나무는 우리들의 벗이며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진실한 사이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어찌 이 숲을 떠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앵무새의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시다고 〈본생경〉은 전한다. 부처님도 영원히 우리 중생 곁에 머무심을 일깨운다. 화면 저마다가 〈이솝우화〉처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컷의 화면 속에 부처님의 오래된 인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화 포스터의 스틸컷 한 컷 속에 스토리 전체를 담고 있는 이치다. 이 점이 환성사 대웅전 불단이 지닌 불교미술사적인 중요한 가치다.

좌우측면 8칸엔 세세생생의 공양

그런데 그 형식적 틀은 조선 후기의 민화를 전개한 방식과 흡사하다. 전면은 12폭 병풍이고, 좌우 측면은 합해서 8폭 병풍양식을 취했다. 한 칸은 몸통부의 화면과 기단부의 용틀임, 혹은 용의 정면 얼굴로 구성한 2단 형식의 면분할 구조다. '효제충신예의염치'를 담은 제주 문자도(文字圖)의 3단 구성에서 윗단이 없는 형태다.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연속적이고 통합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좌우대칭의 안정적인 구도를 경영하고 있으나 세부의 묘사는 좌우비대칭으로 펼치고 확장했다.

전면의 12폭이 〈본생경〉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좌우 측면을 합한 8폭 병풍은 보주, 꽃 등 불전에 올리는 세세생생의 공양헌공(供養獻供)을 주요한 소재로 삼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은 귀갑을 두른 직립보행의 두 나찰이 신령한 오색기운이 흐르는 보주를 쟁반에 담아 이고 가는 대목이다. 이토록 신비한 장면은 일본 대덕사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등에서 간혹 접하던 제재다. 또 그 옆의 화면은 조선후기 민화의 어해도(魚蟹圖) 속에 나올 법한 물고기 도상이다. 고려불화에 흐르는 전통의 면면과 당대의 민화화풍을 동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반갑고도 놀랍다.

기단부엔 용들의 졸업앨범 보는 듯

불단의 기단부 처리에서도 장인의 예술가적 창조정신은 멈추지 않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기단부는 용의 세계로 장엄했다. 전면부는 보주를 움켜쥐려 용틀임하는 여섯 용의 측면을 좌우대칭으로 경영했다. 그에 비해 좌우 측면부의 칸칸에는 용의 정면 얼굴을 베풀었다. 그런 발상은 이웃해 있는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의 불단 기단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백흥암 기단부의 용 얼굴이 하나의 전형에 충실한 고전주의적 묘사라면, 환성사 불단의 용은 무척이나 창의적이며 낭만적인 경향이다. 입에 물고 있는 지물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연꽃가지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보주 기운을 비롯해서 새끼줄처럼 배배꼰 붉은 줄기세포의 새싹,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三 杵)까지 발상이 대단히 기발해서 신선하다. 특히 사람처럼 두 팔로 생명의 붉은 꽃망울 가지를 휘어잡고 있는 조형 앞에선 웃음을 참을 수 없다. 그 모습이 마치 팔굽혀펴기 하는 트레이닝 자세를 닮아 입을 가리고 웃을만 하다. 표정도 제각각이다. 어떤 용은 카리스마 넘치고, 성깔 있어 보이는가 하면, 다른 용은 어리숙하며 맹하여서 마치 용들의 졸업앨범을 'ㅋㅋㅋ' 거리며 들춰보는 느낌이다.

불상의 조상(造像)에선 32상 80종호라는 규범이 있어 대체로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 불단, 닫집, 천정, 꽃살문 등의 조형에선 조영의궤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목장, 혹은 예술가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펼쳐지곤 한다. 민화의 시대성과 발맞춰 환성사 불단은 한 시대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재해석 했다. 형식에서도, 내용에서도 소목장 장인의 창조적 정신이 숭고한 승화를 이룩한 예술적 성과라 하겠는데, 그 역시 둘도 없는 그 절집의 빛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고승과 교유하며 불교사상 깊이 천착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⑭ 낙전당 신익성

낙전당 신익성(樂全堂 申翊聖, 1588~1644)은 조선후기 문화를 주도했으며 전서(篆書)의 대가로 통한다. 정숙옹주와 혼인하여 선조의 부마가 된 후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진 권문거족이었던 그는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를 이해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시축에 발문을 썼던 사실과 승려들에게 증여한 시 수 편을 남겼다는 사실 외에도 운요사(雲腰寺), 금신사(金神寺), 유사(楡寺), 망해사(望海寺) 등 여러 사찰을 유람한 것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그가 〈청허당휴정대사비〉를 쓴 것은 단순히 글씨에 능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한데 이는 불교에 대한 그의 친밀감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가문은 권문세가였다. 이는 그의 조부(祖父) 신영(申瑛)이 우참찬을 지냈고, 부친은 영의정을 지냈던 신흠(申欽)이라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는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겪는 등 정치 · 사회적으로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시절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병자호란 당시 주화파(主和派)에 강력히 대항했던 그였기에 얼마 후 척화오신(斥和五臣)으로 지목되어 최명길, 김상헌, 이경여 등과 함께 심양으로 끌려가 억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그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연유는 1642년 명과의 밀무역을 하던 선천부사 이계가 청나라에 잡혀가 조선이 명나라를 지지하고 청을 배척한다는 고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인조가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성립한 후, 그를 삼전도비사자관(三田渡碑寫字官)에 임명했으나 이를 거부, 사퇴한 일도 청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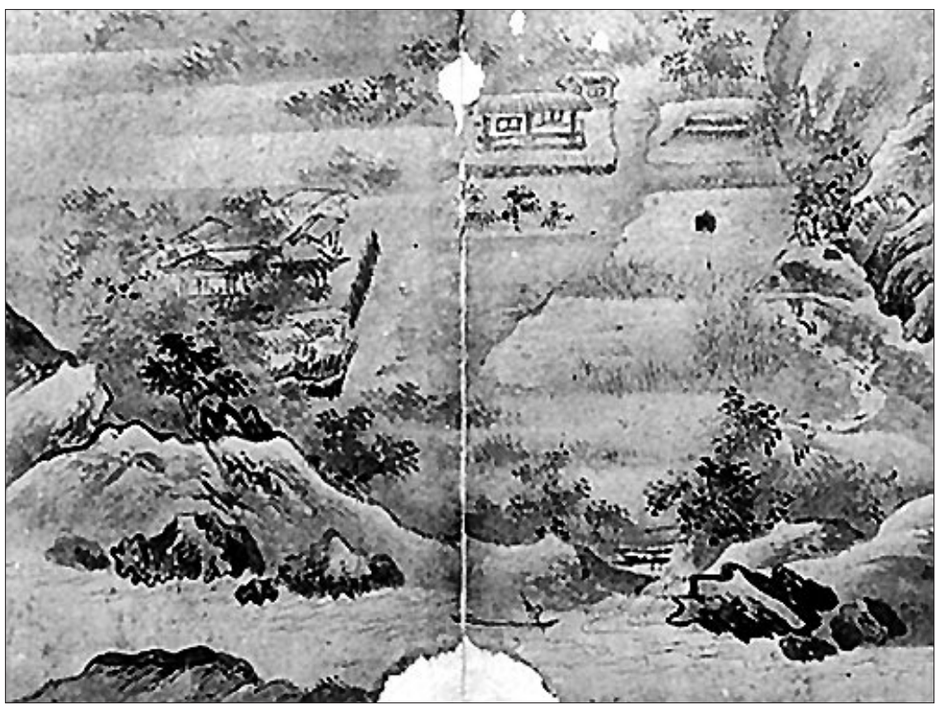
아무튼 그는 청에 끌려가서도 한 치의 굴함도 없이 자신과 조선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였다고 하니 조선의 선비 기상은 이처럼 굳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상의 일은 새옹지마이다. 그가 억류되었던 심양은 명 · 청 교체기의 역동적인 지역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다. 얼마 후 소현세자의 주선으로 풀려난 그는 심양의 여정에서 보고 들은 일들을 기록하여 〈북정록(北征錄)〉을 남겼다. 실제 그가 이런 격동기를 겪으며 느꼈던 심회는 무엇일까. 그의 비분감개는 단순히 시, 서에 묻고 말았던 것일까. 심양에서 돌아온 후 시, 서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던 그의 정황에서도 시대적인 한계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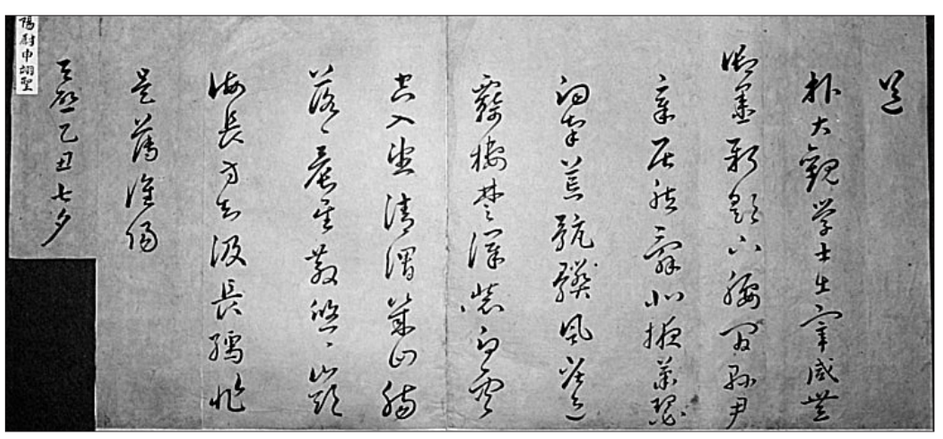
부마로서 벼슬에 나아가는 신분적인 제한을 받았던 그는 부마로서의 혜택을 십분 활용하여 문예활동 기반을 단단히 하였다. 부인 정숙옹주와 부친 신흠의 묘소를 다시 조성하면서 이수(二水, 지금의 양수리) 일대를 정비하고 확장한 것은 선영을 정비한다는 명분이 외에도 전장(田庄)을 확보한 일이었다. 동회(東淮)라는 그의 호는 이수(二水) 유역을 확충하면서 이 지역을 동회(東淮)라 부른 것에서 연유되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사대부들은 근기(近畿)의 선영을 확보하면서 전장을 가꾸는 것이 유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근기 지역의 별서(別墅)를 관리 운영하면서 이곳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회를 열어 풍류를 즐겼는데 이는 자신의 문화적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낙전당은 수많은 도서와 서화를 수집하는 문화적 취향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취향은 〈낙전거사자서(樂全居士自敍)〉에서 "고적을 수습하여 정주학에 대한 책들을 얻었다[收拾古籍 得洛 ¥緖書]"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수집한 도서들은 '낙민(정주학)의 책들[得洛 ¥緖書]'이라 하였다. 낙수에는 정자(정명도, 정이천)형제가 있었고 민중(¥中)에는 주자가 있었기에 정주학에 관한 책들을 낙민제서(洛 ¥緖書)라고 한 것이다.

한편 그가 사찰을 유람한 일이나 승려들과의 교유한 사실은 주로 〈낙전당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승행(四僧行)〉에도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 네 승려란 바로 그와 교유했던 의현, 진일, 성수, 희안이며, "모두 당세의 종사이며 각성장로의 상족들이었다[四僧 卽義賢 眞一 性修希安 俱當世宗師 覺性長老上足弟子也]"고 한다. 이 〈사승행(四僧行)〉은 전체가 20구로 이루어진 장시(長詩)이다. 그 중에 일부 중요한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 서화 수집 좋아한 文臣
불교와 가까운 일상 즐겨
승려들에게 詩 수 편 선물
'청허당휴정대사비' 쓴 인연도

문 앞의 버들, 따뜻하여 조는 듯하고
[門前楊柳暖欲眠]
연못에 싱그러운 연꽃 봉우리는 동전처럼
떠있네[池中]菡萏青浮錢]
게으른 거사, 단장도 하지 않고
[居士泥ᗡ鬟巾櫛]
쪽문을 가리고 선후도 없이 손님을 물리치네
[塞竇謝客無後先]
(나의 문을)두드리는 건 오직 네 승려뿐
[剝啄者誰四衲子]
문안을 허락하나 도리어 구속되지 않네
[許令膜拜還翩翩]
높은 관리나 달사라도 응하지 않았는데
[宰官達士且不應]
어찌 벽안납자는 가까이 오게 하는가
[碧眼胡爲來近前]
내 세속을 끊은 것은 아니나 선을 사랑하여
[吾非絶俗而愛禪]
이들과 자못 작은 인연을 맺었네
[此物頗少區中緣]
한결같고 또한 평안하며 어구도 좋고
[一也安也句語好]
염불을 닦아도 글을 잘하네
[修能念誦文卽賢] …중략


이태호 명지대 교수가 발굴, 공개한 신익성의 백운루도.


도판 전서의 대가 신익성의 글씨.

그가 승려들과 교유했던 것은 두 가지 연유에서다. 바로 그가 선을 좋아했고, 승려들이 글을 잘할 뿐 아니라 한결같은 도량과 편안한 안정(安靜)을 갖췄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도를 균일하게 다 얻지는 못했으니[均之大道俱未獲] 내 유가이지만 선에 도랑을 파리[我之於儒渠之禪]"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혼미한 길, 인아의 관문을 벗어나지 못하여[迷途未脫人我關] 동쪽으로부터 중향천을 찾았네[秋來東訪衆香天]"라고 하였다. 결국 그가 불교를 좋아했던 것은 혼미한 미망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인아(人我)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몸에 늘 변(變)하지 않는 본체(本體)가 있다는 미망(迷妄)' 인 것이다. 샹캬 학파에서는 순수정신(純粹精神)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혼미한 인아의 관문을 벗어나려고 중향천을 찾았다는 것이니 그가 승려들과 교유했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진 듯하다. 또한 그와 서로 통했던 승려들은 〈증수능상인서(贈守能上人序)〉에서 드러난다. 그가 어떤 승려들과 교유했는지를 드러낸 이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산인 수능이 동회로 나를 찾아왔는데 수능 승려의 행동거지가 평범하지 않았다. (내가) 글을 하는지를 물으니 (수능은) 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일부 책을 내놓으면서 나에게 억지로 제(題)를 지어 달라고 청했다. 글이 다 지어지면 잠시 보관해 두기를 바란다 하며 홀연히 돌아갔다. 내가 그 책을 펴 보니 화엄의 중요한 말을 가려 뽑아 책을 만들어 〈예참〉이라 이름 하였는데 그 법도가 바르고 자상하고 치밀하다. 말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워 저술하는데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나머지 지은 것을 보니 삼교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고금을 살폈으며 (원리를)누르고 드러내며 빛내고 사라지게 하며 바람을 일으키고 벼락을 치게 하였으니 나는 이에서 수능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다.[山人守能 訪余於淮上, 一衲一錫, 動止不凡, 問能文字乎, 曰不能, 已進一部書, 請余勒題, 題罷顧姑置之, 遂忽辭歸, 余發其書見之 華嚴要語爲一書, 名之以禮懺, 其規矩繩墨, 縝密圓轉, 非老於結撰者, 不能爲也, 且觀其所爲緖餘者, 把弄三教, 抑揚揮 古今, 抑揚揮 風發霆擊, 余於是知能也, 果非凡品] 내가 평소 산인납자와 교유하기를 좋아하여 산인납자들을 차츰차츰 알게 되었고 또한 문득 와서 섞여 놀았다. 세상에서 수행이 깊고 이름난 승려라고 칭하는 의형, 법견, 성정, 응양, 해안, 각성, 언기가 모두 나와 평소 교유했으나 물론 그들은 입적하여 세상엔 말만 남았다.[余平生喜與山人衲子游 山人衲子稍有知識 亦輒來參 世所稱老宿名師義瑩 法堅 性淨 應祥 海眼 覺性 彦機皆余所素雅也 無論其歸寂 以在世者言之] 응상은 덕이 있는 그릇이었고 해안은 재주와 식견이 있었고 각성은 경계하여 깨쳤으며 언기는 고상하고 지조가 있었으니 모두 그 명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성정 같은 스님은 선문의 고도로 다만 이름을 부르는 데만 그칠 명성은 아니다.[祥之德器 眼之才識 性之警發 機之雅操 皆不負其名 若淨師禪門之高蹈 不止名可名而已] 그러므로 혹 계율을 삼가며 혹 스승의 말을 전한 것이라면 삼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리를)누르고 드러내며 빛내고 사라지게 한 것은 수능 같은 사람이다.[然或謹於戒律 或傳其師說 未有把弄三教 抑揚揮 如能也者]

이 글은 그가 동회(東淮)에 머물 때 쓴 글이다. 그와 교유했던 수능 스님이 화엄경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 〈예참〉이란 책을 편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낙전당은 당대의 명승(名僧)이었던 의형, 법견, 성정, 응양, 해안, 각성, 언기 같은 고승들과 교유했으며 그가 〈예참〉의 서문을 쓸 당시에는 고승들이 모두 입적했다. 그는 자신이 교유했던 고승들의 품성을 일일이 거론하여 "응상은 덕이 있는 그릇이었고 해안은 재주와 식견이 있었고 각성은 경계하여 깨쳤으며 언기는 고상하고 지조가 있었으니 모두 그 명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성정 같은 스님은 선문의 고도로 다만 이름을 부르는 데만 그칠 명성은 아니다[祥之德器, 眼之才識, 性之警發, 機之雅操, 皆不負其名, 若淨師禪門之高蹈, 不止名可名而已]"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아울러 이 글의 말미에 "나는 병이 들어 동회에서 모든 일을 폐하고 문을 닫고 정을 닦았다. 일찍이 불가의 정명(淨名)에 천착하여 산인납자와 서로 응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余病廢田間, 閉門習靜, 嘗 釋氏一段淨名處, 與山人衲子不能無酬酢語]"는 대목을 주목하게 된다. 이는 동회(東淮)의 전장(田庄)에서 그와 담소했던 인물이 주로 승려들이었으며 불교의 정명 사상에도 깊이 천착했음을 밝힌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따라서 말년의 그의 삶은 유학자이지만 불교를 가까이한 일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6. 1. 30(토) 오후 1시부터 ~ 1. 31(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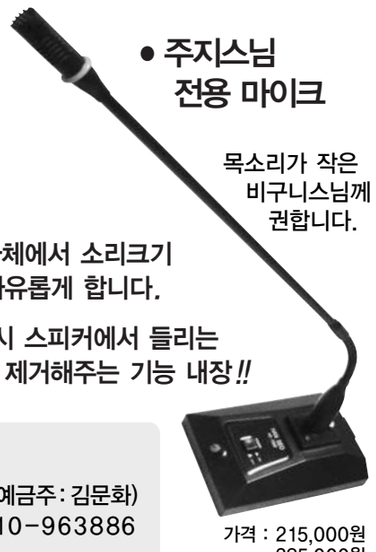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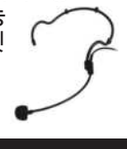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니까야서 길을 묻다 3. 유익한 것의 추구

나도 남도 이롭게 하라

저마다 자신의 견해와 관점이 옳고 진실하며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야 할까? 이 문제는 흔히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늘 어려운 문제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 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대림스님 역, 〈앙굿따라 니까야〉 제1권, 466쪽)

인용한 경전 서술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깔라마인들에게 주는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를 보면, 판단 근거가 되는 '소문, 전승, 종교 텍스트, 추측, 논리, 추론, 이유, 사색, 견해, 권위자, 스승' 등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말로 인해 부처님 자신의 권위마저 스스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결론은 불교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진실 판단의 기준은 '유익한 것, 비난받지 않는 것,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다. 여기에서 '유익' 이나 '이익' 이란 말은 일상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얼핏 보기에 진실 판단의 기준을 '유익함' 으로 설정한 수준이 너무 일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익함' 이 진실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근거의 면모를 보면 유익함의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들어서 아는 것, 전해오는 이야기, 추측이나 사색의 결과 정도의 수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문헌, 스승의 권위보다 '유익함' 이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유익함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떠올리면, 이때의 '유익' 은 '돈이 되거나 즐거움을 준다' 는 측면에서 내게 이로울 것이라는 손익계산 상의 이익추구가 아닌 것이다. 나아가 '나에게만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행위 및 상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것' 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익함' 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를 의미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전도(傳道) 선언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다니지 말고 '홀로 다닐 것(流行)' 을 부처님은 권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말한 '이익(hita)' 이란 말에는 이미 '공익(公益)' 의 정신이 내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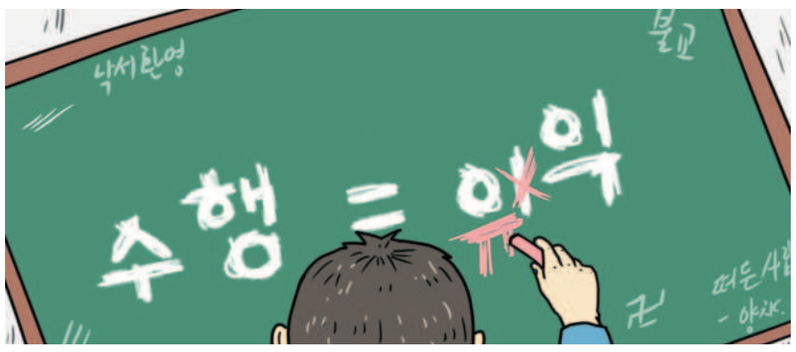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불교 수행의 핵심인 계율[戒], 명상[定], 지혜[慧]를 바라문교에서 격식을 갖추어 거행하는 제사 의식보다 '더욱 크고 많은 이익이 있는 제사' 라고 규정한 표현에서(DN. I ,pp.146-147), '이익/유익' 의 의미가 훨씬 잘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의 의미를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 으로 자리매김 하기 때문이다. 곧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만 빠지기 쉬운 세속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길을 찾는 일이 불교 정신의 토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이제 '세 가지 공부해야 할 내용[三學]' 을 이루는 계율 · 명상 · 지혜의 트로이카를 하나씩 살펴나가자.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경계도 틀도 부순 건축"…

산문 밖의 禪

김개천 건축가

(국민대 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화엄(華嚴)의 사상은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고 살아갑니다. '화엄만다라' 지면은 끊임없이 연기상생하는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호부터 '화엄만다라' 인터뷰 섹션을 세분화 합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산문밖의 禪'** 과 자비나눔으로 불법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는 **'그대는 자비보살'**, 시대의 지남(指南)들에게 듣는 **'리더에게 聽하다'**,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도반들과의 인연담 **'道伴의 향기'** 등으로 나눠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드는 화엄 세상을 독자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김개천 교수는… 국민대 조형대학 교수이며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서 동양철학과 선사상을 전공하였으며, 〈명묵의 건축〉 〈미의 신화〉 〈선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등 한국 미(美)의 조형사상과 현대건축 사상에 대한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근정포장, APSDA EXCELLENT AWARD, RED DOT DESIGN, IFI AWARD를 수상했다.

법당의 창호를 모두 열면 법당은 사라진다(?). 그런 법당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선정에 들어 '나' 를 없애는 것과 같은, 언어도단의 근처일 것이다. 그런 법당이 있을까. 그런 건축이 있을까. 있다. 2000년, 담양에 지어진 정토사 무량수전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법당을 설계한 건축가 김개천 교수다.

최초의 화두,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김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지한 자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건축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한다. 해외유학이라는 일반적인 선택을 버리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현장으로 간다. 마치 구법의 길을 떠난 선재동자처럼, 그는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과 건축가들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건축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저의 처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는 10년 남짓의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서 받은 화두를 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알래스카 등지의 외국 회사에서 세계적인 건축과 건축가를 만나며 '건축이란 무엇인가' 와 씨름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파견 나온 이태리 감독관으로부터 진정한 화두를 받게 된다. "건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였다. 지금까지 건축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시작한 김 교수에게 그 한 마디는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그야말로 '화두' 를 들게 했다. 그리고 이태리 감독관이 덧붙인 또 하나의 말 한마디가 김 교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였다. 김 교수는 혼란스러웠다. 이태리 감독관은 김 교수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 교수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문은 점입가경. 제대로 화두에 묶인 것이다. 건축학도로서 당연히 가져야했던 의문이 이제는 인간 김개천을 흔드는 중대한 의문이 된 것이다.

서른두 살 때였다. 해외현장 생활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어느 날, 불현 듯 자신을 끌고 다니던 의문에서 풀려난다. 가슴에서 피어오른 한 생각. "건축은 부처다." 그리고 순간 입으로 터져 나온 노래 하나. "툭툭툭툭 탁탁." 김개천의 건축은 "툭툭툭툭 탁탁"이었다. 화두 끝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다. '김개천 건축' 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건축이라고 하면 재료와 재료를 잇고 쌓고 붙여서 아름다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건축은 하나의 세계, 진리,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건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까요. 시작할 수 없었던 저의 건축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선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 건축에 대한 답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찾아왔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 과정이 다름 아닌 화두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축의 답이 선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가야할 길이었고, 저에겐 '건축은 깨닫는 것' 이라는 문신 같은 문장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가보고 싶은 길이 되었죠."

김 교수는 20대 초반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신자로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불교'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많았다. 김 교수는 공부를 위한 공부였던 20대 초반의 공부에서 벗어나 제대로 불교를 시작한다. 그는 35세의 나이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의 문을 두드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학과는 승가의 영역이었다. 재가자가 없었던 선학과였다. 입학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끝내 그는 선학과에 입학하여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

안팎 경계 허물고 법문하는 법당

"건축 속에 담긴 선, 선을 담은 건축, 과연 선적인 건축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한 공부를 마친 김 교수는 '건축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에 이어 또 하나의 화두를 짊어지게 된다. 공부한 값이었다. 김 교수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선의 건축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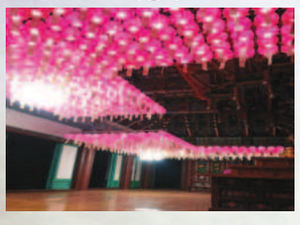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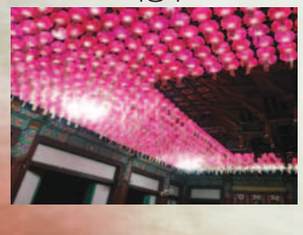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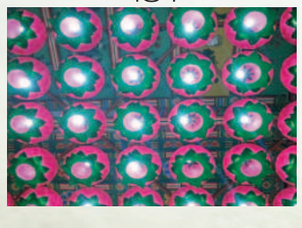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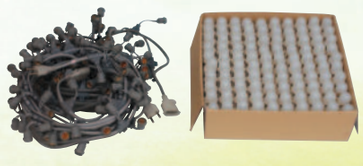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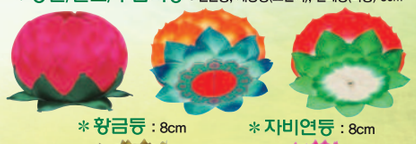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구도하듯 집 짓는 선재동자

2000년, 그는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을 시도한다. 정토사 무량수전이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1980년대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현대적 건축 양식의 시도 중 하나로 불교 건축사의 큼직한 사건이며, 김 교수의 역작이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다.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도 볼 수 없으며, 때문에 그 곡선과 기둥의 조화는 더욱이 찾아볼 수 없다. 우아하게 빗물을 받아낼 지붕도, 가을날 기대서고픈 배흘림기둥도 없다. 하지만 정토사 무량수전에는 140개의 창호가 배흘림기둥을 대신하고 있다. 법당의 전체 벽면이 창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 대신 최소화된 직선의 베젤이 건물의 외양을 마감하고 있다. 그 140개의 창호와 최소한의 베젤이 배흘림기둥과 추녀의 곡선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당의 한 쪽에는 산이 서있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너른 연못이 펼쳐져 있다. 법당의 140개 창호를 모두 열어젖히면 법당이 사라지고 산과 연못이 나타난다. 법당 전체가 창호로 둘러져 있으니 그 창호를 모두 열면 법당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존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색과 공을 넘나드는 것이다.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함께 조응하는 것이죠. 그 순간 법당 안의 대중은 산과 물, 자연, 우주의 중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토사의 무량수전은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을 건축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다. 140개의 창호를 여는 것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고, '절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색즉시공'을 문자가 아닌 건축의 일면을 통해 설하고 있다. 공이란 색을 여의고 존재할 수 없다. 다시 140개의 창호를 닫으면 법당은 법당으로 돌아온다. 공은 색인 것이다.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것을 법당을 찾는 이들에게 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전통을 버렸을 땐, 버린 의미와 새로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는 정토사 무량수전으로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건축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정토사 무량수전 외에도 동국대 대각전, 만해마을 만해사, 법천사, 천안 황룡사, 목동 국제선센터 등 불교건축을 통해 자신의 건축관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과 불교적 안목의 건축 사이에서 늘 고민해왔다.

"지금까지 없었던 형식의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건축 속에 선이 있고 불교가 있는 거죠. 저는 제 건축이 'Less but more(적은 그러나 많은)'이길 바래요. 유와 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

김 교수는 '선적인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건축관을 말했다.

'無心한 건축'과 '늘 흔들리는 건축'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

김 교수의 선적인 건축은 앞서 말한 불교건축은 물론이고, 일반 주택과 빌딩, 미술관, 종교 시설 등 다양한 건축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엔 또 하나의 화두가 등장한다. '선적인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이어진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이다. 불교적인 건축에 선이 투영되고 발현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에서 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이 필요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첫 화두
유학대신 선택한 해외현장서
오랜 참구 끝에 들려온 한소식
"건축은 부처다. 툭툭툭 탁탁"

35세에 東大 대학원 선학과 입학
자신의 건축, 선에서 답 찾아
정토사 무량수전으로 실현
안주하지 않고 새 건축 고민

김 교수는 선이 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무심(無心)한 건축'과 '늘 흔들리는 건축'을 말했다. 건축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 건축, 주장하지 않는 건축, 즉 '무심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건축이 아니라 덜어내고 덜어낸 소박한, 그러면서도 '건축'일 수 있는 건축이다.

또 하나, 건축이 선이 되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각의 건축, 무상함에서 오는 흔들림(늘 변하는)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삼십대 초반에 지었던 일반 주택 하나를 소개했다. 블록으로만 지은 집이다. 돈을 들이지 않은 집이라고 소개했다. "사당동에 지은 집인데요, 그 집을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무심한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애쓰지 않은 집. 주장하지 않은 집, 이에요." 김 교수는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건축으로 사당동 집을 말했다. 김 교수는 요즘 다시 그 집이 생각이 난다고 했다. 無자와 空자로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최근에 지은 집 하나를 또 소개했다. '늘 흔들리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칸집'이다. 2014년에 지은 '한칸집'은 매스컴의 많은 조명을 받은 건축이다. 경기도 양평군 송현리에 지어진 주택이다. '한칸집'으로 불리는 이 집은 실질적인 넓이가 가로세로 9m이다. 내부를 전부 움직이는 미닫이문으로 달아 문을 열었을 때 한 칸으로 모이고 문을 닫았을 때 아홉 칸으로 나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은 처음에는 아홉칸집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한칸집으로 바꿨다. '늘 흔들리는 집'이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늘 무상함을 전제로서 있는 집이다. 한칸집의 건축주 이내옥 씨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으로 조선시대 사랑방을 닮은 검소하고 작은 집을 원했다고 한다. 오래된 주변과 어긋나지 않는 집이길 바랐다. 건축주가 김개천 교수를 찾아간 이유는 김 교수가 담양 정토사에 무량수전을 짓는 것을 보았던 인연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건축주의 요구를 자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내 생각에 주변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변과 닮거나 비슷한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생명성을 획득하면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 평면에서 그 부분을 구현했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이 집이 보기에 따라서는 한 칸도 될 수 있고 백 칸도 될 수 있는 집이다."고 덧붙였다. 건축이 선이 되는 순간이다. 선은 산문 밖에도 있었다. 김 교수는 2015년 '창의적 리더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명원 건물(한옥)의 리뉴얼 작업을 했다. 또한 예술분과 강사로도 참여하며 또 다른 건축을 찾아 여전히 선재동자의 길을 가고 있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선의 건축을 구현한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은 김개천 교수의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4년 천안에 지어진 황룡사는 현대적인 건축과 전통의 건축이 공존하는 건축이다.

전법일기

군대 안의 수행자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그 속에 종교적 지원과 장병들의 심신의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종장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구성은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의 성직자들이다. 특히 불교 군승은 조계종단의 승적을 지니고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군포교의 뜻을 두고 군문에 들어선 이들이다.

그래서 일까. 군 내부적으로도 호칭을 계급으로 부르지 않고 종교별로 부른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가지 신분을 가진다.

군승들은 복무 중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지닌다. 먼저 계급이 낮은 상태에서 임관하다보니 상위 계급자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을 때 겪던 일이다.



그림 · 박구원

10여년 전 처음 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곳에서의 일이었다.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에 부대들을 찾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지휘관도 만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부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뜸 한 간부가 와서 이런 말을 건냈다.

"넌 처음보는데? 어디서 왔냐?"

"아, 저는 군종법사입니다."

멋적은 대답에 그 간부는 "아!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경험은 그 후에도 부지기수로 겼었다. 군간부이자 종교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한 부대에서는 "야! 박대위!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니가 하는게 뭐가있어?"라며 면전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군승들에게 이런 언행을 보이는 이들은 일찌감치 군복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에서도 인성이 부족한 이들은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대 내 편견보다 더 속상한 일은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스님이에요?"라고 질문할 때다.

군승들의 겉모습은 일반적인 스님과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군에서 요구하는 복장 기준으로 인해 머리를 조금씩 기르고 있으며 군복도 입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칭까지 '법사'로 불린다. '법사'라는 호칭이 어떤 말인가, '삼장법사'라는 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법을 설하는 존재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 아닌가. 스님들 중에서도 법사스님이라고 호칭할 때의 그 '법사'인 것이다. 군에서 '군승법사'들이 하는 모습이 주로 법회를 이끌어 법문을 하고, 아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역할이기에 '법사'라고 붙여졌을 뿐이지 한번도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호칭으로 인해 불자들에게 여염집의 남자 무속인과 같이 바라봐 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현재 군에서 활동하는 100여 명의 군승법사들은 스님들이며, 늘 그 수행자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투복을 입고 방탄헬멧을 쓰고, 훈련장을 누빌 때에도. 장병들과 군용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때에도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라는 생각을 하며, 인욕하고 정진한다. 사찰에서 수행하고 살 때와는 달리 장병들의 간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에도, 사리사욕을 위해서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은 없다.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롭게 군복무하는 장병들의 번뇌를 덜어주고 싶고, 국방의 역할을 하는 장교, 부사관 불자들이 조금 더 신심깊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군 장교라는 역할을 위한 수행자가 아닌 수행자 이기에 기꺼이 군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나아간다. 법명보다 속명으로 불리우는 시절도, 스님이 맞냐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도 담담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군'(軍)이라는 대중 속에 뛰어든 수행자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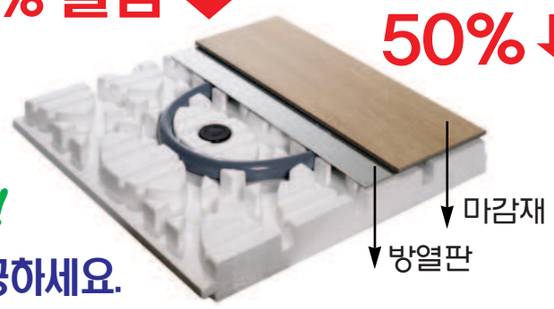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眞如, 제법을 연기하는 주체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진여(眞如)라는 말이다. 참되고 한결같다는 뜻인 이 말을 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원래 진여란 범어 'Tathata'를 번역한 말로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상주불변의 본체를 두고 쓴 말이었다. 사유가 미칠 수 없는 성품자리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보(正報)인 근신(根身) 쪽에서는 불성(佛性)이라 하고 의보(依報)인 기계(器界) 쪽에서는 법성(法性)이란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진여를 중생의 측면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사물의 측면에서는 법성이라 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이 진여를 경전마다 달리 표현한다. 능엄경에서는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 하고 금강경이 속해 있는 반야부 경전에서는 반야(般若)라 하고 원각경에서는 원각(圓覺),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一眞法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진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음식의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여도 말이 맛 자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진여를 기신론에서는 말을 떠난 진여와 말에 의해 설명되는 진여를 구분 이언진여(離言眞如)와 의언진여(依言眞如) 둘로 설명한다. 말을 떠났다는 것은 진여에 대해서 이론을 세울 수 없으며, 사상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신론 본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

불변의 본체 의미하는 '진여'
대승불교서 가상 이상적 개념
"망령된 생각 벗어나야 증득"

"진여가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다.

"만약 일체 법 곧 모든 존재가 비록 말로써 설명하지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생각하여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면 진여를 따르는 것이며,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진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과 망령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선가에서 곧잘 말해온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는 말이다. 〈원각경〉에도 이렇게 설한 대목이 있다.

"사유심으로 여래의 원각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불교는 사유를 넘어선 무분별지를 체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고 있다.

말을 떠난 진여를 말을 의지해 설명할 때 진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 그대로 비워진 상태로 더할 나위 없이 실제 그대로는 나타낸 것(如實空)과 또 하나는 사실 속에 또 실제 그대로 비워지지 않은 것(如實不空)이다. 진여가 공과 불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공하다' 곧 '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진여는 본래부터 오염된 법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차별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허망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체의 성품은 있다고 보는 상황도 아니며, 없다고 보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가 하며 있다고 보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며, 없다고 보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 하나로 된 단원론적(單元論的)인 상황도 아니며 여럿으로 된 다원론(多元論的)인 상황도 아니다. 동시에 단원론적이면서 다원적인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망령된 마음으로 찰나찰나 분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진여에는 본래 망념이 없었다는 뜻에서 공(空)이라 한다. 망념이 없으면 비워졌다 할 것도 없는 것이다. 비워지지 않는 불공(不空)이란 망념이 없는 상태 곧 참마음 그대로가 항상 변하지 않고 깨끗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지 않았다 한다. 공해지면 그 공해진 속에 공하지 않는 성질이 내재해 있어 이른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가 진여 자체에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과 불공의 관계는 말의 개념은 다르나 그 체는 한가지라는 것이다.

마치 그릇이 비워 있으면 비워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망념을 여의면 여읜 그곳에 모든 것을 정화하는 깨끗한 법이 충만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소모가 되지 않는 공덕, '무루성공덕(無漏性功德)'이라 하였다. 기신론에서는 이 진여가 생멸로 전환되면서 제법을 연기하는 주체가 된다. 그리하여 진여연기설 혹은 여래장 연기설이라 말해 왔다.

보살행 근본이자 무량한 공덕의 곳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④ 보시의 수승함

施勝品第一(시승품제일)

敬禮等正覺 大悲哀世尊
(경례등정각 대비애세존)
因彼起正法 三界中最濟
(인피기정법 삼계중진제)
衆中第一尊 無量功德藏
(중중제일존 무량공덕장)
菩薩本所行 我當說少分
(보살본소행 아당설소분)
我今哀愍彼 開演妙施門
(아금애민피 개연묘시문)
一切諸賢士 應當歡喜聽
(일체제현사 응당환희청)

번역

보시의 수승함에 대한 품 제 1

평등한 바른 깨달음과 대자비로 불쌍히 여기시는 세존께 공경의 예를 드리노니, 그 바른 법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삼계(三界) 가운데서 진실로 건지십니다.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제일 존귀하고, 무량한 공덕의 곳간이며, 보살의 행할 바 근본이기에, 제가 마땅히 적은 부분이라도 설명하나이다.

제가 지금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미묘한 보시의 문을 열어 보이노니, 일체의 모든 어지신 이들은 응당 기쁘게 들으소서.

해설

〈대장부론〉은 총 29품으로 이루어진 짧지 않은 논서다. '대장부(大丈夫)'는 뜻이 지극히 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대영웅'을 우리는 '대웅(大雄)'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대웅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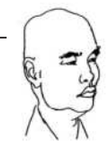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대장부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 〈칠불경(七佛經)〉에 간략하고도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대장부는 이와 같이 지혜가 있고, 이와 같은 계를 지니며, 이와 같은 선정이 있으며, 이와 같이 해탈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의와 덕이 있으며, 이와 같이 무리가 함께하며,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이롭게 하며, 심히 희유하며 불가사의 하니라.(如是大丈夫, 有如是智慧, 如是持戒, 如是三摩地, 如是解脫, 如是威德, 如是種族, 降世利生, 甚爲希有不可思議)'라고 하였다.

이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보살이 하고 싶은 말도 〈칠불경〉에서 설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장부로서의 삶을 보살의 마음인 자리이타(自利利他)에 중점을 두었으며, 육바라밀의 '보시'를 주제로 삼아 논설하였다. 보시는 널리 베푸는 마음이면서, 번뇌의 가장 큰 요인인 탐욕심을 여의는 실천적 방법이다.

그런데, 보시라는 말을 하면, 탐욕심이 많은 중생은 좋아할 리가 없다. 나를 위해 먼저 쓰고,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보시하는 삶이 중생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다 같은 욕심을 어느 세월에 다 채우며, 언제 만족함을 알아 보시하겠는가.

그래서 제바보살은 〈대장부론〉의 제일품을 '보시에 대한 수승함'에 대한 설명과 찬탄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삼계(三界)의 고통 가운데서 중생을 건지는 부처님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보살의 근본이며, 행할 바이기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한다고 토로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는 오늘의 종교다

글짓기를 잘하는 어느 대학교수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 혼자서 차를 몰고 강원도의 어느 해변마을에 이르렀다. 어느 어촌마을에 차를 세우고 요깃거리를 찾아 식당 몇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글로 큼직하게 다음과 같은 글이 입구의 문에 붙어 있었다.

'오늘은 현찰입니다. 내일은 외상이 가능합니다.'

식당 주인의 설명인 즉 세상에는 오늘 뿐이며, 자고나도 언제나 오늘이므로 365일 현찰이라는 철학교수를 닮은 현찰거래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다는 글이었다.

그렇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에겐 오로지 오늘뿐이다. 식당 주인의 설명처럼 자고나도 오늘뿐인 것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앞당겨 근심걱정하지 말 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의 주인공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닫힌 문 열고 주인공으로 살자

되어 당당하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 일이다. 쫀쫀하게 졸아들거나 토끼눈이 되어 놀라고 두려운 참새가슴으로 살지 말 일이다.

법회장소에서 첫 말문을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전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답은 '예'이다.

"내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대답 역시 '예'이다.

그럼 전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아니면 내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 현생의 행복 쪽에 대답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짓궂은 감이 있겠지만, 그 흐름을 타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간다.

"어제가 중요하세요? 내일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오늘이 중요하세요?" 역시 대답은 착하게도 하나의 정답 쪽으로 몰려있다.

지나간 어제보다 다가올 내일보다 생생한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신(神)을 중심으로(神本主義) 모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人本主義) 펼쳐지는 종교다.

어느 절대자의 능력과 구원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마음 개발에 의해 스스로를 다듬어 완성해 가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헐떡이는 존재이다.

방황할수록 지름길을 빨리 발견한다는 마오쩌둥의 어록처럼 흔들리면서 철이 들고 헐떡이면서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굽고 비어있으며 막혀있기에 종교와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단절이 외로움을 키우고 이해의 결핍에서 갈등과 대립의 칼날이 날로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물을 마셔도 가시지 않는 원초적인 목마름, 버스와 배를 타지 않아도 세상이 뱅뱅 도는 심한 멀미, 두 눈을 멀건이 뜨고 있어도 온몸을 휘감고 밀려오는 가위눌림, 혼자 있으면 홀수라서 외롭고, 짝이 있고 셋 넷이 곁에 있어도 가슴 속에 구멍이 송송 난 듯한 이 공허감. 이 허무감이 종교를 만들고 신앙의 둘레를 넓혀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떠한 종교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펴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불교는 전생을 위한 종교도 아니요. 내생을 위한 종교도 아니며, 현생의 오늘을 위한 오늘의 종교라는 사실이다. 전생 탓으로 체념하게 하거나 내생 따위로 현생을 담보물처럼 가볍게 하지 않는다.

본래, 동·서·남·북은 없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동·서·남·북의 중앙이며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지혜로 가득 차 있다. 닫힌 문을 열고 보면 행복과 자유가 햇살처럼 쏟아지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움직이는 진리로 살 수 있을 터니까.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사 뒤켠에 감춰진 조각승 다시 들추다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① 조각승 연재를 시작하며



〈사진 왼쪽부터〉 강화 전등사 목조여래좌상(수연, 1623년),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색난, 1684년, 정수사서 조성),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상정, 1755년).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수연 · 색난 · 상정 스님이 만들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많은 사찰들이 파괴됐고, 이를 중수하는 불사들이 일어나 조각승들의 활동도 많아졌다. 당시 작품에 대한 가치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조각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진, 수연, 색난, 진열, 계초…. 다소 생소한 이들 스님의 이름을 아는 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스님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사찰을 중건할 때 법당에 모실 부처님을 조성한 조각가들이다. 이들이 조성한 불상은 10여년 전부터 보물이나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밝혀졌지만, 정작 불상을 만든 스님들은 여전히 우리들 관심 밖에 있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교조각에 비해 미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300년 동안 유사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양식적인 변천이 없다는 선입관마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은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에 외래 불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바꿔 말하면 가장 한국적인 불상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조선 후기(1600~1910) 불교조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7년 7월 전남의 작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벗들과 남도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진, 해남, 화순, 고흥 등 남도의 여러 사찰에 봉안된 불상들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연혁과 전각마다 봉안된 불상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옷을 입고 있는 착의법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진 정수사 나한상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가섭존자(전남 해남 성도암 조성)를 17세기 후반 색난 스님 등이 만들었다는 연구논문을 접하면서 한 명의 조각가를 알게 되었다. 미술사학계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18세기 전반에 불화를 그린 불화승 의겸(義謙) 스님과 17세기 후반 범종을 만든 주종장(鑄鐘匠) 사인(思印) 스님의 활동과 양식적 특징을 밝힌 논문이 발표되어 색난 스님을 통하여 불상을 만든 작가들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2년 동안 전남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조사하면서 화순 쌍봉사, 광주 덕림사 등에 색난 스님이 만든 제작연대가 밝혀진 불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색난 스님의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등을 중심으로 불상 양식을 밝힌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다.

불상을 만든 스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문헌은 조성발원문이나 사적기 등에 이름만 간략하게 적혀 있지만,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활동 시기, 거주 사찰,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하였다. 조선후기 불상을 만든 작가들은 문헌에 화사(畵士), 화원(畵員), 양공(良工), 장인(匠人), 조상(造像) 등으로 적혀 있다. 이 명칭과 더불어 여러 스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관례적으로 위계에 따른 순차적인 표기로 인식할 수 있고, 먼저 언급된 스님이 스승이나 선배로 볼 수 있어 이 분들의 상호관련성을 추정해 보았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작가 앞에 화원(畵員), 부금(付金), 금박(金箔), 칠사우(漆舍牛), 각수(刻手), 마조(磨造), 소목(小木)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적어놓았다. 이는 나무로 불상을 만들 때,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건목을 치고, 세부를 조각하고, 옻칠하고, 금을 칠하거나 입히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제작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조선후기에도 동일한 기능이 결합되어 불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불상을 만든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실제적으로 조성발원문과 사적기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작가들을 총칭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했고, 불화를 그린 불화승을 참조해 조각승이라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 불상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이 모두 출가한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봉안된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유물들이다. 이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과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으로 많은 사찰이 파괴되면서 전각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나 불화 등의 성보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전기보다 조각승의 활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찰 정비가 거의 끝나는 18세기 중반 이후는 불상 제작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중수와 개금이 주로 이루어져 조각승의 존재 기반이 서서히 붕괴된다. 반면, 불교회화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성보 문화재를 소각공양하고 다시 만드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불화승의 활동과 숫자는 일정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

임란 거치며 조선후기 불사 증가

불상 조성참여자 모두 출가 스님

18세기 이후 수요 줄며 뒤안길로

불상 조각승 예술 세계 조명함은

불교문화재 생명력 불어넣는 작업

이러한 상황이라 전국의 전통 사찰에 봉안된 불상은 대부분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후기 불상은 전각이 화재와 수해로 피해가 없는 이상 파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 만큼 하나의 불상을 제작하는 일은 사찰에서 가장 큰 불사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참여 인물 등을 적어놓은 문헌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산 속에 있던 사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빨치산들이 머물거나 식량 조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명 아래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사찰을 파괴하였다.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많은 문헌기록이 파괴한 상황에서 한 명의 작가를 밝히는 것은 쉬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의 존재를 지금이라도 조금씩 연구하는 것은 결국 성보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힐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불상을 조성하거나 중수 개금에 참여한 스님은 1,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한국불교조각사에 족적인 남긴 스님은 100여 명에 이른다. 이 조각승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흐름이 정리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많은 작품이 남아있어 활동이나 불상의 양식적 변천까지 밝힐 수 있는 스님도 있지만, 대부분 조각승들은 3~4점 밖에 작품이 조사되지 않아 작가의 삶을 복원하기 미흡한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승관계와 거주 사찰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점을 찍다 보면 선이 생기고 그것이 면이 되면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결국 스님으로 출가해 자신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불상을 만든 조각승들의 삶과 그들의 예술혼을 밝히는 것이 한국의 불교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이라는 확신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현재 사찰에 봉안되는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을 흔히 '불모(佛母)'라 부르고 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만든 작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불모라는 명칭은 근대 이전에 쓰여진 적이 없지만 현재 스님이나 신자들에게 쉽게 불상을 만든 작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라 생각이 들어 제목을 '불모열전(佛母列傳)'이라 붙였다.

1년 동안 연재할 작가들은 대부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에 파괴된 사찰에 봉안할 불상을 만든 스님들의 이야기이다. 원오 · 현진 · 수연 · 청허 · 승일 · 무염 · 희장 · 사인 · 영철 · 계찬 · 혜희 · 운혜 · 회감 · 색난 · 마일 · 승호 · 일기 · 금문 · 여찬 · 하천 · 진열 · 상정 · 봉현 · 계초 · 계심 · 설훈 스님 등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불교조각사에 한 축을 담당했던 조각승들의 작품세계의 면모를 이제부터 소개한다.

최선일 위원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前 강진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과 서울특별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승장(僧匠) 인명사전-불교조소〉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등이 있다.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고급 국내산양초
밀 대(70)
돈타레(40)
원기둥(20)
박스@90,000원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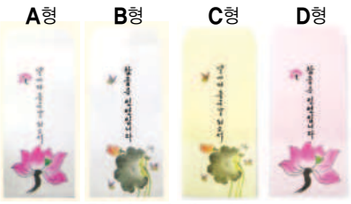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A형 B형 C형 D형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경계없던 자유인을 기억하다

비디오아티스트 故 백남준 10주기 행사 '풍성'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백남준(1932~2006)은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머리를 위한 선〉 〈걸음을 위한 선〉 〈필름을 위한 선〉 〈TV부처〉 등 불교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유분(遺粉)은 현재 봉은사에 안치돼 있으며, 봉은사도 매년 1월이 되면 백남준의 추모재를 연다.

진속의 경계를 파격으로서 넘나들었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그리기 위한 추모 행사들이 그의 10주기를 맞아 잇달아 열린다.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는 진혼굿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를 행하는 백남준의 모습.

사진제공=갤러리 현대

온라인 라이브로 추모식을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10주기 추모행사 '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을 연다. 다소 생경한 행사명은 백남준의 작품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고인의 기일인 1월 29일 오후 2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백남준아트센터, 고인의 유분(遺粉)이 안치된 서울 봉은사, 추모 퍼포먼스를 벌일 박승원 작가의 고양 스튜디오를 연결해 추모식을 진행한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Z64ZEqvoeNc)로 볼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온라인 추모식을 시작으로 하여, 백남준의 대표적인 싱글채널 작품과 사운드 아트와 디제잉 퍼포먼스를 프로그래밍해 쉼 없이 내보낼 계획이다. 실제, 13편이 넘는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를 상영하며 전형산, 서민우, 최준용, 테잎에잎(tapeape), 하임(haihm), 파펑크(PARPUNK), 디그루(Dguru) 등이 참가해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은 레이저의 고주파를 이용해 수천 개의 크고 작은 TV 방송국이 생겨나 독점적 상업방송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다"며 "미디어를 활용한 백남준의 뜻을 기리며 시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전세계에서 그의 추모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트센터는 오는 3월 3일 10주기 특별전 '다중시간'을 개막하고 10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간송문화재단과 공동 기획전을 마련한다.

세미나와 추모 전시 열려

갤러리 현대는 백남준 10주기를 맞아 생전에 고인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모습과 주요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 '백남준, 서울에서'를 1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에 남은 주요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990년 여름 백남준이 평생의 친구였던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며 갤러리 현대 뒷마당에서 행한 진혼굿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와 관련된 오브제, 기록이 26년 만에 공개된다.

갤러리 현대 측은 "1988년 9월 14일, 백남준의 한국 최초 개인전을 개최한 갤러리현대는 이후에도 고인의 위대한 예술세계와 정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하여 고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백남준문화재단은 1월 27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백남준 테크니스트 3인에게 듣는다: 백남준 비디오 조각 보존과 뉴미디어 아트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정성, 미국 출신 마크 파스팔, 폴 개린 등 백남준과 함께한 3명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02)2287-35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탁본 진수·고려 불교 문화 만나볼까

새해 가볼만한 상설전 2곳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 · 광흥사 월인석보
2가지 테마전 8월 1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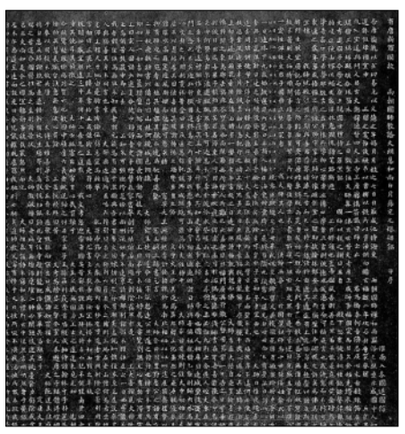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발해실 · 고려실 新단장 공개
철조 아미타불 등 700점 선봬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2실.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고려 1실에 전시되는 철조 아미타불상.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탁본.



광흥사에서 복장물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보존 처리를 끝내고 대중에게 첫 공개된다.

주요 국립, 불교박물관이 신년을 맞아 전시실을 정비하고 상설전에 들어간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과의 공동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을 열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발해실과 고려실을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2016년 상설전을 '2016 금석문 탁본전-경상북도 II'와 '안동 광흥사와 월인석보' 두 가지 테마로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금석문 탁본전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금석문 탁본조사사업' 과정에서 채탁한 탁본들이다. 전시된 탁본은 지난해 경상북도 중요 금석문 60점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13점을 선별, 전통방식으로 표구한 것이다.

또한 이들 탁본은 국내 최고 금석문 탁본 전문가인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한국 금석문의 높은 예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보 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郎慧和尙白月葆光塔碑)'의 탁본이다. 890년 무렵 제작된 낭혜화상탑비는 높이가 486cm에 달하며 최치원이 비문을 지은 통일신라 시대 최대의 금석문이다. 흥선 스님은 이 탑비를 직접 탁본해 풍화된 하단부를 제외하면 5120여 자가 모두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채탁했다.

두 번째 전시실에서 '안동 광흥사와 월인석보'는 지난 2013년 안동 광흥사 명부전 시왕상 발견된 복장물들이 전시된다. 이중에는 복장물로 발견된 〈월인석보〉가 보존처리를 끝내고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광흥사서 발견된 〈월인석보〉는 총 4권으로 7권, 8권, 21권 등 487장이다. 이 가운데 21권은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이 없어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월인석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6개월 간의 보존처리작업을 통해 원형을 유지토록 조치했다. (02)2011-196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신년을 맞아 상설전시관인 발해실과 고려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철조 아미타불상을 비롯해 770점이 전시되며, 이중 230점은 처음 공개되는 문화재들이다.

발해실은 남북국시대의 한 축이었던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로 발해 왕조의 정통성, 발해의 수도 · 왕권 · 통치, 해동성국 발해와 주변 세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고려실은 시기를 기준으로 두 실로 구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신정권 이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려 2실이다.

고려 2실은 무신정권 이후 몽골과 원의 간섭에 따른 사회적 변화, 불교신앙과 불교미술, 고려 말 새로운 왕조 건국의 여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불교미술품인 수월관음도 2점(보물 926호, 보물 1126호)을 대여해서 오는 1월 31일까지 전시한다. 전시의 마지막에서는 조선 건국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성계 발원 사리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고려 1실은 화려했던 고려의 수도 개경문화와 뚜렷한 지역색을 가졌던 지방 문화를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려시대 다양한 계층의 일상생활을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발해실과 고려실 개편 전시로 일반 관람객들이 향상된 전시 환경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필묵으로 그려낸 禪의 향취

서예가 南靑 임성순, 부산 · 김해서 선서화전

작가 특유 필체 담은
병풍 · 서화 123점 전시

서예를 통해 불교의 선문화를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진 남청(南靑) 임성순의 선서화전이 부산과 김해에서 잇달아 열린다.

1차 전시는 1월30일부터 2월 5일까지 부산 코모도 호텔 2층 희락정에서 열리며 2차 전시는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김해 신흥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임성순 서예가의 선화를 담은 전시 작품과 40여년 동안 매진해 새롭게 창작한 서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총 123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금강경〉, 〈원각경〉 등 경전을 사경한 병풍 19점부터 선화, 임성순 서예가만의 독특한 서체로 써내려 간 경구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보여진다.

임성순 서예가는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서예를 접했고, 부산의 동진 하명규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배웠다. 임성순 서예가는 2002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은 입학하고, 선문화를 전공하면서 서예를 통해 불교의 선문화를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은 스님들을 뵙고 불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서예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서예를 '서도(書道)'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면서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라 여기며 작품 활동 또한 수행"이라고 밝혔다.



임성순 서예가의 작품 '광명진언'

이어 "평생 틈틈이 작품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것 가운데 한번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했다"면서 "동국대 재학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양지 스님(김해 신흥사 주지)의 책의 제목을 직접 써서 알렸던 것이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시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김해 신흥사 불사 기금으로 사용된다. 010-3856-9852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 12cm × 세로 5.7cm × 두께 2.5cm)+4GB불경SD카드+1200AM베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3~2015.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틸텐최된	불광출판사
3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4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5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6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법명해설사전	조계종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하려면?… 오늘 하루만 위해 살자"

좋아좋아

승한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3800원





저자, "우주가 우리에게 준 말 '좋아 좋아!' "
좋은 말에는 그것이 지닌 파동과 기운 있어
독자에게 발송한 불교방송 문자 편지 묶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좋아 좋아!"라고 되뇌어 보세요. 좋은 말이 지닌 기운과 파동을 느껴보세요. "좋아!"라고 말하면 좋아진다는 이 단순함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말은 긍정이 아닙니다. 자기계발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치료입니다. 우주가 준 말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들을 잊고 산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와 일하고, 돈 벌고, 음식 먹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다 보니 삶에 쫓겨 행복을 느낄 시간조차 부족하다. 각박한 세상살이, 밥벌이에 지치고, 관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따뜻한 응원의 말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승한 스님〈사진〉이 BBS불교방송 문자서비스를 통해, 매일 아침 독자들에게 보낸 〈행복을 여는 힐링편지〉를 묶은 것이다. 승한 스님은 출가 전, 알코올중독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자살시도도 수차례 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준 것은 "좋아 좋아"라는 사소한 말이었다. 자신을 어둠 속에서 탈출시켜준 긍정의 말들은 어쩌면 흔하고 당연하지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스님 말대로라면 어렵고 힘이 들수록, "좋아"라 말하면 정말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날수록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말에 따라 인생과 생각이 달라진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문학승인 승한 스님은 자신이 직접 겪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은 긍정의 말들을 책 속에 담았다. 이토록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살기 힘든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글 속에 녹여놓았다.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승한 스님이 전하는 삶을 위한 문장들은 큰 위로가 된다.

사람들은 이미 된 것보다 안 된 것에 더 집중한다.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 우리는 이미 '된 것'을 세지 않고 '안 된 것'을 세며 초조해할까?

승한 스님은 인생을 벽돌쌓기에 비유했다. 터파기 없이는 벽돌 쌓기를 시작할 수 없고, 아래부터 쌓지 않고 맨 위층부터 쌓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한다. 벽돌을 힘들여 차곡차곡 쌓다보면 실수한 것도 생긴다. 사람들은 멋지게 잘 쌓아올린 벽돌을 보며 기뻐하는 대신 잘못 쌓은 벽돌 한두 개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한다. 이 마음과 시선의 차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든다.

저자인 승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아주 간단한 인생 처방전을 소개한다. 자꾸 남과 비교하며 쫓기듯 사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이 직접 겪은 힘든 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에 도달했는지, 또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워졌는지 전한다. 결론은 이미 된 것을 세며 살라 말하고, 끊임없이 긍정의 말을 하라고 당부한다.

좋은 말에는 그것이 지닌 기운과 파동이 있다는 것이다. "좋아!"라고 말하면 좋아진다는 이 단순함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진짜 좋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편해질 수 있다. 너무 식상해진 말이지만, 의미를 담아 마음을 담아 되뇌다보면 말의 힘이 느껴진다. 어렵고 힘들수록 "좋아"라고 말하고, 밉고 화가 날수록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 말처럼, 그 생각처럼 결국 좋아질 것이다. 모두 괜찮아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일까요? '생각'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역시 '생각'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도 생각이고 가장 큰 은혜도 생각이라니! 그게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생각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1년, 365일, 8760시간, 525,600초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 해보는 것이다."라고.

승한 스님은 이 책에서 말과 생각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좋아"라는 긍정의 말이 인생을 바꾸었듯, '오늘 하루만' 이라는 생각이 또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오늘 하루만 계획했던 일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만 화내지 말고, 오늘 하루만 고민했던 일에 용기를 내보라고 말한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오늘 하루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 하루만 용기를 내는 것도 당연히 해볼 만하다. 그렇다면 내일은 되는 대로, 살아지는 대로 막 살아도 될까? 승한 스님은 말한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라고. 결국 오늘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된다고 말이다. 결국 인생도 마음먹기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사는 것. 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진리들이 때론 인생을 변화시킨다.

아무리 좋은 말과 생각도 의식하지 않고, 쉽게 지나치고, 생각 없이 내뱉고, 습관처럼 행동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승한 스님은 사소한 칫솔질도 의식적으로 하고, 숟가락질을 하고, 전철을 타고, 계단을 오르라고 말한다. 현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그렇게 긍정적인 "좋아"를 외치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살다보면 팍팍하고 퍽퍽한 이 삶이 조금은 쉽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동시가 각각 당선됐으며, 저서로는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등 몇 권의 산문집과 시집, 동화책이 있다. 경기도 가평 대원사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했으며, 현재는 북한산 중흥사에 상주하고 있다.

"佛家의 '화쟁'은 이 사회의 안개등 … 반목과 갈등 풀 수 있는 해법"

둘다 사는길 화쟁

임명배 지음 | 집사재 펴냄 | 1만 5천원



"네 발 밑을 살펴라(照顧脚下, 조고각하)! 즉, 발밑을 비추어 살피는 안개등이 필요하단 말씀이시다. 오늘날 불가의 '화쟁'이 그 안개등이 된다. (중략) 이때 화쟁은 민주주의이다. (중략) 이때 화쟁은 인권이 된다. (중략) 이때 화쟁은 평화가 된다. 그리하여 화쟁으로 나 자신과, 민주, 인권, 평화가 단박에 하나가 되는 순간 그 화쟁은 적적한 고요 속의 해탈이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직능조직부위원장,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 집행위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저자는 신심 깊은 불자이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꾼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해 저자가 근무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환골탈태시킨 경험을 토대로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펴냈다.

특히 저자는 다사다난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는 답은 부처님의 법에 내재된 믿음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중 저자가 제일로 꼽는 가르침은 화쟁사상이다.

즉,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늘 우리가 겪는 온갖 복잡다단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자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화쟁은 마음의 독수리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광대무변한 우리 마음이 독수리 모양으로 둔갑했을 때, 갖가지 화쟁이 말발굽 아래 먼지 일 듯 세상에 드러나고 번쩍인다는 것이다. 아득한 절벽 위에 앉아 아래의 만물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눈, 핵심을 향해 쏜살같이 내리꽂는 솔개의 몸짓, 저 푸른 하늘을 유유히 나는 매의 날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화쟁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화쟁 탄생의 배경인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취의 몇 가지 단편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오늘날 숱한 반목과 갈등을 풀어가는 말머리로 삼고 있다. 그것이 서문부터 시작된 제 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다.

2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실체를 화쟁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화쟁은 진실을 드러내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는 마음 작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실이란 사실과 다른 것인데, 사실 중에 왜곡의 제거 상태가 진실이란 것이다. 우리는 공명정대함 위에다 언제나 현재의 진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긴급하고 근원적인 화쟁과제인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북한 김일성의 비밀교시, 분단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외적 이해(스탈린의 정체), 분단현실에 대한 이해(이산가족찾기), 분단의 상처(제주 4.3과 이덕구) 등에 관한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분단 극복에 있어 대한민국 및 그 공공기관이 해야 할 화쟁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이어 제 3장에서는 다시 화쟁으로 돌아와, 원효 화쟁사상의 깊은 뜻을 현대적으로 재음미해 분단 극복에 필요한 각 단위의 기관 및 개인의 화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화쟁역량을 현실의 대한민국 및 공공기관에 적용해 14가지 화쟁 과제를 도출해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한다.

우리는 무릇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 무한경쟁 시대에 일상적으로 타국의 우수한 분야와 경쟁을 해야 하고 또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원효의 화쟁사상 현대적으로 재해석
14가지 화쟁 과제도출, 아젠다로 제시

바, 그에 걸맞는 각자의 시대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며 그 실행 방안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씩 엄숙히 행동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절망감에 기댄 반사이익이나, 허상에 미혹되기 쉬운 대중 심리에 기댄 언론플레이성 정쟁놀음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문제해결능력 내지 정책생산능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세계의 공공기관과 어깨를 겨루어야 할 것이며, 그 내부의 관리기구나 노조 역시 세계 유수의 관리기구들이나 노조 및 단체들과 앞을 다투어나가야 하는 태세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316개('15년 현재) 공공기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경쟁력), 장차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비전), 그럼에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혹은 최대한의 현실 가능한 역할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전략),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에서부터 그 역할을 시작할 것인가, 나아가 대한민국 316개 공공기관을 둘러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어떠한가를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고대 불교 석굴 인도 뭄바이서 발견

인도 학계 "기원전 1세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



인도 뭄바이 시(市) 북쪽 외곽에 있는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Sanjay Gandhi National Park)에서 승려들이 몬순기후를 피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 7개가 발견됐다.

사진출처=The Times of India

불교 고승들이 수행 하던 석굴이 인도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 영자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월 17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시(市) 북쪽 외곽에 있는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Sanjay Gandhi National Park)에서 승려들이 몬순기후를 피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 7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학계는 발견된 석굴들이 인도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칸헤리(Kanheri) 석굴'보다 더 이른 시기인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5~6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칸헤리 석굴사원은 서인도 최대 석굴 불교사원으로 뭄바이 북쪽 간디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 2~8세기에 조성된 109개의 석굴에는 불상을 비롯한 조각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석가모니 입상과 불탑 등이 뛰어나다.

발견된 7개의 석굴은 칸헤리 석굴사원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

이번 발굴은 뭄바이 대학교 고고학센터와 사타예대학 고대인도문화학과에 소속된 연구원 3명이 한 팀을 이뤄 실시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수라이 판디트 사타예대학 고대인도문화학과장은 "새로 발견된 석굴은 인접한 칸헤리 석굴보다 오래되고, 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칸헤리 석굴은 물을 저장하는 물웅덩이가 발견됐던 것에 비해 이 석굴에선 물웅덩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당시 승려들이 비가 많이 오던 몬순기후에서 생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석굴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널리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 도구들도 발견됐으며, 한 곳엔 스투파 위에 난간으로 둘러싼 사각형 구조물인 하르미카(harmika)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판디트는 이번 발굴이 체계적 조사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은 발굴된 석굴 대부분이 수원지(水源池)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 3개월간 발굴지역 지형과 수(水)자원 등을 조사했다"며 "또한 인도 동부 비하르주(州)에 있는 불교성지인 라지기르(Rajgir)의 석굴에서 생활한 승려에 대해 묘사한 빨리어 원문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인도 최대 '칸헤리 석굴' 근처
승려들, 몬순기후 피해 생활 추정
스투파 '하르미카' 형상 잔존
"유물 보존 중요성 깨닫길"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으로부터 조사 허가를 받은 조사단은 2명의 보안원과 함께 2015년 2월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승려들이 수원지 주변에 형성된 석굴에서 생활한 것에 착안, 칸헤리 석굴 넘어 있는 폭포를 따라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20여분 도보 후, 울창한 선인장과 관목(灌木)숲을 지나 30분 정도 걷자 폭포에 도달했다.

판디트는 "폭포가 있는 쪽으로 따라가보니 석굴이 5개가 보였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된 입구와 문기둥, 잘 수 있도록 마련된 돌 받침 등을 볼 때 이 석굴은 인간이 바위를 석굴로 활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석굴을 발견한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추가 석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가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탐사 도중 판디트가 가파른 경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디트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인 비나약 파라브 마라티매거진 편집장과 아카시 파와르 사타예대 불교학과 교수가 조사를 시작해 나머지 2개 석굴을 찾아냈다"며 "그 중 하나는 현대적 욕실타일이 장식돼 있었으며, 1990년대 봄베이 고등법원이 국립공원 안에 사는 힌두교 은둔 수행자들을 추방할 때까지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디트는 칸헤리 석굴 주제 박사논문을 썼으며, 지금도 뭄바이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01~2002년 그는 6개의 석굴을 발견해 국립 인도 고고학 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에 보고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돌에 관한 이야기(Stories in Stone)〉란 저서를 통해 뭄바이에 있는 다양한 석굴을 소개했다.

인도 학계는 이번 석굴 발견으로 사람들이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깨닫길 기대하고 있다. 뭄바이 대학 벽화연구 센터 소장인 무그다 카르닉은 "칸헤리 석굴사원은 방문객들에게 그저 일상의 단조로움서 벗어나 머리를 식혀주는 장소로만 여겨진다"면서 "도시 주변에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유물과 유적들이 많지만 훼손위험에 처해있다. 이번 발굴로 인도인들이 문화보존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5천년 불교유적 '폭탄' 속 사라지나

카템퀸 필름, '메스아이낙' 구하기 전 세계 동참 '호소'





메스아이낙(Mes Aynak)은 50만 평 규모에서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 천개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은 발굴 중인 유물들.

본지에 '메스아이낙' 현황 제보
中광산개발로 파괴 위험 처해
아프간 지역 IS 위협도 도사려
청원운동 · 다큐멘터리 등 노력

카템퀸 필름(Kartemquin Films)이 파괴 위험에 처한 5000년 불교유적 '메스아이낙(Mes Aynak)'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인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아프가니스탄 로가(Logar)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이 중국 정부의 구리광산 개발로 5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아프간 정부는 2007년 메스아이낙 아래 잠재된 100조 이상 가치 구리광산 채굴권과 함께 유적지 전체를 중국 광산회사(MCC)에 팔았다. **〈본지 1043호 18면 보도 참조(2015.05.07)〉**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전문 카템퀸 필름이 본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 비난여론을 의식한 중국 정부가 2013년 "1년 간 구리광산 채굴작업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간마저 종료돼 언제 다시 구리 채굴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진귀한 불상과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단 10%만 발굴된 상태다. 아프간 고고학자들은 탈레반 세력들의 위협과 구리채굴을 위해 메스아이낙을 폭파시키려는 중국 정부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을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인의 동참을 간청했다.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지운동을 시작한다"며 "후손들에게 메스아이낙을 안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메스아이낙을 구하라(Saving Mesaynak)' 상영요청 △1만 명 서명운동 △유네스코 청원운동 △발굴단을 위한 기부 등 동참 방법을 제시했다. 참여방법 아래 참조.

현재 메스아이낙에선 중국 광산 회사가 언제 다시 구리 채굴작업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려는 고고학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발굴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화학약품 등 기본적 자원도 없이 발굴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메스아이낙을 구하라'를 제작한 브렌트 허프만(Brent Huffman) 감독은 "지뢰 위험은 물론 탈레반에게 납치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 세계에 메스아이낙 이야기를 알려야겠단 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전 세계의 지지와 관심으로 메스아이낙을 구하고, 우리 인류가 물질문명보다 역사적 가치를 우선으로 뒀단 중요한 선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메스아이낙은 50만 평 규모로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 천개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브렌트 허프만 감독은 메스아이낙을 구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카템퀸 필름사와 협력해 전 세계 관심을 촉구해 왔다. 박아름 기자

- 다큐멘터리 상영요청 http://www.savingmesaynak.com/requestascreening/
- 1만 명 서명운동 https://www.change.org/p/president-ashraf-ghani-ahmadzai-prevent-destruction-of-ancient-site-of-mes-aynak-the-environmental-damage
- 유네스코 청원운동 http://whc.unesco.org/en/world-heritage-centre/
- 직접 기부 http://www.savingmesaynak.com/donate/

사찰표시 '卍' 나치로 오해… '삭제' VS '변경반대'

올림픽 개최 앞두고 일본 지도 바꾸기 고심 중 '논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도 변경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불교사찰을 상징하던 만(卍)자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다른 표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온라인 매체 '재팬투데이'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1월 19일(현지시간) "일본 지리조사연구원(GSI)은 불교사찰을 뜻하는 만(卍)자가 나치의 상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용 지도에서 삭제하고 대신 3층 탑 그림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GSI는 최근 관광 명소인 도쿄 아사쿠사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들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넣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I는 "일본 지도에서 호텔을 뜻하는 'H' 표기를 외국인들은 병원(Hospital)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침대모양으로, 우체국을 뜻하는 '〒'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봉투모양 픽토그램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불교사찰도 3층탑 그림으로 대체할 것이다. 1천명 이상의 관광객, 대사관 관계자,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卍)자가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돼 역사적으로 나치보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마코토 와타나베 (훗카이도 분교대) 교수는 "우리는 만(卍)자를 나치에서 사용하기 훨씬 전인 수 천 년 전부터 사용했다. 지도에서 만자를 그대로 두는 대신 '만'의 참 뜻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치'라는 트위터(Twitter) 사용자도 "사람들이 卍자를 나치 상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상징으로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교육과 이해 작업 없이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지도를 바꾸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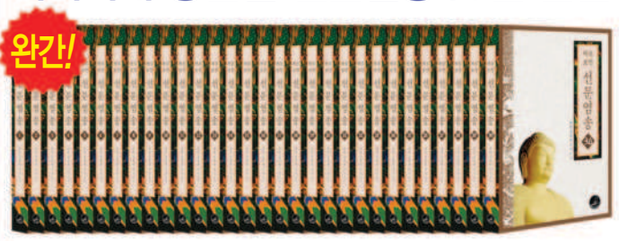


오랫동안 불교사찰을 상징하던 만(卍)자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다른 표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재팬투데이

이보형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세계최대 공안집 선문염송30권 완간



세계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이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화제의 신간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 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教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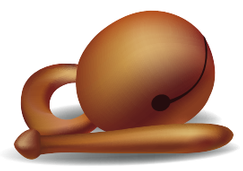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건강태극권수련
출장지도가능
20년수련
사주, 풍수
031-591-9023
보현수련원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010-8916-040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50-60세)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010-9340-39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인천 지역)
010-8961-54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내 태고사)
02-384-5589
010-4526-0065 총무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종교부지
환영합니다
경기지역 3000평이상
종교부지 소유자 환영
(불사동참) 하겠습니다.
010-8961-5498
소승 합장

기치료,기마사지
전국 수도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
정진 중 생긴 몸의 이상 변
화나 기혈의 막힘. 갖가지
질병 등을 치유해 드립니다.
010-8227-3627
(경북 성주군 수륜면 위치)

신통력을 전수
스님에게만 은밀하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5121-33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재가자들이 결집하여 호법신장의
포효로써 우리 불자들을 보호합시다
용주사 폭력종식법회
2016년 1월 24일(일요일) 오후 12시
용주사 앞

최근 용주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좌의 공양간 폭행사건, 용주사 주지의 매제의 방화 미수와, 폭행 치상사건, 용주사 주지와 이해를 같이하는 원주민 대책위의 신도 폭행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무원의 방임과 직무유기 속에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용주사 주지와 그를 비호하는 이들에게 재가자들이 결집하여 호법신장의 포효로써 우리 불자들을 보호합시다.

■ 주최 :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 후원 : 용주사 신도비대위

폭력종식법회 – 2월 22일(월) 오전 10시
용주사 앞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 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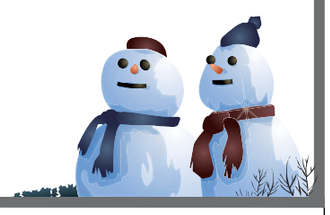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깊이 인연을 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 장아함경 -



사 찰 안 내

▶ 넓은 터전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목조 산신각, 요사채(5동), 계곡물 철철 흐름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010-3560-8522

▶ 시원하게 탁트인 멋진 조망권◀
- 위치 : 거제 도심지(롯데APT, 버스종점 인근)
- 총부지 : 약 400평 남향 주차, 사진
- 건물 : 법당 25여평, 요사채 50여평 기타3동
- 가액 : 협의조정 종교단체 양도
- **전, 월세 임대 가능 비밀보장**

직통 010-9906-3631 혜관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계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원주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기와법당 50㎡ 요사채 80㎡
- 창고 20㎡, 토지 760㎡
- 위치 : 원주 IC에서 7분거리
- 저수지부근 마을 뒷편 사찰
- 가액 : 2억 2천만원
- 조정가능함(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100평 ◎ 대지: 1300평
◎ 법당: 30평 ◎ 법당: 50평
◎ 요사: 60평 ◎ 요사: 100평
◎ 양도: 17억 5천 ◎ 양도: 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IC부근 목조사찰
- 토지 730㎡, 주차장별도로 있음
- 목조법당 65㎡, 목조요사 130㎡
- 노천불 산신각
- 원주시 근접거리, 교통편리함
- 가액 : 5억5천만원(융자2억 포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281㎡(외 국유지 있음)
- 법당, 산신전, 약사여래불
- 방3, 공양간, 주차가능
- 정원과 텃밭
- 등산로 입구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4억

금호부동산 연산가 -13-1645(이찬수)
부산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51)861-2233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약 42, 건평20
- 법당(상단, 신중, 산신 용왕 등)
-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뒷산, 동남향,기도처
- 집기일체 시설포함 (몸만 오시면 됨)
- 몽땅 7천백만원

연락처 010-8503-6000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욕실, 방1, 창고, 에어콘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880-15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김해
- 평수 248평
- 법당23평.요사채.방가루
- 마당잔디.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163번지
- 대지 466㎡
- 아미타삼존불
- 공양간, 방3개
- 가액 : 9천만원

010-3697-352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신중,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염등 30개, 가족염등 210개, 영가염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조정가능)

010-4646-3638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건강상 급양도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총가액: 19억

010-9567-0813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포교원(급)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75평 (만불사 인근 2차선도로)
- 가옥건물 건평 15평 (마당 활용가능)
- 포교당 및 사찰용도로 적합함
- 최근 리모딩 했음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 가액: 1억 5천만원

010-5277-025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건 물 안 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93
- 정남향집(급) 단층 슬라브
- 대지 41동, 건평 19평
- 방큰방 1, 작은방 3개
- 가액: 은행 3천만원 안고 6천 800만원
- 비구니 스님에게 좋은집

주인직 : 051-852-1810
010-3598-5470

사 찰 안 내

도심속 현대식 건물 사찰

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

- 가액 : 13억

010-3860-1228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 건물 중 3층
- 법당 27평,삼존불,집무실,방
- 주차 20대가능
- 몸 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3502-261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20-1
- 대지 : 104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허가유 2층 법당, 신당 무허
- 법당 : 2층 약 30평 법당 삼존불 모심 20평, 신당 10평
- 요사채: 1층 약 35평
- 가액 : 약 4억

010-2575-3089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102평,건물 콘크리트,
- 1층 32평, 2층 15평(법당)
- 구조 방4개, 주방, 욕실, 다용도실
- 심야보일러, 삼존불 외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9천만원

010-8577-3779

탈 종 공 고

- 법명 : 태산 (속명 : 김태오)
- 승려증 번호 : 10-586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빠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사주명리 왕초보 탈출 무료강의

결코 쉽지 않은 명리학 공부를 쉽고 빠르게 왕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보시함으로써 명리학의 대중화에 기어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기간 : 4주간 - 2016년 2월 3일, 17일, 24일, 3월 2일 (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 2시 ~ 오후 5시 (3시간)
■ 강 사 : 심전 정병문 교수 -『핵심 사주명리학』 저자 직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서울시 27년 근무.
21세기 밝은 내일 만들기 연구소장(현). 심전 역술연구원장(현).
■ 수 강 료 : 무 료
■ 강의안내 : 사주명리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명쾌한 강의!
인생의 길흉화복에 각자의 이정표를 찍으며 갈 수 있다면?
음양오행이 천간과 지지로 분화되는 원리!
사주풀이에 공식은 있는가?
역학심리상담 접근법 해설!
■ 장 소 :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제 101 강의실**

1 2016학년도 1학기『핵심사주명리학』수강생 모집
2016. 3. 9(수요일) 14:00 ~ 17:00부터 매주 수요일 16주 강의
기초 튼튼에서 부터 통변까지 (육친, 용신과 격국, 자연법)
수강료 4개월 16주 강의 - 30만원
강사 - 심전 정병문교수

2『기초튼튼반 동영상 강좌』cafe 안내
cafe. daum.net/simjeonsaju cafe. naver.com/simjeonsaju

강의 문의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 02)3668-9890, 9871, 9872
심전 정병문교수 : 010-4714-6767

오시는 길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성북동)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1111, 2112번 버스로 학교앞 하차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8〉 7주차: 외로울수록 더 아프다

내 안의 따뜻함, 밖으로 전하다

로세토 효과(Roseto Effect)

펜실베이니아의 로세토는 미국의 여느 소도시들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거리 양쪽에 벽돌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코너를 돌 때마다 밝은 불은색의 급수 파이프가 보인다. 머리 위에서는 교통 신호등이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가장 흔한 사망 원인도 다른 곳과 똑같다. 하지만 늘 이랬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로세토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 이에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은 로세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한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이 도시의 모든 측면을 하나하나 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선진국을 휩쓸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문제 중 상당수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1964년 〈미국 의학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처음 로세토의 사망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오클라호마대학교 의과대학의 학과장인 스튜어트 울프(Stewart Wolf) 박사가 이끄는 연구자들은 45세 이하 로세토 사람들의 경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0'이란 것을 알아냈다. 이 수치는 '킬링 필드(killing fields)'로 불리는 장년기 남성에서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미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로세토 근처의 다른 도시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가 유전적 기원이나 다른 신체적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관습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필터가 없는 담배를 피웠고, 남성과 여성 모두 특별히 절제하는 일 없이 술을 마셨다. 로세토 사람 중에는 이탈리아 출신이 많았지만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몸에 안 좋은 돼지기름으로 대체한지도 이미 오래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미트볼과 소시지를 돼지기름에 튀겨먹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지방이 많은 치즈와 살라미 소시지도 엄청 많이 먹었다. 그들의 직업 역시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산업재해 독성이 강한 분진과 매연으로 악명 높은 근처의 점판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로세토 사람들의 사망률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야 이치에 맞았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지 통계가 있었다. 우선 범죄율이 '0'이었다. 그리고 복지 혜택 신청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로세토 효과(Roseto Effect)'의 이유가 끈끈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강력한 공동체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이 확인한 다른 요소로는 낮은 소득격차, 돈이 많다고 해서 과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문화, 능동적으로 소비문화를 피한 것 등이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지고 나니 금연과 정기적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 방식만큼이나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로세토 주민들이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전통적 문화를 버리고 선진국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고립감에서 유대감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식과 친절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 어떤 생각, 느낌, 감각이 흐르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과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닌 '반응'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받아들임과 연민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느껴 보았으며,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단순한 즐거움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결정적으로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따듯함과 친절로 가득 채우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듯 자신을 대하는 법도 배웠다.

이번 주에는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연민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자신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타인, 이상적으로는 그 너머까지도 포함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로세토 효과를 실천에 옮겨보는 것이다. 유대감 명상은 당신에게 사랑, 친절, 사회적 유대감의 느낌을 발전시키고, 그 느낌들을 외부로 더 넓혀 가도록 이끈다. 처음에 아무리 고립된 느낌이 든다 해도, 이 명상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완벽하고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반사' 아닌 '반응' 하게 도와
애인 대하듯 자신도 대하게 해
연민 '유대감' 통해 외부로 확장
'열린 마음' 갖는 것 선행돼야

앞선 주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 번 각각 10분씩 명상을 한다. 이왕이면 열림 마음 명상을 아침에 하고, 유대감 명상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유대감 명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추가적으로 열린 마음 명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인을 포용하기 위해 친절함을 밖으로 넓혀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명상 경력도 쌓여 가고 있으니, 욕심이 난다면 음성 트랙의 안내 없이 혼자서 자유롭게 명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을 한 마디 전한다. 자신의 삶이 온갖 문제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따듯한 마음과 연민을 타인에게 확장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증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다 보면 극단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또한 스트레스의 또 다른 증상이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이 증상은 점차 진짜가 되어 간다. 신체적 고통이 실제로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주의 습관 해방시키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런 성향을 역전시킬 구체적인 단계를 밟도록 권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해도 고립되고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면, 처음에는 유대감 명상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작은 보폭으로 앞으로 나가자. 서두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언제 나처럼 명상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누가 나서서 점수를 매기는 일도 없고, 당신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당장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 보자. 명상의 즐거운 부수 효과 중 하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외로움을 덜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좋다. 당신이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당신은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조심스럽게 바닥에 발을 디딘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명상에도 이와 비슷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저 타인을 향한 따듯한 마음과 연민이라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대륙판처럼 천천히, 친절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당신의 삶을 바꿔 줄 아주 강력한 명상이다.

채플 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출신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사랑-친절함에 기반을 둔 명상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연구해 왔다. 유대감 명상도 그중 하나다. 그녀의 연구팀은 이런 명상법들이 만성 통증과 괴로움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특히나 강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향해 마음을 열면 자신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줄 성장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유대감 명상에 있어서 다른 명상들보다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완벽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들라면, 그저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따듯한 생각과 느낌을 그들에게 넓히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무리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유대감 명상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염려 중 하나는 혹시 이 명상이 자신을 너무 나약하고 무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몇 달이나 몇 년씩 통증이나 질병, 스트레스와 싸워 온 사람은 보통 자기 주변으로 방어벽을 쌓아 올리게 된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만 해도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마당에 어찌 마음이 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입장도 분명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괴로움을 버텨 내려면 어느 정도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훨씬 요령 있게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조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이런 걱정을 품고 있었다. 그의 걱정은 유대감 명상을 하면서 곪아 터질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친절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데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타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서 멈칫거리게 되었다.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꾼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특히나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 마음은 너무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것이 아닐까?' 조는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 한데 이 명상이 혹시나 자기를 너무 차분한 사람으로, 더 솔직히 표현하면 따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반응'이 아닌 '반사'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있는 것이 통증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신이 살아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다. 어쨌거든 그는 수련을 계속 이어 나갔다. 얼마 후 그는 통증과 즐거움을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통증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 주었고, 그는 표면 바로 아래에 어떤 즐거움의 요소가 함께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이겨야할 적대적인 상대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여행하는 동료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훨씬 더 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로운 변화들이 뿌리를 내리자 조는 노숙자들을 돕는 자선 가게에서 자원봉사에 나섰다. 그는 그 일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발상 자체를 싫어했다. 하지만 마음챙김 강사의 충고를 따르기로 마음먹고서 자신의 지역공동체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그는 따듯함과 열린 마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 모아 자원봉사 활동에 착수했다. 그는 강사의 말을 기억했다. "자기 마음이 타인을 위한 따듯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자 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상적인 첫인상만 가지고 그들을 피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계시였다.

"어떤 때는 그냥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까지 싫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게 같은 데서 일한다면 이런 태도는 분명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며칠 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번에 겨우 1밀리미터씩밖에 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배종훈의 **명상카툰**



적멸의 순간

저녁 예불시간, 스님의 독경이 끝나자 죽비소리에 맞춰 모두 참선에 든다.

적막과 적멸의 순간.

겨울바람에 법당의 목재들이 내는 삐걱삐걱, 두런두런, 들썩들썩 소리도 이 순간 모두 숨을 죽인다.

마음이 혼란스러운지 집중이 되질 않는다. 세상에서 나 혼자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았다. 고요한 공간에 유리구슬 한 통을 쏟아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분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느껴야하는 외로움을 다시 마주쳤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고 즐겨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 다시 느긋하게 즐겨야 할 시간이다.



배종훈 작가는…
〈내 마음의 죽비소리〉〈자네 밥은 먹었는가?〉 등 작품집을 발간한 바 있다. 2013년 제15회 단원미술대전, 2013년 제2회 구상 공모전서 입상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천 개의 손 ㊤

"아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는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진호는 아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가 언제부터 눈을 뜰 수 없게 됐는지 진호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겨울이 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아빠의 몸에는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코에 연결된 줄이 아빠에게 산소를 넣어주고, 손등에 연결된 줄이 아빠에게 밥을 주었다. 아빠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래를 뱉는 것도 오줌을 누는 것도 모두 줄이 대신해 주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아빠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지만, 진호의 눈에는 아빠가 그저 잠든 것처럼 보였다. 병자들을 돌봐주시는 향림 스님은 아빠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들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고.

"아빠, 오늘은 마트에 갔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는 맛있는 게 많이 나와. 운이 좋으면 훈제오리나 연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잘 먹고 다녀. 점심은 공원 급식소에서 먹고, 저녁은 병원 식당에서 먹어. 식당에서 심부름을 좀 하면 예쁜 아줌마가 먹을 걸 챙겨주시거든.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물컵을 식기세척기 바구니에 담는 그런 작은 일들 말이야."

잘 먹고 다닌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었다. 진호는 사흘 동안 거의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공원의 무료 급식소는 늘 줄이 길었다. 일찍 나가서 줄을 서보았지만, 진호 앞의 줄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진호 앞에 슬쩍 끼어드는 사람들을 향해 진호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삿대질하거나 욕을 퍼부을 수 없었다. 오늘은 바로 앞에서 급식이 끝났다.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마지막 남은 식판을 받아가며 말했다.

"이것 참, 미안하게 됐구나. 하지만 나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괜찮아요. 난 마트에 갈 거예요. 토요일엔 맛있는 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진호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물비누로 거품을 내서 얼굴과 목을 말끔하게 닦고, 더부룩해진 머리에 물을 발랐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거울을 봤다. 마트에 오면 진호는 조용히 움직였다. 시식코너 한 곳에서 세 개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사실 마트 안에는 진호보다 더 꾀죄죄한 아이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은 데가 있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다급히 마트에서 나왔다. 엄마 없는 아이에게는 어떤 냄새라도 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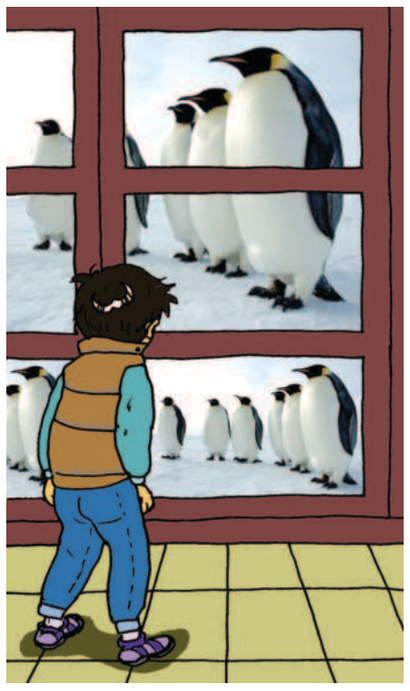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진호는 마트 관리실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시식코너에서 만두를 몇 개인지 계속 집어먹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멀리 계시고, 아빠는 병원에 있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호는 사실대로 말했다. 양복 입은 직원은 시식 코너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고 싸늘하게 말하고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진호는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쳐 나왔고, 다시는 그 마트에 가지 않았다.

"아빠, 내가 마트에서 뭘 봤는지 알아? 황제펭귄. 진열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슴에 노란 털이 나 있어서 황제펭귄인 줄 알았지. 엄청나게 많은 펭귄들이 눈보라 속에 서 있었어. 서로에게 몸을 붙인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지. 펭귄의 발 위에는 알이 놓여 있었어.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은 모두 아빠들이야. 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우려고 황제펭귄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대.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또 위험한 곳이지. 천적이 없는 곳에는 먹이도 없으니까.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먹이를 찾아서 바다로 떠나. 그동안 아빠 펭귄들이 알을 품지. 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딘대. 아빠 펭귄은 알을 놓칠까 봐 제대로 걷지도 못해. 알을 놓치면 알은 금세 얼어 죽어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왔어. 바깥에서 추위에 떨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이동했어. 펭귄들은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추위를 견딘대. 그런데 펭귄 하나가 그만 알을 놓쳐버렸어. 아빠 펭귄이 뒤뚱뒤뚱 알을 쫓아갔지만, 알은 빠른 속도로 데굴데굴 굴러갔어."

어째서 펭귄 같은 것에 한눈을 팔았던 걸까. 양복 입은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펭귄을 좋아하니? 아저씨는 환하고 따듯하게 웃고 있었지만, 진호는 그 친절이 무서웠다. 엄마는 저쪽에 있어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고 재빨리 마트에서 나왔다. 시식 코너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진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말랐다. 병원 식당으로 갔다. 진호에게 음식을 챙겨주던 상냥하고 예쁜 아줌마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 진호가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소독한 수저를 수저통에 옮겨도 진호에게 말을 붙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왜 자꾸 식당에서 알짱거리느냐고,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더부룩한 아저씨가 호통을 쳤다. 진호는 쥐새끼처럼 쪼르르 식당에서 나왔다.

"새끼 펭귄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면 바다로 갔던 엄마 펭귄이 돌아와. 아빠 펭귄은 목소리를 돋워 노래를 부르지. 엄마 펭귄이 아빠 펭귄을 찾을 수 있는 건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래. 엄마 펭귄은 배 속에 있는 물고기를 토해서 새끼에게 먹이지.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새끼를 맡기고 비로소 먹이를 찾으러 떠나.

엄마가 돌아오면 아빠도 노래를 불러줘. 엄마는 아빠의 노래에 마음을 열었으니까. 멀리서도 아빠의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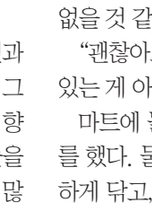
우승미 작가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됐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2009년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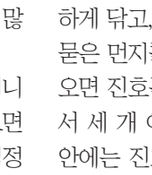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081호 현대불교
2016년 1월 27일(1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극치적으로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그저 안으로 뚫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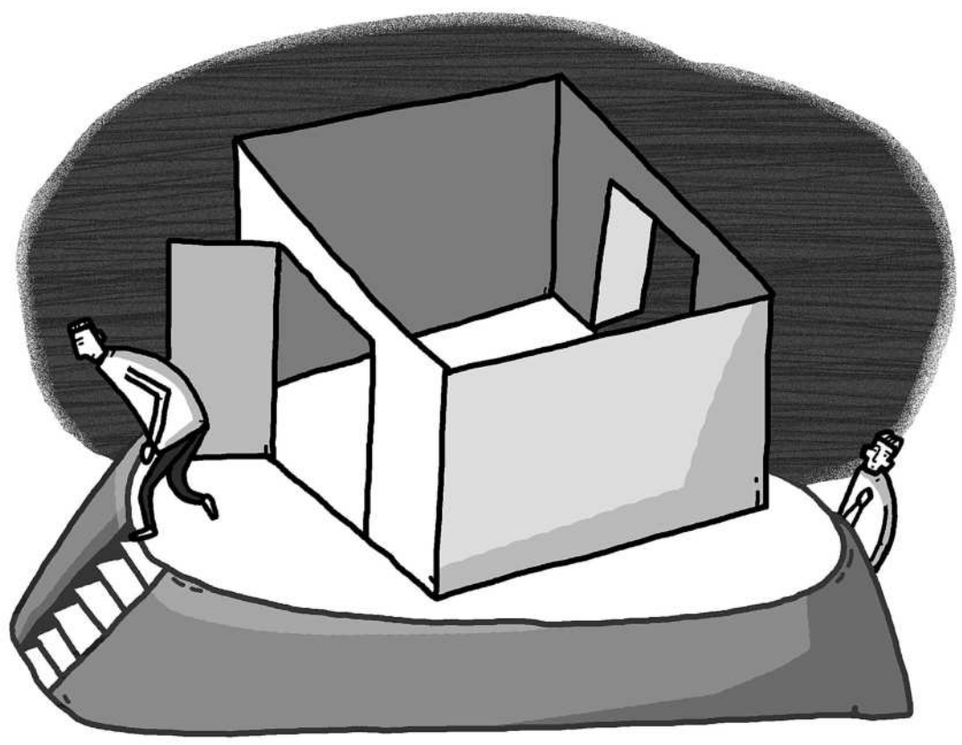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또, 이사 가는 얘깁니다. 어느 집이나 이사를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가는 그 도리를 응용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관습 때문에 '어이구,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 요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그러한 생각은 둘째고 '어이구, 이사를 가야 할 텐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부터 앞서게 되죠. 완벽한 사람들은 또 괜찮고요. 여기 다니면서도 몰래 어디 가서 뭘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그 뭐 토정비결을 안 보나, 어디 가서 점을 안 치나, 관상을 안 보나 허, 이래 가지고야 무엇을 어떻게 뛰어넘는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뛰어넘는 건 '너는 여기 뛰어내리면 죽는다.' 하는 교차로에서 바로 성립이 되는 거지, 무난하게 가는 데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깨침도 그래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할 때 그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하하. 그냥 이 고충에서 아주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으리만큼 격할 때 그때 요절이 나는 거지, 격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데서 뭐가 요절이 납니까? 깨지든지, 그릇이 다른 걸로, 큰 걸로 바뀌든지 할 때 뭐가 되는 거지 아,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극치적으로 아주 그 딱따구리가 뚫듯이 (가슴을 가리키시며) 그저 안으로 뚫어라 이런 거죠.

살림하면서 모든 것을, 울력을 하고 싶지 않아도 '아이고, 울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안 하나. 네가 해 놨으니까 해야지.'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어도 그냥 뚫기 위해서 자꾸자꾸 거기다 넣고 그냥 자꾸 뚫어라 이거야. 그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뚫어지지 않았던 그 찔깃찔깃하게 겹겹이 붙어 있는 그런 거를 뚫으려니까 한꺼번에 그게 뚫려? 그러니까 자꾸 뚫어라 이런 거죠. 뚫는 거는 그 마음의 선장밖에 뚫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리로 돌아갔지? 허허허.

이사를 가는 데도 내 생각 같아선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러거든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보살이 와서 "어유, 스님.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누우셔서 아주 꼼짝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똥오줌을 받아 냅니다. 이러니 애들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묏자리에다가 그냥, 묏자리를 뭉개고 거기다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영혼만 딱 건져 내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미거했던지, 구들장을 끌어내고 관을 꺼내내고 다시 구들을 놓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깐 내가 아는 소리 한 게 됐잖아? 얼른 쉽게 말해서 아는 소리 한 게 돼 버리고 말았다고. 아,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모두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야단났더라고. 이거 뭐 애들 보는 데 입도 쩝쩝거리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듯이. 아,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홀랑 바꿨죠. 그렇지만 바꾼 것도 아니고 바꾸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묘지가 잘못돼도 묘지를 파낼 수가 없다면 영혼만 반짝 들어서 하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영혼만 탑에 모셔라 그러면 그 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파헤치지 않으나 파헤치나 아무것도 아닌 흙이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간 그 자체예요. 그 도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만약에 집을 이사 갔는데 전부 묘지로다가 그냥 벽지 바르듯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위에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해도 모든 것을 내 마음 주인공에다가 합류화시킬 수만 있다면, 진짜로 믿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너만이 이 터를, 이 터의 터를 다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둘이 아닌데.' 하고 거기다가 세 번 놓고 마지막 한 번을 주인공에 맡겨라. 이것이 방편이자 진실이고, 진실이자 해결사입니다. 해결! 그러니까 무슨 어느 날, 손이 없는 날 가야 하느니 손이 있는 날 못 가느니 하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다른 것도 괴로운데 그런 것마저도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 가면 곱추도 되고 정말 잘못 가면 그냥 일이 벌어지고, 그냥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 안 해 드릴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 여러분의 그릇에 점 하나씩, 내 점 하나가 딱딱 찍혀서 나올 것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그것이 큰 방편인 줄 아시고 그렇게 허방지방하고 무꾸리하러 다니지 마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허방지방하다 보면은 내생에 오실 때도 또 허방지방하고 아주 세세생생에 허방지방할 겁니다. 그러니 좀 요참에, 쉬었다 가는 요참에 아주 배워서 뿌리를 빼 오세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허허.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내 주인공에다 모든 조상들을 모셔 놓고 그렇게 거기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영령들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그 세계의 영령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 세상이 활짝 뚫렸거든. 세상이 다 터졌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사람이 모두 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게 그냥 탁탁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고 아, 탁 뚫렸으니 뭘 바라겠어요, 그 영령들이. 아,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죠.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벌써 다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고서 판결을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 이 세상을 놓고 보여 주고, 들려주고, 앉혀 주고 하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분한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도 없이 이렇게, 즉 말하자면 도리천 좌(座)에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위패라든가 천혼문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는 위패는 써 놓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거를 새로이 또 물 한 그릇 떠 놓은 데다가 사르는 거는 해방을, 즉 말하자면 영혼을 붙들어 매 놓지 말라 이런 겁니다. 위패에 붙들어 매 놓으면 영혼이 거기에 부착이 돼 가지고 산 사람도 귀찮고 죽은 사람도 귀찮을 겁니다. 또 위패를 해 놓더라도 그렇게 태워야 하고 천혼문을 써 가지고 읽더라도 그 천혼문하고 위패하고 둘 다, 다 태워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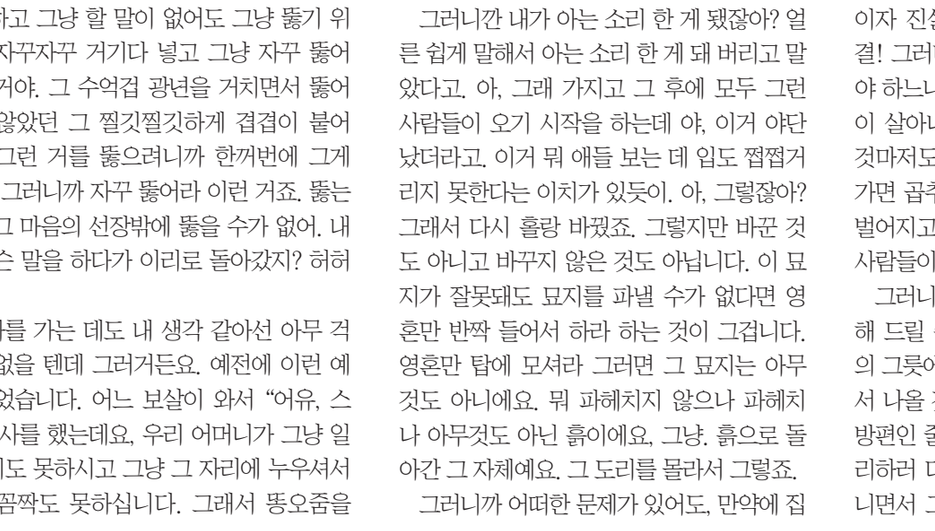
그리고 상에 차려 놓는 것은 어떤 거든지 귀신 먹게끔 해 놓지 말고, 생각을 '사람이 먹는 거지 귀신이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봐요. 그렇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면 떡 한 그릇에 그저 과일 서너 가지 해 놓고, 많이 해 놓는다면 맑은 물 한 그릇, 초, 향 이러면은 이 세상이 다 엎어져도 궁색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모든 위의 그 조상 영령들이 다 한자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손이 들이굽지 내굽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이것도 해 놓고 저것도 해 놓고 빌고 온통 이런다면 그거는 우리가 돌아가신 영령들의 그 날을 기리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이게 또 조상들이 붙어서 뭐 자손들이 좋지 않지 않을까? 요런 의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도깨비집인데 영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피를 토하고 죽고 죽고 이러거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런 공부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이었는데, 이게 현실로 있었던 얘깁니다. 그 집만 들어

☞ 26면으로 계속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바로 진짜로, 진짜로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 25면에서 계속

가서 살았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도 않고 피를 토하고 죽고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러는데, 어디다 뭐를 물어보고 물어보고 아무리 해도 그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 의지가지 할 데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또 그냥 그렇다 싶으면 나가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수 해를 통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멀지 않은 데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공부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아주 판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칼로 맞아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둘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나였지.' 하고 그냥 모두를 이렇게 쥐어서는 (오른손으로 왼손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밥 한 그릇을 큰 그릇에다가 해 놓고는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초, 향 켜 놓고 이러고선 과일 세 가지를 해 놓고, 너와 나와 한잔 하자 이런 셈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둘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었다면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어떡하겠느냐?' 하고선 아마 대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대들어 가지고 완성했어요. 아주 그냥 내버리다시피 한 그 집을 그냥 그저 얼마 이렇게 술값 집어 주고 거저 얻듯 그렇게 그냥 사 버렸어요. 사 가지고 아주 잘됐죠. 그 외에 논 있는 것도 삼분의 일은 다 사 들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해서 도와주는 주인과 부하가 둘이 아니게 살고, 그렇게 잘 살고 외려 자식들을 잘되게 도와줍니다. 자기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자기라는데!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데도 너 나를 두 편으로 가르지 마시라. 모든 거를 주인공에 넣고 '둘이 아닌데, 네가.' 이 주인공에 '모든 게 하나니까 너만이 날 돌봐줄 수 있어. 한마음 주인공!'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한데 합쳐지는 거야.

이 마음 놀음으로 인해서 도깨비가 되고, 마음 놀음으로 인해서 바로 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고 얼마나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인제 오늘은 이걸로써 끝내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또박또박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옥체 강건하시어 단비 같은 법문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신도와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법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대행 큰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마음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파산이 되고 저는 이제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병고 액난, 지옥 같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큰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큰스님의 법어를 듣고자 이렇게 청하옵니다.

큰스님 나로서는 신도님들이 괴로운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 얘기가 한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천만 제대로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간파할 때, 땅을 치고 울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때에 나는 결심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면서 고통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실행하세요. 그것만 잘 실행한다 하더라도 살아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거기에 또 생활이 부착되죠. 생활이 거기에 부착되니까 그거와 더불어 같이 여러분이 실천을 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자꾸자꾸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하면서 이렇게 나가세요.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는 늘 일체 경계를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 자리에 믿고 맡기면서 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담을 할 때 또는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관을 한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량심이 앞서다 보니까 평소 때 관하면서 맡겨 들어갈 때 과연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믿고 맡기고 들어가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실 거라고 짐작하지만은 과연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꿈으로라도 어떻게 공부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는 가슴을 향해서 눈을 내리깔고 사무실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끔 어떤 사안이 없어도 관을 해 봅니다. 그럴 때 가슴이 아련히 아려 오는 그런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를 하는 중의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괜한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가슴이 아련해짐을 느끼고 이런 것도 그것이 있다는 증거의 과정이죠. 그런데 확실치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확실치 못하다고 없다고 미심쩍게 생각진 마세요.

그런 점도 있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도,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때가 스무 살 정도? 6·25 나기 전이니까. 야! 참 신기한데 말이야, 내 깐에는 뭐 절에서 스님네들한테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경을 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야, 당신이 있다면 내 손을 들어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선 딱 앉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웬걸,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선, 그래도 나는요, 믿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 '허! 명령이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하곤 고만뒀어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별안간에 이 팔이 말입니다, 그냥 공중제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문 글씨를 모르던 때인데, 지금은 뭐 아나요? 하하하, 국문도 잘 몰라요. 절 도량에서 그전에는 불을 많이 때서 숯을 썼거든요. 숯 하나를 집어 들면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 내 몸도 아니고, 내 손도 아니고, 내 눈도 아니고, 내 귀도 아니고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보니깐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하! 들 것도 없고 안 들 것도 없고 몽땅이구나, 몽땅이야!' 그러고 웃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못 믿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몸뚱이 하나가, 즉 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본이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착이 돼서, 지금 속에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나무가 둘이 아니게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못 믿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웃음이 나서도 웃을 거고, 화가 나서도 화를 낼 것이고 이렇게 만드시란 얘깁니다. 허!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이쪽은 저쪽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생각을 하고 웃기다가 보면 거기서 껄껄껄껄대고 웃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웃는 게 바로 자기가 웃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색경을 봐도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참이 보일 때 바로 둘이 아니게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쇠로다가 면경을 만들어서 그 면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바로 진짜로 진짜로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리송하면 안 되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진짜로 믿고 생활하는 내 몸뚱이 전체가 다 그놈이 하는 짓이로구나. 생활하는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구나.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게 아니로구나.' 하고 '응, 바로 네 울력에 내가 이렇게 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하는 일도 걸림이 없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여러분이 100% 내가 사는 거 따로 있고 믿는 거 따로 있게끔 하거든요. 참 이상해, 그거 보면. 그러니 자기가 자기 부처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써, 한마음의 그 선장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를 아십시오.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배를 타고 허허바다에 지금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마음이 선장이 돼서 바로 배 안으로, "야, 배 뒤집힐까 봐 무섭다. 가만히 좀 있어!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 좀 조용하게 있어. 배 뒤집히면 너도 나도 다 죽어." 하고 안으로 다스려야지, 바깥으로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해 봤던들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 생각들을 해 봐요, 안 그런가? 아니, 내 몸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배에 탔고 내가 지금 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지금 자꾸 끌고 가는데 그냥 허허바다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허허바다를 지금 헤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너도 나도 다 죽자고 안에서 악업 선업들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악업이 나올 때는, 마음이 금방 좋았다가도 요렇게 삐뚤어져서 그냥 이런 게 치밀고 어떤 건이라도, 별거 아닌데도 화가 나요. 화가 나게 되는 거니까. 또 어떤 건은 웬만큼 화날 거라도 아, 슬기롭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돼서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바로 잘돼 나갈 때는 '아, 너희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도 절대 손색이 없게 하니 참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여기서 막 우왕좌왕할 때는 '야, 가만히 있어. 우왕좌왕하는 것도 너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관(觀)입니다.

질문자2(남) 스님, 그런데 그 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스님 그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탤런트 얘기했죠. 이 탤런트들도 꿈과 같이 탤런트들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죠? 우리 지금 사는 것도 탤런트들이 연극하는 거와 같죠. 지금 연극하는 배우들이에요, 우리가. 허허허, 그러니까 꿈에는 이 몸을 벗어나서 마음이 가르침이요, 또 몸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생시나 꿈이나 같이 공부입니다, 이게. 꿈 따로 보고 생시 따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생시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도 꿈에 나타나서 채찍질을 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모두가 살아나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커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깐 어떠한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기 놓는다면은,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는다면 미칠 필요도 없어요. 바깥으로 끄달렸다 하면 미치는 공부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기복으로 자꾸 믿고 이렇게 끄달리면은 이게 뭐가 들리고, 뭐가 그 영계에서 들리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들 하세요. 아주 똑바로 모두 천 가지 만 가지로 화(化)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뭘로 변해서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로 보인다 하더라도, 또 아주 거지로 보인다 마구니로 보인다 이러더라도 허허 웃고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왜 내가 속아서 이러고저러고 해?' 하고 거기다가, '나 공부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되맡겨 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차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4년 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생활하는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구나.
>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게 아니로구나.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자 세상보기

지구 기후 변화와 불자들의 실천



이 병 인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지난해 12월 초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이 체결되어 국제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와 지구와의 공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에서 자연을 개발하고, 자원을 남용하면서 산업화를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석탄과 석유 등을 이용한 화석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재난을 야기시켜 인류 스스로의 과보를 받고 있다.

새로운 기후협정이라 부르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도까지 제한하며,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대책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118조 정도)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막자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추진하며,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석탄을 이용한 화석발전 정책의 폐지와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에너지 관리계획과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산업계만으로는 반쪽자리 협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구에 사는 인류 모두가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효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시점은 분명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지구전체의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므로 각 개인이, 지역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지구전체가 함께 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불교계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앞장서서 선도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실천해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바탕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실천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체결돼
불교계도 적극적 대처 필요
연기 법칙 입각한 실천 선행
조계종, 햇빛발전소 추진 기대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불교적 식사법인 발우공양과 채식을 잘 살려가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사찰내에서 단열 등 에너지관리만 잘해도 사찰에너지의 수십%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사찰의 경우에도 에너지낭비요소가 많으므로 사찰내 에너지낭비를 점검하고, LED전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찰에서 사용하는 심야전기나 기름보일러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조계종단 차원에서 사찰 내 햇빛발전소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며, 무엇보다 국가에너지관리계획이 지속가능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력에너지와 잠재적 위험성이 큰 원자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탈원전 사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사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한 공동의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대처해 가야하며, 종교단체로서 이 시대의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선도해 가야 한다.

발언대

김천 개운사 훼불 사건

1월 17일 김천 개운사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 밝힌 60대 남성이 법당에 난입해 불단 위로 올라가 각목을 휘둘러 불상을 비롯해 향로, 촛물, 목탁 등 법구를 파손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훼불에 개신교인마저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와 SNS의 의견들을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 주〉

건강한 종교 대화 모임 필요



정웅기
조계종 화쟁위원회 대변인

김천 개운사에서 훼불사건이 벌어졌다.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훼불사건을 보며 한국도 종교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각목을 들고 불단위로 올라가서 훼불을 자행한 60대 남성은 앞서 성당에서는 성모상을 훼손했다. 이 같은 행동은 '나의 종교만 옳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종교문화가 내재돼 있어 벌어지는 일이다.

항상 훼불 사건이 벌어지면 개신교는 전국민적 지탄을 받는다. 개신교에서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내부 문화가 성찰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같은 훼불 사건을 보면서 실효성 있는 종교간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물론 한국종교평화회의나 종교지도자협의회 등 종교간 대화 모임은 있다. 하지만 배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실효적 대화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불교도 개신교를 혐오하면 안되며, 건강한 개신교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불교인 벗들에게 죄송할 따름

한국 종교교육에 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개신교 대학의 한 교수로서 최근 김천 개운사에서 발생한 불상훼손 사건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 자신부터 주의 깊게 이웃종교를 바르게 가르칠 것을 재삼 다짐한다.

이 일은 결코 성서의 정신도 아니고, 우리가 스승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더더욱 아니다. 주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지, 자신과 신앙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를 경멸하거나 파괴하는 분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따른다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정말로 답답할 뿐이다.

다시 한번 불상훼손사건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불교인 벗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송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페이스북 칼럼 中〉

저희 개운사의 슬픔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과해주신 목사님, 기독교신자님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해가 커서 복구는 여러달 걸리겠지만 보도해 주신 기독교 매체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 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운사 주지 진원 스님〉

스님, 힘내시길 바라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군요. 〈임재원〉

스님 힘내세요. 저마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제발 생각 좀 가지고 살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남상수〉

불당이 훼손된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배척하는 것에 불쾌합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타종교도 존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석〉

저는 태생이 불교신자로서 법명은 법운입니다. 3년 전에는 성경공부 열심히 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명은 대건안드레아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양 극단만 있는거 같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경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 이런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진장환〉

社說

불교 상장례 표준 규약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떳다방' 포교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떳다방' 포교당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패와 불상을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노인들의 피해가 많아지자 충북 보은군은 최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유사포교당', '떳다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도 이 같은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개별 사찰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불교계에 동산이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조계종도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되어있지만 불상, 위패, 천도재 등 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관한 관리체제는 없다.

장사법의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되고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서와 약속이행서, 혹은 표준화 된 약관 · 규약도 없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1만원씩 받던 49재 미사를 최근 무료로 진행한다고 공개했으며, 일본불교도 관장 · 총무 등 스님에 따른 재의 비용이 투명히 공개된다. 한국에서도 인천 용화사 경우에는 평생위패와 재에 10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에 펴낸 〈불교 상제례 안내〉에 따르면 불교의 천도재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영가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이 천도재라면, 적어도 현재의 방문판매로 이뤄지는 천도재 판매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종단 역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비구니복지실천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 기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만들어졌다. 그것은 바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다.

이 모임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인 상덕 스님을 선출했다. 이번 모임의 준비는 지난해 8월 5일 제 1차 발기 회의를 시작으로 비롯됐다. 이후 총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과정서 서울은 물론 전국 지역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 요청을 통해 4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복지 포교의 보람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더 나아가서는 친목 도모를 통해 회원들의 위상 정립과 권익 보호는 물론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하자는게 주 목적이다. 앞으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는 '회원 시설장 워크숍' '재난구호사업'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유' '불교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비구니회도 이 모임에 대해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복지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비구니의 사회적 역할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으로 한국불교비구니복지실천가 회원들이 긍지와 사명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 함께 회원 권리와 책무를 다하여 불교 복지 발전을 도모하며, 하나 된 불교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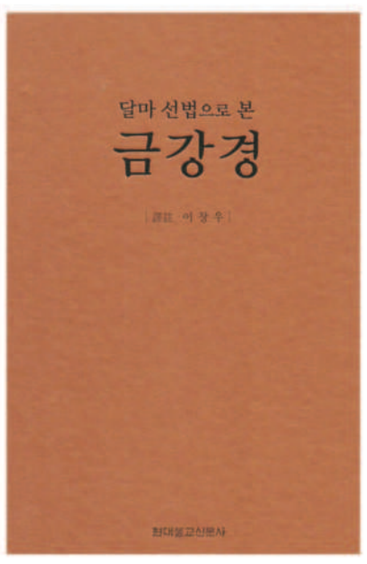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컬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컬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